

주홍색 연구

A Study in Scarlet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87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10-09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Arthur Conan Doyle, "A Study in Scarlet" (Beeton's Christmas Annual 1887)

저자

아서 코난 도일 (Sir Arthur Conan Doyle, 1859–1930)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44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10-09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웁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
시면 좋겠습니다.

제1부 제1장 설록 홈즈 씨

1878년, 나는 런던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육군 외과 의사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네틀리로 향했다. 그곳에서 모든 공부를 마친 뒤, 나는 제5 노섬벌랜드 연대의 부속 외과 의사로 정식 임명되었다. 당시 연대는 인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내가 합류하기도 전에 제2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하고 말았다. 봄베이에 상륙했을 때 들은 소식에 따르면, 내 부대는 이미 고개를 넘어 적진 깊숙이 진격한 상태였다. 하지만 나와 처지가 같았던 다른 장교들과 함께 뒤를 쫓았고, 다행히 칸다하르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연대원들과 합류한 나는 곧바로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다.

그 전쟁은 많은 이에게 영광과 진급을 안겨주었지만, 내게는 불행과 재앙만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원래 소속되어 있던 여단에서 물러나 버크셔 연대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마이완드라는 비극적인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다. 전투 도중 제자일 총탄에 어깨를 맞았는데, 뼈가 산산조각 나고 쇠골하동맥이 스치듯 상처를 입었다. 만약 내 전령인 머레이가 보여준 헌신과 용기가 없었더라면, 나는 살인귀 가지(Ghazis)들의 손

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머레이는 나를 짐발 위에 던져 신고는 영국군 진영까지 무사히 데려다주었다.

고통에 지치고 오랜 고난으로 기력이 쇠한 나는, 수많은 부상병과 함께 페샤와르의 야전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나는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병동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는 여유까지 생겼을 무렵이었다. 하지만 인도령의 저주라 불리는 장티푸스가 나를 덮쳤다. 몇 달 동안이나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가 이어졌다.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내 몸은 너무나 수척하고 쇠약해져 있었다. 의료진은 한시라도 빨리 나를 영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나는 곧바로 수송선 오론텐스호에 몸을 실었다. 한 달 뒤 포츠머스 부두에 내렸을 때, 내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다만 정부로부터 향후 9개월 동안 건강 회복에 전념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영국에는 일가친척 하나 없었기에 나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몸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루에 11실링 6펜스라는 수입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큼은 자유로웠다. 이런 처지였던 나는 자연스럽게 런던으로 흘러 들어갔다. 런던은 대영제국의 모든 한량과 게으름뱅이들이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모여드는 거대한 하수구 같은 곳이었다. 나는 그곳 스트랜드에 있는 한 사설 호텔에 머물며, 아무런 보람도 의미도 없는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가진 돈은 써야 할 때보다 훨씬 더 평평 써버리고 말았다. 재정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자, 나는 곧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대도시를 떠나 시골 어디론가 내려가 살거나, 아니면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만 했

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우선 호텔을 나가기로 마음먹고, 덜 거창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집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내가 바로 그 결론에 도달한 바로 그날이었다. 크라이테리언 바에 서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뒤를 돌아보니 바트 병원에서 내 밑에서 드레서(수술 조수)로 일했던 젊은 스탬퍼드가 보였다. 거대한 황무지 같은 런던에서 아는 얼굴을 마주한다는 건, 외로운 사람에겐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예전 같았으면 스탬퍼드가 딱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겠지만, 지금의 나는 반가운 마음을 담아 그를 불러 세웠다. 그 역시 나를 보고 무척 기뻐하는 눈치였다. 나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에게 홀본에서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한숨 마차를 타고 함께 길을 나섰다.

“그동안 대체 뭘 하고 지낸 건가, 왓슨?”

인파로 북적이는 런던 거리를 달리는 마차 안에서, 스탬퍼드가 숨기지 못할 경이로움을 드러내며 물었다.

“살은 깎아 놓은 판자처럼 말랐는데, 안색은 건과류처럼 거무스름하군.”

나는 그에게 내가 겪은 모험담을 짧게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거의 다 마칠 때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불쌍한 친구 같으니!” 나의 불행한 사연을 다 들은 그가 동정 어린 말투로 말했다. “이제는 또 무엇을 하려는 건가?”

“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적당한 가격에 지낼 만한 방을 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중이고요.”

“참 이상하군요.” 동행인이 말했다. “오늘 나에게 그 표현을 쓴 사람은 당신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내가 물었다.

“병원 화학 실험실에서 일하는 친구라네. 오늘 아침에 그 친구가 아주 상심해 있더군. 괜찮은 방을 하나 찾아냈는데, 혼자서 월세를 다 감당하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같이 방을 나누어 쓸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말이야.”

“세상에!” 내가 외쳤다. “그가 정말로 방을 같이 쓰면서 비용을 분담할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딱 적임자야.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파트너가 있는 편이 훨씬 좋거든.”

젊은 스탬퍼드는 와인잔 너머로 나를 다소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아직 설록 홈즈를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쩌면 매일 붙어 지내는 동료로 삼기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겁니까?”

“아,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좀 독특할 뿐이지요. 특정 과학 분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의대생이시군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그가 앞으로 어떤 분야를 전공할지는 저도 전혀 모릅니다. 해부학에도 정통하고 화학 실력도 일류라고 알고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체계적인 의학 수업을 따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이 매우 산만하고 별난 편이지만, 교수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독특하고 방대한 지식을 쌓아두긴 했습니다.”

“그가 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인지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는 성격이 아닙니다. 다만 흥미로운 생각이 떠올라 무언가에 꽂히기라도 하면, 그때만큼은 꽤나 말이 많아지곤 하죠.”

“그분을 꼭 만나보고 싶군요.” 내가 말했다. “누군가와 함께 지내게 된다면, 저는 학구적이고 조용한 습관을 지닌 분이었으면 합니다. 아직은 소음이나 소란을 견딜 만큼 몸이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소음과 소란만으로도 남은 평생을 버티기에 충분할 정도니까요. 당신의 그 친구분을 어떻게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는 분명 실험실에 있을 거요.” 동행한 이가 대답했다. “몇 주 동안 그곳을 아예 들르지 않거나, 아니면 아침부터 밤까지 거기서 살다시피 하거든. 괜찮다면 점심 식사 후에 같이 차를 타고 가봅시다.”

“물론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흘러갔다.

호본을 떠나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스탬퍼드는 내가 함께 살게 될 그 신사에 대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들려주었다.

“그와 잘 지내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원망하진 말게.” 그가 말했다. “나도 실험실에서 가끔 마주치며 알게 된 것 말고는 그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이 방식은 자네가 제안한 것이니, 내게 책임을 묻어서는 안 되네.”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한다면 갈라서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겠지.” 내가 대답했다. 나는 동행인인 스탬퍼드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덧붙였다. “스탬퍼드, 자네가 이 일에서 손을 떼려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군. 그 친구 성미가 보통이 아닌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 예둘러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보게.”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법이지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흠즈는 내 취향에 비하면 지나치게 과학적이에요. 거의 냉혈한에 가깝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면 친구에게 최신 식물성 알칼로이드를 아주 조금 먹여볼 법도 합니다. 약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약물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내려는 탐구심 때문이겠지만 말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는 자신이 직접 그 약을 먹는 일에도 똑같이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명확하고 정확한 지식을 갈구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같거든요.”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해부실에서 실험 대상들을 막대기로 때리는 것까지 간다면, 그건 확실히 기괴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셈이니까요.”

“시신을 때린다고요!”

“네, 사후에 멍이 어디까지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의대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가 무엇을 연구하는지는 하늘만이 아시겠지요. 하지만 일단 도착했으니, 직접 그를 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그의 말과 함께 우리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이어 커다란 병원 별관으로 이어지는 작은 옆문을 통과했다. 이곳은 내게 익숙한 곳이었다. 황량한 돌계단을 올라가 회색빛 벽과 황갈색 문들이 길게 늘어선 복도로 들어설 때, 나는 별다른 안내 없이도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복도 끝자락에는 낮은 아치형 통로가 갈라져 나와 화학 실험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천장이 높은 방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병이 선반을 가득 채웠고 바닥에도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넓고 낮은 탁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증류기나 시험관이 뽁뽁하게 놓여 있었고 푸른 불꽃을 내뿜는 작은 분젠 램프들도 보였다. 방 안에는 학생이 단 한 명뿐이었는데, 그는 멀리 떨어진 탁자 앞에 몸을 굽힌 채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우리의 발소리가 들리자 그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더니, 기쁨 섞인 외침과 함께 벌떡 일어났다. 그는 시험관을 손에 든 채 우리를 향해 달려오며 동행인에게 소리쳤다.

“찾았어! 드디어 찾아냈다고!”

그가 외쳤다.

“헤모글로빈에만 반응하여 침전물을 만드는 시약을 찾아냈단 말이야. 다른 건 전혀 반응하지 않아!”

마치 금광이라도 발견한 듯, 그의 얼굴에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을 표현할 길 없어 보였다.

“왔슨 박사님, 그리고 설록 홈즈 씨입니다.” 스탬퍼드가 우리를 소개하며 말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가 친근하게 물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다. “보아하니,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오셨군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신 겁니까?” 나는 경악하며 물었다.

“상관없네.” 그가 혼자 길길거리며 말했다. “이제 관건은 헤모글로빈이라네. 내 이번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자네도 분명 알겠지?”

“화학적으로는 분명 흥미로운 일이겠지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이보게, 이걸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법의학적 발견 중 가장 실용적인 것이라고! 혈흔을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시험법이라는 게 안 보이나? 자, 이쪽으로 좀 와보게!”

홈즈는 흥분한 나머지 내 코트 소매를 덥석 붙잡더니, 자신이 작업하던 탁자 쪽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신선한 피가 좀 필요하겠군.”

그는 길쭉한 송곳 같은 도구로 자신의 손가락을 찢어 피를 낸 뒤, 화학용 피펫으로 그 핏방울을 빨아올리며 말했다.

“자, 이제 이 적은 양의 피를 물 1리터에 섞어보겠네. 보시다시피 섞인 액체는 그냥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 피의 비율은 백만 분의 일도 채 되지 않을 걸세. 하지만 분명히 특유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말을 마친 홈즈는 용기 안에 하얀 결정 몇 개를 던져 넣고는, 투명한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렸다. 그러자 순식간에 용기 안의 액체가 탁한 마호가니 색으로 변하더니, 갈색 가루가 유리병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하하!” 그는 마치 새 장난감을 얻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나?”

“아주 까다로운 시험 같군요.” 내가 말했다.

“훌륭해! 정말 훌륭해! 예전에 쓰던 구아이악 검사는 너무 번거롭고 부정확했지. 혈구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야. 혈흔이 생긴 지 몇 시간만 지나도 그 방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 그런데 이 방식은 피가 오래되었든 최근의 것이든 상관없이 효과가 있는 것 같군. 만약 이 검사법이 진작 발명되었다면, 지금 이 세상에 멀쩡히 살아 돌아다니는 범죄자 수백 명은 이미 오래전에 죄값을 치렀을 거야.”

“정말 그렇군요!” 내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범죄 사건은 늘 결정적인 단 한 가지 지점에서 성패가 갈리곤 합니다. 범행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난 뒤에야 어떤 사람이 범인으로 의심 받는 경우가 있지요. 그 사람의 린넨이나 옷을 조사하다 보면 갈색 얼룩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혈흔인지, 진흙인지, 녹물인지, 아니면 과일 얼룩인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를 당혹스럽게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을 만한 검사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서 설록 홈즈의 검사법이 있으니, 더 이상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는 말을 내뱉으며 눈을 번뜩였다. 그러더니 마치 상상 속에서 불러낸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인사라도 하듯, 가슴에 손을 얹고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축하할 일이 생겼군요." 그의 열띤 모습에 꽤 놀란 내가 말했다.

“작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폰 비쇼프 사건이 있었지. 만약 이 검사법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 교수형에 처해졌을 거야. 브래드퍼드의 메이슨, 악명 높은 밀러, 몽펠리에의 르페브르, 그리고 뉴올리언스의 샘슨 사건도 있었고. 이 검사법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을 사례는 스무 가지도 넘게 대어 놓을 수 있어.”

“당신은 마치 걸어 다니는 범죄 달력 같군요.” 스탬퍼드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 내용으로 신문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제목은 ‘과거의 경찰 뉴스’라고 하면 딱이겠네요.”

“아주 흥미로운 독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설록 홈즈가 손가락에 찢린 자국 위에 작은 반창고를 붙이며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보고는 말을 이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독극물을 꽤 자주 다루거든요.” 그가 말을 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그의 손등이 비슷한 반창고로 여기저기 덮여 있고 강한 산성 물질 때문에 변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우린 일 때문에 여기 왔네.” 스탬퍼드가 높은 삼각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발로 의자 하나를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여기 내 친구가 하숙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네가 방값을 함께 나눠 낼 사람을 구하지 못해 불평하던 참이라, 내가 두 사람을 연결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설록 홈즈는 나와 방을 함께 쓴다는 생각에 무척 즐거워 보였다. “베 이커가에 눈여겨본 방이 하나 있소.” 홈즈가 말했다. “우리 둘에게 아주 딱 맞는 곳이지. 혹시 독한 담배 냄새가 나더라도 괜찮겠소?”

“전 늘 ‘쉽스(ship’s)’ 담배를 피웁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평소에 화학 약품을 좀 갖춰두고 가끔 실험도 하곤 하거든요. 혹시 그게 불편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어디 보자, 내 단점이 또 뭐가 있을까. 가끔씩 기분이 아주 가라앉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며칠 동안 입도 뻥긋하지 않곤 해. 혹시 내가 그렇게 굴더라도 심술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그냥 내버려 두면 금방 괜찮아질 테니까. 자, 이제 자네는 나에게 무엇을 고백할 건가? 같이 살기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가장 안 좋은 모습까지 미리 알아두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말이야.”

나는 그 심문이 우스워 웃음을 터뜨렸다. “불독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소란스러운 건 질색이고, 밤낮없이 불규칙하게 자고, 아주 게으르기도 하죠. 몸이 좀 괜찮을 때는 또 다른 나쁜 버릇들이 생기곤 합니다만, 지금은 이것들이 주된 문제들입니다.”

“바이올린 연주도 소음의 범주에 넣으십니까?” 그가 초조한 듯 물었다.

“연주자에 따라 다르겠지.” 내가 대답했다. “훌륭한 연주는 신들조차 즐거워할 만한 축복이지만, 형편없는 연주는——”

“아, 괜찮습니다.” 그가 유쾌하게 웃으며 외쳤다. “방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 일은 다 해결된 것으로 봐도 좋겠군요.”

“그 방들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내일 정오에 여기로 나를 데리러 오게. 그럼 같이 가서 모든 일을 해결하도록 하지.” 그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정오에 정확히 뵙죠.” 나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화학약품들 사이에서 작업 중인 그를 뒤로하고, 함께 내가 묵는 호텔을 향해 걸어갔다.

“그나저나,” 나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스탬퍼드 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다. “도대체 그가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던 거지?”

내 동료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그 친구만의 독특한 점이라네.” 스탬퍼드가 말했다. “그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주 많거든.”

“오, 미스터리라고요?” 나는 손을 비비며 외쳤다. “정말 흥미진진하군요.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류의 진정한 연구 대상은 인간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네가 그를 연구해 보게.” 스탬퍼드가 작별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하지만 아주 까다로운 상대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자네가

그를 알아내기보다, 오히려 그가 자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거라고 장담하지. 그럼 이만.”

“안녕히 가십시오.” 나는 대답하고는 호텔로 향했다. 새로 알게 된 이 인물에 대해 꽤 흥미가 생긴 상태였다.

제1부 제2장 연역의 과학

제2장. 연역법의 과학

다음 날, 우리는 그가 약속한 대로 만났다. 그리고 지난 만남에서 그가 말했던 베이커가 221B의 방들을 둘러보았다. 방은 아늑한 침실 두 개와 넓고 통풍이 잘되는 거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다. 거실은 가구 배치도 경쾌한 느낌을 주었고, 커다란 창문 두 개를 통해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다. 모든 면에서 이 집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우리가 나누어 내야 할 비용도 적당해 보였다.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맺고 즉시 입주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호텔에 있던 짐을 모두 옮겨 왔다. 다음 날 아침에는 설록 홈즈가 여러 개의 상자와 여행 가방을 들고 내 뒤를 따랐다. 우리는 하루 이틀 동안 짐을 풀고, 물건들을 최대한 보기 좋게 배치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짐 정리를 마친 뒤에야 우리는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홈즈와 함께 사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성격이 조용했고 생활 습관도 규칙적이었다. 밤 10시가 넘도록 깨어 있는 일은 드물었으며,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면 그는 언제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외출한 상태였다. 그는 어떤 날은 화학 실험실에서, 어떤 날은 해부실에서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아주 멀리까지 산책을 나갔는데, 그 길은 대개 런던 시내의 가장 낙후된 지역까지 이어지곤 했다. 연구에 몰두할 때의 에너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기운이 한풀 꺾이는 때가 찾아왔다. 그러면 그는 며칠 동안 거실 소파에 누워 아침부터 밤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해졌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그의 눈동자가 너무나 멍하고 공허해 보여서, 만약 그가 평소 보여준 절제된 생활과 청결한 습관을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그가 어떤 마약에 중독된 것이 아닌가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몇 주가 흐르면서 그에 대한 관심과 그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은 점차 깊어졌다. 그의 외모와 분위기는 아주 무심한 관찰자의 눈길조차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강렬했다. 키는 6피트가 조금 넘었고, 몸이 워낙 비정상적으로 말라 있어서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였다. 눈매는 날카롭고 예리했다. 앞서 언급했던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를 제외하면 말이다. 매처럼 뾰족하고 얇은 코는 그의 전체적인 인상에 기만함과 결단력을 더해주었다. 턱 또한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듯 각이 젖고 돌출되어 있었다. 그의 손은 늘 잉크 자국과 화학 약품 얼룩으로 가득했지만, 섬세한 손길만큼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가 부서지기 쉬운 정밀한 실험 기구들을 다루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나는 그 사실을 새삼 실감하곤 했다.

이 남자가 내 호기심을 얼마나 자극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과 관련된 일에 보여준 그 침묵을 깨뜨리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고백한다면, 독자들은 나를 구제 불능의 참견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를 판단하기에 앞서 한 가지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당시 내 삶이 얼마나 목적 없이 흘러갔는지, 그리고 내 주의를 끌 만한 일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말이다. 건강 문제 때문에 날씨가 유난히 화창하지 않으면 밖을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단조로운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줄 친구도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나는 동거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작은 미스터리를 간절히 반겼으며,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고 있지 않았다. 스탬퍼드가 그에 대해 가졌던 의구심은, 질문을 받은 그의 답변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그는 과학 학위를 따기 위한 과정이나, 학문적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다른 공인된 경로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그의 열정은 놀라울 정도였다. 비록 그 범위가 괴짜 같을 만큼 한정적이었으나, 그 지식의 폭과 깊이가 워낙 방대하고 세밀해서 그의 관찰력을 마주할 때면 나는 진심으로 경악하곤 했다. 분명 어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토록 열심히 노력하거나 이토록 정밀한 정보를 습득할 리가 없다. 대충 훑어보는 식의 독서가들은 지식의 정확성 면에서 결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그 누구도 사소한 일들에 머릿속을 낭비하지 않는 법이다.

그의 무지는 지식만큼이나 놀라웠다. 당대의 문학이나 철학, 정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듯 보였다. 내가 토머스 칼라일을 인용하자, 그는 칼라일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아주 순진하게 물었다. 하지만 나의 놀라움이 정점에 달한 것은, 우연히 그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다. 19세기를 살아가는 문명인이라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한다. 그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들 만큼 기이한 일이었다.

“무척 놀라신 모양이군요.”

그는 나의 경악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 최선을 다해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라고요!”

“보시다시피,” 그가 설명했다. “나는 사람의 뇌가 원래 작은 빈 다락방과 같다고 생각하네. 그 안을 어떤 가구로 채울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하지. 어리석은 사람은 길에서 마주치는 온갖 잡동사니를 다 들여놓곤 하네.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 유용한 지식은 밀려나 버리거나, 아무리 찾아도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다른 잡동사니와 뒤섞여 버리고 말지. 반면 숙련된 기술자는 자신의 뇌라는 다락방에 무엇을 들여놓을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네. 그는 오직 자신의 업무에 도움이 될 도구만을 갖추려 노력하지. 물론 그 도구들은 아주 다양하며, 모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네. 그 작은 방의 벽이 고무처럼 늘어나서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일세. 지식을 하나 더 채울 때마다 이전에 알던 것을 하나씩 잊어버리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지. 그러니 쓸모없는 사실들이 유용한 지식을 밀어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네.”

“하지만 태양계는요!” 내가 항변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가 참지 못하고 말을 끊으며 쏘아붙였다.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셨죠? 설령 우리가 달 주위를 돈다 한들, 나나 내 일에는 단 한 톨의 가치도 없는 차이일 뿐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려던 참이었으나, 그의 태도를 보니 그런 질문은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짧았던 대화를 되짚어 보며, 그 안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 보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목적과 관련 없는 지식은 전혀 습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은 오로지 자신에게 유용한 것들뿐이라는 뜻이다. 나는 그가 유독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었던 여러 분야를 머릿속으로 하나씩 훑아보았다. 나는 연필을 들어 그 목록을 직접 적어 내려가기까지 했다. 작성을 마친 뒤 그 기록을 보고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설록 홈즈—그의 한계.

1. 문학: 전무함. 2. 철학: 전무함. 3. 천문학: 전무함. 4. 정치: 미약함. 5. 식물학: 가변적임. 벨라도나와 아편, 그리고 일반적인 독극물에

대해서는 해박하나, 실용적인 원에 지식은 전혀 없음. 6. 지질학: 실용적이지만 범위가 한정적임. 흙의 종류를 한눈에 구별해 냄. 산책을 다녀온 뒤 바지에 튼 흙을 보여주며, 그 색깔과 질감만으로 런던의 어느 지역에서 묻은 것인지 맞히기도 함. 7. 화학: 심오함. 8. 해부학: 정확하나 체계적이지는 않음. 9. 자극적인 통속 소설: 방대함. 이번 세기에 일어난 온갖 끔찍한 사건의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는 듯함. 10. 바이올린 연주 실력이 뛰어나함. 11. 싱글스틱(단봉) 숙련자이며 복싱과 검술에도 능함. 12. 영국 법률에 관한 실용적인 지식이 풍부함.

목록을 그만큼 채웠을 때, 나는 절망하며 그것을 불속에 던져버렸다. "이 모든 재능을 하나로 엮어서 그가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이 모든 능력이 다 필요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만 있다면 좋으려만." 나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지금 당장 시도를 포기하는 게 낫겠어."

앞서 나는 홈즈의 바이올린 실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연주 능력은 매우 놀라웠지만, 그의 다른 재주들이 그렇듯 다소 괴팍한 면이 있었다. 그가 곡을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도 난도가 높은 곡들을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부탁했을 때 그가 멘델스존의 가곡과 다른 유명한 곡들을 몇 곡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는 음악을 연주하거나 알려진 선율을 시도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저녁이면 그는 안락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무릎 위에 얹어둔 바이올린을 무심하게 켜곤 했다. 때로는 화음이 울려 퍼지며 애잔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때로는 기묘하면서도 경쾌

하게 들리기도 했다. 그 음악이 당시 그의 마음 상태를 분명히 반영하고는 있었지만, 음악이 그의 생각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변덕이나 기분에 따라 연주하는 것인지는 나로서도 판단하기 어려웠다.

만약 그가 이런 짜증스러운 독주를 마칠 때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한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도 하듯 내가 좋아하는 곡들을 연달아 연주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그 연주에 항의했을지도 모른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는 내 동거인이 나만큼이나 친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그에게 아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사회적 계층도 제각각이었다.

레스트레이드 씨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얼굴이 창백하고 쥐를 닮은 검은 눈의 작은 사내가 있었는데, 그는 한 주에 서너 번씩이나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에는 세련된 옷차림을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와 삼십 분 넘게 머물다 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유대인 행상인처럼 보이는, 머리가 희끗하고 초라한 차림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는 무척 흥분한 기색이었고, 뒤이어 옷차림이 단정치 못한 노부인이 따라 들어왔다. 또 다른 날에는 백발의 노신사가 내 동거인과 면담을 했고, 또 다른 날에는 벨벳 제복을 입은 철도 역무원이 찾아오기도 했다.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설록 흠즈는 거실을 좀 써도 되겠느냐며 양해를 구했고, 나는 내 침실로 물러나 있었다. 흠즈는 매번 나에게 이런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 방을 업무 공간으로 써야 해서 말이야.” 그가 말했다. “저 사람들은 내 의뢰인들이거든.”

나에게도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기회가 있었지만, 상대방이 억지로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차마 묻지 못했다. 당시 나는 그가 그 일을 언급하지 않는 데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곧 홈즈가 스스로 그 화제를 꺼내는 바람에 나의 추측은 금세 빗나갔다.

내가 그날을 유독 또렷하게 기억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3월 4일이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나는 설록 홈즈가 아직 아침 식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내 늦은 생활 습관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내 자리에는 식기조차 놓여 있지 않았고 커피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인간 특유의 불합리한 짜증을 참지 못하고 벨을 눌러 내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통명스럽게 알렸다. 그러고는 탁자 위에 놓인 잡지 한 권을 집어 들었다. 동료인 홈즈가 말없이 토스트를 씹는 동안, 나는 잡지를 읽으며 시간을 때우려 했다. 기사 중 하나는 제목 부분에 연필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책의 제목은 다소 야심 차게도 『생명의 서』였다. 저자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보여주려 했다. 내가 보기에 그 책은 기발함과 황당함이 묘하게 뒤섞인 결과물이었다. 추론 과정은 치밀하고 강렬했으나,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지나치게

억지스럽고 과장되어 보였다. 저자는 찰나의 표정이나 근육의 떨림, 혹은 눈빛 하나만으로도 인간의 가장 깊은 속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찰과 분석을 훈련한 사람에게 기만이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의 결론은 마치 유클리드의 명제처럼 결코 틀릴 리 없었다. 그 과정을 모르는 이들에게 저자의 결과는 너무나 놀라워서, 아마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논리적 과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를 마법사로 여길지도 모를 일이었다.

“물 한 방울만 보고도,”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논리학자라면 대서양이나 나이가가라 폭포를 직접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그 존재 가능성을 추론해낼 수 있다. 생명 또한 거대한 사슬과 같아서, 그 사슬의 고리 하나만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 전체의 성질을 알 수 있다. 다른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연역과 분석의 과학 역시 길고 인내심 있는 연구를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필멸자도 이 학문의 정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

가장 까다로운 도덕적, 정신적 측면을 다루기에 앞서, 탐구자는 우선 기초적인 문제부터 마스터해야 한다. 길에서 타인을 마주쳤을 때, 단번에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과 직업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연습이 유치해 보일지 모르나, 이는 관찰력을 날카롭게 다듬어주며 무엇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손톱, 코트 소매, 장화, 바지 무릎, 검지와 엄지의 굳은살, 표정, 그리고 셔츠 커프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직업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모든 단서가 모였음에도 유능한 탐구자가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란 말인가!” 나는 잡지를 탁자 위에 내 동댕이치며 외쳤다. “살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그게 무엇인가?” 설록 홈즈가 물었다.

“아니, 이 기사 말입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은 나는 달걀 스푼으로 기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 표시를 해두신 걸 보니 이미 읽으셨군요. 글썄씨가 아주 세련됐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면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군요. 이건 분명 서재에 틀어박혀 이런 깔끔하고 정교한 역설들을 만들어내는, 세상 물정 모르는 한량 의 이론일 뿐입니다. 전혀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하철 3등 칸에 앉아, 같이 탄 승객들의 직업을 하나하나 맞춰보라고 요구받는 모습을 꼭 보고 싶군요. 만약 내기를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틀린다는 쪽에 천 대 일의 확률로 돈을 걸겠습니다.”

“돈만 날리게 될 겁니다.” 설록 홈즈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 기사는 제가 직접 쓴 것입니다.”

“당신!”

“그렇습니다. 나는 관찰과 추론 양쪽 모두에 재능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이론들이 당신에게는 터무니없는 공상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지극히 실용적입니다. 내 생계를 책임질 만큼 아주 실용적이죠.”

“어떻게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물었다.

“글쎄요, 저도 제 나름의 직업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저 같은 사람은 저뿐일 겁니다. ‘자문 탐정’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여기 런던에는 정부 소속 탐정도 많고 개인 탐정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사 중에 난관에 부딪히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사건의 실마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지요. 그들이 모든 증거를 제 앞에 펼쳐 놓으면, 저는 범죄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모든 범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수천 가지 사건의 세부 사항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다면, 그다음 천 한 번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레스트레이드는 아주 유명한 탐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위조 사건을 수사하다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바람에,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실 탐정 사무소에서 의뢰를 받고 움직입니다. 다들 어떤 문제에 휘말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사연을 털어놓으면 저는 제 의견을 들려줍니다. 그러고 나면 제 수임료를 챙기는 식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말씀이신가요?” 내가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도 도저히 풀지 못하는 매듭을, 흠즈는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도 풀어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일종의 직관이 있거든요. 가끔은 평소보다 조금 더 복잡한 사건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직접 발로 뛰며 눈으로 확인해야 하죠. 아시다시피 저는 사건을 해결할 때 저만의 특수한 지식들을 활용하는데, 그 덕분에 일이 아주 수월하게 풀리곤 합니다. 당신이 비웃었던 그 기사 속 연역법 원칙들은 실무에서 저에게 더없이 소중한 도구입니다. 저에게 관찰이란 제2의 천성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고 말하자 당신이 꽤 놀랐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분명히 들으셨겠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 덕분에 사고의 흐름이 머릿속을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중간 과정을 의식하기도 전에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요. 물론 중간 과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추론의 흐름은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 타입이지만 군인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군. 그렇다면 분명 군의관일 거야. 얼굴이 검게 그을린 걸 보니 방금 열대 지방에서 돌아온 게 틀림없어. 손목이 하얀 것을 보니 원래 피부색이 그런 건 아니군. 수척한 얼굴을 보니 고생도 많이 하고 병치레도 했던 모양이야. 왼쪽 팔도 다쳤군. 팔을 뻗뻗하고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보니 말이야. 영국군 의관이 열대 지방 어디에서 그토록 고생하며 팔까지 다쳤을까? 아프가니스탄이 분명하군.’ 이 모든 사고 과정은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당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고 말하니, 당신은 깜짝 놀랐던 것이고요.”

“설명을 들으니 아주 간단한 문제 같군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에드거 앨런 포의 뒤펡이 떠오릅니다. 소설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인물이 실제로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셜록 홈즈가 일어나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나를 뒤펡에 비유하다니, 분명 칭찬이라고 생각했겠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뒤펡은 아주 수준 미달인 친구였네. 15분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치 상대의 생각을 읽은 듯 적절한 말을 던져 친구를 놀라게 하는 수법 말이야. 그건 그저 과시적이고 피상적인 기술일 뿐이지. 물론 그에게 분석적인 재능이 있었다는 건 부정하지 않겠네. 하지만 포가 상상했던 것처럼 결코 대단한 천재는 아니었어.”

“가보리오의 작품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르코크가 당신이 생각하는 탐정의 모습에 부합합니까?”

셜록 홈즈가 냉소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르코크는 형편없는 엉터리였어.” 홈즈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에게 내세울 만한 건 오로지 넘치는 에너지뿐이었지. 그 책을 읽다 가는 정말이지 병이 날 지경이라니까. 문제는 정체불명의 수감자를 어떻게 식별하느냐였어. 나였다면 스물네 시간 안에 끝냈을 일을, 르코크는 반년이나 끌었던 말이야. 탐정들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교과서로 써도 될 정도지.”

내가 존경해 마지않던 두 인물이 이토록 경솔하게 취급받는 것을 보니 울화가 치밀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북적이는 거리의 풍경을 내다 보았다. "이 친구가 아주 영리할지는 몰라도, 분명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군."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요즘 세상에는 범죄도, 범죄자도 없단 말입니다.” 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우리 같은 직업에 머리를 써서 무엇하겠습니까. 내게는 이름을 떨칠 만한 재능이 있다는 걸 나 스스로도 잘 압니다. 범죄를 밝혀내는 일에 나만큼 깊이 연구하고 타고난 재능을 쏟아부은 사람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사할 범죄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기껏해야 어설픈 악당 짓거리나 좀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동기가 너무 뻔해서 스코틀랜드 야드의 관리라도 단번에 알아챌 수준이지요.”

그의 거만한 말투 때문에 여전히 기분이 언짢았다. 나는 화제를 돌리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찾는 걸까요?”

나는 길 건너편에서 번지수를 초조하게 살피며 천천히 걷고 있는 한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손에는 커다란 파란색 봉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누군가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져온 심부름꾼 같았다.

“해병대 퇴역 상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설록 홈즈가 말했다.

‘허풍을 떨며 기세등등하게 구는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내가 자신의 추측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생각이 채 머릿속을 스치기도 전이었다. 우리가 지켜보던 남자가 우리 집 문에 붙은 번호를 발견하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급히 달려갔다. 곧이어 커다란 노크 소리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굼직한 목소리,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설록 홈즈 씨 앞으로 온 것입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며 내 친구에게 편지를 건네고는 말했다.

그의 오만함을 꺾어 놓을 좋은 기회였다. 그가 그렇게 막연한 어림 짐작을 던졌을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보게, 실례지만 자네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나?”

“경비원입니다, 손님.” 그가 투명스럽게 말했다. “제복이 수선 중이라서요.”

“그럼 당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동행인을 향해 약간의 장난기 어린 시선을 던지며 물었다.

“해병대 소속 상사입니다, 선생님. 해병 경비병대 소속입니다. 대답이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는 뒤통치를 탁 맞부딪치며 경례를 하듯 손을 들어 올리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제1부 제3장 로리스턴 가든스의 미스터리

제3장 로리스턴 가든스의 미스터리

동료의 이론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새로운 증거를 마주하자, 나는 솔직히 적잖이 놀라고 말았다. 그의 분석 능력에 대한 나의 경외심은 놀라울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현혹하기 위해 미리 짜인 연극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나를 속여서 얻을 이득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의구심은 더욱 깊어졌다. 내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막 쪽지를 다 읽은 참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유의 멍하고 생기 없는 빛을 띠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그런 추론을 하신 겁니까?” 내가 물었다.

“무엇을 추리하라는 말입니까?” 그가 짜증스럽게 되물었다.

“그가 해병대 퇴역 상사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소한 일에 낭비할 시간은 없네.” 그가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무례하게 굴었다면 용서하게. 자네가 말을 거는 바람에 생각의 흐름이 끊겨버렸군. 하지만 차라리 잘 된 일일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네는 저 남자가 해병대 상사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인가?”

“아니요, 전혀요.”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아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2 더하기 2는 4라고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꽤 애를 먹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 건너편에서도 그 남자의 손등에 새겨진 커다란 파란색 닷 문신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문신만 봐도 바다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군인 특유의 자세와 규정에 맞춘 듯한 구레나룻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해병 출신이라는 점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고 명령을 내리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드는 방식이나 지팡이를 휘두르는 몸짓을 보셨다면 분명 느끼셨을 겁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아주 침착하고 품위 있는 중년 남성이었고요.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그가 상사 출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내가 외쳤다.

“흔한 일이지.”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나의 명백한 놀라움과 감탄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방금 전에는 범죄자 따위는

없다고 말했었지. 내가 틀렸던 모양이야. 이것 좀 보게!” 그는 안내원이 가져온 쪽지를 내 쪽으로 휙 던졌다.

“세상에,” 나는 그것을 훑어보며 외쳤다. “이건 정말 끔찍하군요!”

“보통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것 같군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나에게 소리 내어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그에게 읽어준 편지 내용이다.

“친애하는 설록 홈즈 씨께,—

“브릭스턴 로드 인근, 로리슨 가든 3번지에서 밤사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순찰 중이던 대원이 새벽 2시쯤 그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비어 있는 집이라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습니다. 대원이 가보니 문은 열려 있었고, 가구가 하나도 없는 앞방에서 옷차림이 말끔한 신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의 주머니에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이념 J. 드레버’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 흔적은 없으며, 그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방 안에 혈흔은 남아 있지만, 시신에는 상처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빈집에 들어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사건 전체가 수수께끼 투성이입니다. 열두 시 전이라면 언제든 그 집으로 와 주십시오.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며 현장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in statu quo)’ 보존해 두었습니다. 혹시 오지 못하신다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제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충실한 벗, “토비아스 그렉슨” 올림.

“그렉슨이 스코틀랜드 야드 형사들 중에서는 가장 똑똑해.” 내 친구가 말했다.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는 최악의 무리 중에서도 그나마 나은 축이지. 둘 다 재빠르고 정력적이지만, 지나칠 정도로 관습에 얽매어 있어. 게다가 서로를 견제하는 데도 혈안이 되어 있지. 마치 유명한 미인들이 질투를 다투는 것처럼 말이야. 만약 두 사람 모두 이번 사건의 단서를 잡게 된다면, 아주 불만한 구경거리가 될 거야.”

그가 어찌나 태연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는지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한시가 급한 상황 아닙니까!” 내가 외쳤다. “당장 가서 마차를 불러올까요?”

“갈 수 있을지 모르겠군. 난 세상에서 제일가는 게으름뱅이야.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지독한 게으름뱅이지. 물론 기분만 나쁘면 아주 날렵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말이야.”

“이거 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왔지 않습니까.”

“이보게 친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설령 내가 사건의 전말을 다 밝혀낸다 해도, 그 공은 분명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 그리고 그 일당들이 다 가로챌 걸세. 비공식적인 신분이라는 게 원래 그런 법이니까.”

“하지만 그는 당신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맞아. 그 친구는 내가 자기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알고 있고, 나한테는 그걸 인정하기도 하지. 하지만 제삼자 앞에서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어쨌든 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내 방식대로 직접 풀어낼 테니까. 별다른 수확이 없더라도 그놈들 골탕 먹이는 재미라도 있겠지. 자, 어서 가자고!"

그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더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기력했던 이전의 모습은 간데없고, 활력이 넘치는 기운이 그를 사로잡은 듯했다.

“모자 챙기게.” 그가 말했다.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더 할 일 없으시다면, 좋습니다.” 1분 뒤, 우리는 한숨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는 브릭스톤 로드를 향해 거칠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안개가 자욱하고 구름이 낮게 깔린 아침이었다. 지붕 위로는 황갈색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아래에 깔린 진흙빛 거리의 풍경을 그대로 투영해 놓은 듯했다. 동행한 홈즈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그는 크레모나산 바이올린에 대해, 그리고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아마티의 차이점에 대해 끊임없이 재잘거렸다. 반면 나는 침묵을 지켰다. 우울한 날씨 탓도 있었지만, 우리가 마주한 비극적인 사건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이다.

“지금 당면한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군요.”

홈즈가 음악에 대해 늘어놓던 화려한 담론을 끊으며, 내가 마침내 말을 건넸다.

“아직 단서가 없네.” 그가 대답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이론부터 세우는 건 치명적인 실수야.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든.”

“곧 자료를 받게 될 겁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브릭스틴 로드이고, 제 기억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면 저 건물이 바로 그 집입니다.”

“정말 그렇군. 멈춰요, 마부! 멈추라고!”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서 백 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내려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고, 결국 우리는 남은 길을 걸어서 가야만 했다.

로리슨 가든 3번지는 불길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이 집은 대로에서 약간 뒤로 물러나 자리 잡은 네 채의 건물 중 하나였다. 두 채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나머지 두 채는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집들은 텅 빈 채 쓸쓸한 기운을 내뿜는 세 층의 창문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창문들은 하나같이 멍하고 침울해 보였는데, 그나마 군데군데 붙은 '임대' 표지판만이 흐릿한 유리창 위로 백내장처럼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각 집과 대로 사이에는 병든 식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자라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정원에는 진흙과 자갈을 섞어 만든 듯한 좁고 누런 길이 가로질러 나 있었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주변은 온통 질척거렸다.

정원은 높이 3피트의 벽돌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담장 위에는 나무 난간이 덧대어져 있었다. 건장한 체격의 경찰관 한 명이 이 담장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 주변에는 한 무리의 불량자들이 모여 있었다. 불량자들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금이라도 훑쳐보려는 듯 목을 길게 빼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나는 설록 홈즈가 곧장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사건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시작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태연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그는 보도를 이리저리 느긋하게 거닐었다. 그러고는 땅바닥과 하늘, 맞은편 집들과 울타리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조사를 마친 홈즈는 천천히 길을 따라 걸어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길옆에 띠처럼 늘어선 잔디밭을 따라 눈을 땅에 고정해 채 나아갔다. 그는 두 번 멈춰 섰고, 한 번은 미소를 짓는가 싶더니 만족스러운 듯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다. 젖은 진흙 바닥에는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수시로 드나든 터라, 내 동료가 저 발자국들에서 무엇을 알아내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의 관찰력이 얼마나 비범한지 이미 목격한 터였다. 그러니 그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단서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집 문 앞에 도착하자, 창백한 얼굴에 금발을 가진 키 큰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다. 손에 수첩을 든 그는 우리 쪽으로 급히 달려오더니, 내 동료의 손을 덥석 잡고는 격하게 감정을 쏟아냈다.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신신당부해 두었습니다.”

“그것만 빼고요!” 내 친구가 오솔길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물소 때가 지나갔다 한들 이보다 더 엉망진창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렉슨 경위님, 분명 이렇게 길이 짓밟히도록 내버려두기 전에 이미 나름의 결론을 다 내려두셨겠지요.”

“집 안에서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위가 말을 돌리며 대답했다. “제 동료인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맡겨 두었거든요.”

홈즈가 나를 힐끗 보더니 냉소적인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올렸다.

“당신과 레스트레이드 같은 인물이 현장에 있는데, 제삼자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거요.”

홈즈가 말했다.

그렉슨은 만족스러운 듯 양손을 비볐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참으로 기묘한 사건이군요. 당신이 이런 종류의 사건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마차를 타고 오신 게 아니군요?” 설록 홈즈가 물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레스트레이드 경위도 말인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가서 방을 좀 봅시다.”

그는 맥락도 없는 말을 툭 던지더니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 뒤를 그렉슨이 따랐다. 그렉슨의 얼굴에는 경악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먼지 쌓인 나무 판자가 깔린 짧은 통로가 주방과 가사용 부속실로 이어졌다. 통로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각각 문이 하나씩 있었다. 그중 한쪽 문은 분명 몇 주 동안이나 닫혀 있었던 모양이었다. 다른 쪽 문은 식당으로 연결되었는데, 바로 그곳이 그 기이한 사건이 벌어진 장소였다. 흠즈가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나는 죽음의 흔적이 남긴 특유의 가라앉은 기분을 느끼며 그 뒤를 따랐다.

방은 커다란 사각형 구조였는데, 가구가 하나도 없어서 실제보다 훨씬 더 넓어 보였다. 벽면은 천박한 무늬의 벽지로 꾸며져 있었지만, 곳곳에 곰팡이가 얼룩져 있었다. 여기저기 벽지가 길게 뜯겨져 내려와 그 아래의 누런 회반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문 맞은편에는 화려한 벽난로가 있었고, 그 위로는 가짜 흰 대리석으로 만든 선반이 놓여 있었다. 선반 한쪽 구석에는 붉은색 밀랍 양초의 밀동이 붙어 있었다. 창문은 단 하나뿐이었는데, 너무나 더러워서 들어오는 빛이 흐릿하고 불분명했다. 그 빛은 방 안의 모든 사물에 칙칙한 회색빛을 드리웠고, 방 전체를 뒤덮은 두꺼운 먼지 층은 그 어두운 기운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나중에야 관찰할 수 있었다. 당시 내 시선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움직임 없는 한 남자의 형상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을 뜬 채 변색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남자는 마흔셋이나 마흔네 살 정도로 보였으며, 중간 정도의 체격에 어깨가 벌어져 있었다.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과 짧게 자란 까칠한 수염이 특징이었다. 두꺼운 모직 프록코트와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밝은 색 바지와 깨끗한 칼라, 커프스도 갖추고 있었다. 잘 닦인 깔끔한 실크햇 하나가 그의 곁 바닥에 놓여 있었다. 남자는 두 손을 움켜쥐고 팔을 양옆으로 벌린 채, 다리는 마치 죽기 직전 격렬한 몸부림을 친 듯 서로 뒤엉켜 있었다. 굳어버린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얼굴에서 본 적 없는 증오의 빛마저 느껴졌다. 낮은 이마와 뭉툭한 코, 그리고 툭 튀어나온 턱에 이 사악하고 끔찍한 표정까지 더해지니, 뒤틀린 자세를 한 망자는 마치 유인원처럼 기괴한 모습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다양한 죽음을 목격해 왔지만, 런던 외곽의 주요 도로가 내려다보이는 그 어둡고 지저분한 방에서 마주한 죽음만큼 공포스러운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레스트레이드는 여느 때처럼 마르고 날카로운 눈매를 한 채 문가에서 있었다. 그는 내 동료와 나를 보고 인사를 건넸다.

“이번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경위님.” 그가 말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그 어떤 사건보다도 대단합니다. 저도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단서가 전혀 없단 말입니까?” 그렉슨이 물었다.

“전혀 없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을 거들었다.

셜록 홈즈가 시신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꿇히고 앉아 시신을 유심히 살폈다. "상처가 전혀 없다는 게 확실합니까?" 홈즈가 물었다. 그는 시신 주변에 여기저기 흩뿌려진 수많은 핏자국과 핏방울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분명합니다!” 두 경위가 동시에 외쳤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혈흔은 다른 인물의 것이겠군요. 만약 살인이 저질러진 것이라면, 아마도 범인의 것이겠지요. 이 상황을 보니 1834년 위트레흐트에서 발생한 반 야선 사망 사건이 떠오르는군요. 그렉슨 경위,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직접 찾아보세요. 정말 권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모든 일은 이미 예전에 다 일어났던 일들뿐입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도 민첩한 손가락을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다. 무언가를 더듬고, 누르고, 단추를 풀고, 살피느라 손길이 쉴 틈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눈빛만큼은 내가 앞서 언급했듯 먼 곳을 응시하는 듯 멍한 상태를 유지했다. 조사 과정이 워낙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그가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고 있는지 알아채기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마침내 그는 죽은 이의 입술 냄새를 맡더니, 이어서 그가 신은 에나멜 구두의 밑창을 훑어보았다.

“그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가 물었다.

“우리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제 시신을 영안실로 옮겨도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렉슨 경위는 들것과 인부 네 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경위의 호출에 따라 사람들이 방 안으로 들어갔고, 낮선 이의 시신을 들것에 실어 밖으로 옮겼다. 시신을 들어 올리는 순간, 반지 하나가 쟁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다.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그 반지를 낚아채더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의아한 눈빛으로 반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여자가 여기 왔었어!” 그가 외쳤다. “이건 여자 결혼반지야.”

그는 말을 이어가며 손바닥을 펼쳐 그것을 내밀었다. 우리 모두는 그 주위로 모여들어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무리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평범한 금으로 된 그 반지는 한때 신부의 손가락을 장식했던 것이 분명했다.

“상황이 더 복잡해졌군.” 그렉슨 경위가 말했다. “하늘도 무심하지, 전부터 이미 충분히 복잡했는데 말이야.”

“그것들이 단순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신하나?” 홈즈가 물었다. “그저 뻔히 들여다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의 주머니에서는 무엇을 찾아냈나?”

“여기 전부 모아두었습니다.” 그렉슨 경위가 계단 맨 아래 칸에 놓인 물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런던의 바라드 사에서 만든 97163번 금시계가 있고요. 아주 묵직하고 단단한 금제 알버트 체인도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문양이 새겨진 금반지, 눈 부분에 루비가 박힌 불독 머리 모양의 금제 핀도 발견됐습니다. 러시아 가족으로 만든 명함 지갑 안에는 클리블랜드의 이너 J. 드레버 명함이 들어있는데, 명함 속 이름과 그의 속옷에 표시된 이니셜 E. J. D.가 일치합니다. 지갑은 없지만, 7파운드 13실링 상당의 현금이 흩어져 있었고요. 조지프 스탠거슨의 이름이 속 표지에 적힌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휴대용 판본도 있습니다. 편지는 두 통인데, 하나는 E. J. 드레버 앞으로, 다른 하나는 조지프 스탠거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어디입니까?”

“스트랜드에 있는 아메리칸 익스체인지 앞으로 왔습니다. 찾아갈 때까지 맡겨 두라고 되어 있군요. 두 통 모두 기온 증기선 회사의 편지인데, 리버풀에서 배가 출항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불행한 사내는 뉴욕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스탠거슨, 이 남자에 대해 알아본 것이 있나?”

“즉시 조치했습니다, 경위님.” 그렉슨이 말했다. “모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제 부하 중 한 명을 아메리칸 익스체인지로 보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클리블랜드에 연락은 해 보았나?”

“오늘 아침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질문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저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듣겠다고 말했지요.”

“당신에게 결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세부 사항도 묻지 않았단 말입니까?”

“스탠거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정황은 정말 없는 건가요? 다시 한번 전보를 보내보시겠습니까?”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렉슨이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말했다.

셜록 홈즈는 혼자 픽 웃더니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 우리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앞방에 머물던 레스트레이드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두 손을 비벼대고 있었다.

“그렉슨 씨,” 그가 말했다. “방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벽면을 꼼꼼히 조사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놓쳤을 만한 사실 말입니다.”

그 작은 체구의 남자는 말을 이어가며 눈을 반짝였다. 동료들 상대로 한 수 앞선 수를 두었다는 사실에, 그는 분명 벅차오르는 기쁨을 억누르고 있는 듯했다.

“이리로 와보게.”

그가 방 안으로 서둘러 들어오며 말했다. 끔찍한 시신이 치워진 덕분에 방 안의 공기는 한결 맑아진 느낌이었다.

“자, 거기 서 있게!”

그는 장화에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인 뒤, 벽 가까이 가져다 대었다.

“저것 좀 봐!” 그가 승리감에 도취해 외쳤다.

나는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방의 이쪽 구석에는 커다란 조각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 있었고, 그 자리에는 거친 회반죽이 노란 사각형 모양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 빈 공간 위로, 피처럼 붉은 글씨가 휘갈겨 써져 있었다. 단 한 단어였다.

RACHE.

“자, 이것 좀 보십시오!” 경위가 마치 구경거리를 선보이는 곡예사처럼 외쳤다. “방 안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에 있었던 탓에 다들 그냥 지나쳤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아무도 그곳을 살펴볼 생각을 못 했거든요. 범인이 자신의 피로 직접 써 내려간 겁니다. 벽을 타고 피가 흘러내린 이 얼룩을 보십시오! 이것만 봐도 자살이라는 가설

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구석에 글자를 써놓았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죠.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양초를 보십시오. 사건 당시 이 양초에 불이 켜져 있었다면, 이 구석은 방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아니라 가장 밝은 곳이 되었을 겁니다.”

“그걸 찾아냈다고 해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렉슨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미가 있냐고요? 글썄요, 글을 쓴 사람이 ‘레이첼’이라는 여자 이름을 쓰려다가 미처 다 쓰기도 전에 방해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 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사건이 해결될 때쯤이면,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설록 홈즈 씨, 마음껏 비웃으시지요. 당신이 아무리 영리하고 명석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노련한 사냥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요.”

“정말 미안하게 됐군!” 내 동료가 사과하며 말했다. 방금 전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 그의 웃음 때문에 그 작은 남자의 기분이 상해 버린 모양이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낸 건 분명 자네의 공로네. 자네 말대로, 이 글은 어젯밤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가 쓴 것이 분명해 보이는군. 아직 이 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괜찮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네.”

그는 말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줄자와 커다란 원형 돋보기를 꺼냈다. 이 두 도구를 든 그는 방 안을 소리 없이 분주히 돌아다녔다. 때로는 멈춰 서고, 때로는 무릎을 꿇었으며, 한 번은 아예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었

드리기도 했다. 그는 작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의 존재를 잊은 듯 보였다. 내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감탄사와 신음, 휘파람, 그리고 격려와 희망을 담은 듯한 작은 외침들을 쉴 새 없이 내뱉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잃어버린 냄새를 찾아낼 때까지 덩불 속을 앞뒤로 달리며 흥분 섞인 소리를 내는 혈통 좋은 사냥개 한 마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20분 넘게 조사를 이어갔다. 내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흔적들 사이의 거리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했고, 가끔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벽에 줄자를 갖다 대기도 했다. 한 곳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회색 먼지 더미를 아주 조심스럽게 모아 봉투에 담아 보관했다. 마침내 그는 돋보기를 들고 벽에 적힌 글자를 살피더니, 글자 하나하나를 지극히 세밀하게 훑어 내려갔다. 조사를 마친 그는 만족스러운 듯 줄자와 돋보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천재란 끊임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능력이라고들 하더군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주 형편없는 정의이긴 합니다만, 탐정 업무에는 딱 들어맞는 말이지요.”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는 아마추어 동료가 보여주는 움직임에 꽤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러면서도 약간의 경멸을 담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깨닫기 시작한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바로 설록 홈즈의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조차 모두 명확하고 실질적인 목적을 향해 있다는 사실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다.

“내가 감히 돕겠다고 나서는 건, 이번 사건의 공을 당신에게서 가로채는 일이 될 거야.” 내 친구가 말했다. “지금 당신이 워낙 잘하고 있어서, 누구라도 끼어드는 건 오히려 손해일 정도니까.” 그가 말할 때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 섞여 있었다. “조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면,” 홈즈가 말을 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기꺼이 도와주겠어. 그전에 시신을 발견한 순경을 좀 만나보고 싶군.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줄 수 있겠나?”

레스트레이드는 수첩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존 랜스입니다. 지금은 비번이라, 케닝턴 파크 게이트, 오들리 코트 46번지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홈즈는 그 주소를 받아 적었다.

“자, 가시죠, 박사님.” 홈즈가 말했다. “그를 찾아가 봅시다.”

홈즈는 두 형사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지요. 살인이 일어났고, 범인은 남자입니다. 키는 6피트가 넘었고, 한창 혈기 왕성한 나이였을 겁니다. 키에 비해 발은 작았고, 앞코가 뭉툭하고 거친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죠. 트리치노폴리 시가도 피웠고요. 범인은 피해자를 태운 사륜 마차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마차를 끄는 말은 앞쪽 오른쪽 다리에만 새 편자를 박았고, 나머지 세 개의 편자는 낡은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범인은 혈색이 좋은 얼굴을 가졌을 것이고, 오른손 손톱은 유난히 길었을 겁니다. 이건 아주 단편적인 단서일 뿐이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레스트레이드와 그렉슨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만약 이 사람이 살해당한 것이라면, 대체 어떤 수법으로 죽인 겁니까?” 전자가 물었다.

“독이야.” 셜록 홈즈가 투명스럽게 내뱉고는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그러더니 문턱에서 몸을 돌려 덧붙였다. “레스트레이드 경위, 한 가지만 더 말하지. ‘RACHE’는 독일어로 ‘복수’라는 뜻이라네. 그러니 레이첼 양을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나.”

그는 마치 뒤를 돌아 화살을 쏘는 파르티아 기병처럼 날카로운 일침을 날리고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는 두 경쟁자를 뒤로한 채 유유히 걸어 나갔다.

제1부 제4장 존 랜스의 증언

제4장. 존 랜스의 증언

로리스턴 가 3번지를 나설 때는 오후 한 시였다. 설록 홈즈는 나를 데리고 가장 가까운 전신국으로 향하더니, 그곳에서 긴 전보를 한 통 보냈다. 그러고는 마차를 불러 세운 뒤, 레스트레이드가 알려준 주소로 가라고 기사에게 명령했다.

“직접 확인한 증거만큼 확실한 건 없지요.” 그가 말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그래도 알아야 할 정보라면 전부 파악해 두는 게 좋겠지요.”

“홈즈, 정말 놀랍군요.” 내가 말했다. “방금 말한 그 세세한 정보들을, 설마 당신이 주장하는 것만큼 확신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실수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마차가 연석에 바짝 붙어 바퀴 자국을 두 줄 남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

았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깊게 패인 바퀴 자국은 밤사이에 남겨진 것이 분명합니다. 말발굽 자국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나머지 세 개보다 훨씬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건 말굽에 새로 박은 편자가 찍힌 자국이었죠. 마차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뒤에 왔고, 오전 중에는 결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건 그렉슨 경위도 확인해 준 사실입니다. 결국 마차는 밤사이에 그곳에 머물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마차가 그 두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준 셈이죠.”

“그건 충분히 간단해 보이는군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다른 남자의 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열에 아홉은 보폭의 길이만 봐도 사람의 키를 알 수 있지요. 아주 간단한 계산이라 수치까지 일일이 나열하며 지루하게 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자가 남긴 보폭을 건물 밖 진흙 위와 건물 안 먼지 위에서 각각 측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있었죠. 사람이 벽에 글을 쓸 때는 본능적으로 자기 눈높이에 맞춰 쓰게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그 글자는 지면에서 6피트가 조금 넘는 높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식은 죽 먹기였죠.”

“나이는요?” 내가 물었다.

“글쎄요, 어떤 사람이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네 자 반이나 되는 거리를 성큼성큼 건널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아주 기력이 다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네 자 반이라는 거리는 그가 분명 가로질러 걸어간 정원 산책로 웅덩이의 너비였거든요. 광택이 나는 가죽 장화를 신은 사람은 웅덩이를 빙 돌아갔고, 앞코가 네모난 구두를 신은 사람은 꺾충 뛰어넘

있더군요. 이건 전혀 미스터리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기고했던 그 글에서 주장했던 관찰과 추론의 원칙들을 평범한 일상에 적용해본 것뿐이니까요. 자, 또 무엇이 당신을 당혹스럽게 만듭니까?”

“손톱과 트리치노폴리 시가네요?” 내가 제안했다.

“벽에 쓰인 글자는 사람의 검지에 피를 묻혀 쓴 것이었습니다. 돋보기로 살펴보니 글자를 쓰는 과정에서 회반죽이 약간 굵힌 흔적이 있더군요. 만약 그 사람이 손톱을 짧게 깎은 상태였다면 결코 생기지 않았을 흔적입니다. 바닥에 흩어진 재도 좀 모아 보았습니다. 색이 어둡고 조각조각 부서지는 형태였는데, 이는 트리치노폴리 시가에서만 나오는 재였습니다. 저는 시가 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사실 이 주제로 논문까지 썼습니다. 덕분에 시가든 담배든 어떤 브랜드의 재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숙련된 탐정이 그렉슨이나 레스트레이드 같은 부류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바로 이런 세밀한 부분입니다.”

“그 혈색 좋은 얼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 방금 건 꽤 대담한 시도였군요. 하지만 제 판단이 옳았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그 질문에 답해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나는 이마를 손으로 짚었다. “머리가 어지럽군요.” 내가 말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미스터리만 더 깊어집니다. 만약 두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빈집에 들어간 걸까요? 그들을 태워다 준 마차 기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독약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피는 또 어디서 난 것이고요? 강도질을 한 흔적도 없는 데, 살인자의 목적은 무엇이였을까요? 그 여자의 반지는 왜 거기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두 번째 남자는 왜 도망치기 직전에 독일어 단어인 RACHE를 써놓은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동료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상황의 난점들을 아주 명쾌하고 적절하게 요약하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주요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많습니다. 가없는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함정이었습니다. 사회주의나 비밀 결사를 암시해서 경찰을 엉뚱한 길로 유인하려 했던 것이죠. 독일인이 한 짓이 아닙니다. 눈치채셨겠지만, ‘A’라는 글자가 독일식으로 인쇄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진짜 독일인이 라면 예외 없이 라틴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글은 독일인이 쓴 게 아니라, 독일인 흉내를 내려고 과하게 애를 쓴 서투른 모방자가 쓴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방향을 잘못된 곳으로 돌리려 했던 속임수에 불과했지요. 왓슨 박사,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술사가 트릭을 설명하고 나면 더 이상 대접을 받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만약 제가 일하는 방식을 너무 많이 보여드린다면, 결국 저도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테니까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당신은 탐정 업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과학의 경지로 끌어올려 놓았으니까요.”

내 말이 끝나자 동행인은 기쁨으로 얼굴을 붉혔다. 내가 진심을 담아 말했기 때문이리라. 나는 이미 그가 자신의 기술에 대한 찬사에 얼마나 민감한지 눈치채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미모에 대한 칭찬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녀와도 같았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그가 말했다. “광택 나는 가죽 구두를 신은 자와 앞코가 네모난 구두를 신은 자는 같은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한 사이처럼 나란히 산책로를 따라 걸어 들어왔어요. 아마 팔짱까지 끼고 있었을 겁니다. 안으로 들어간 뒤에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걸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네모난 구두를 신은 자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광택 나는 가죽 구두를 신은 자는 가만히 서 있었던 거죠. 먼지 위에 남은 흔적을 보니 그 모든 게 보였습니다. 또한 네모난 구두를 신은 자가 걸을수록 점점 더 흥분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폭이 점점 넓어지는 걸 보니 확실하더군요. 그는 걷는 내내 말을 하며 스스로를 분노로 몰아넣었을 겁니다. 그러다 비극이 일어난 것이고요.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추측과 짐작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서둘러야겠군요. 오늘 오후에 할레의 음악회에 가서 노먼 네루다의 공연을 듣고 싶거든요.”

마차는 어둡고 침침한 거리와 쓸쓸한 골목길을 굽이굽이 지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황량한 골목에 들어섰을 때, 마부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다.

"저기 보이는 칙칙한 벽돌 건물 사이 좁은 틈이 오들리 코트입니다."

마부가 좁은 길목을 가리키며 말했다.

"돌아오실 때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들리 코트는 결코 매력적인 동네가 아니었다.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니 돌판이 깔린 안뜰이 나타났고, 그 주변으로는 지저분한 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우리는 때 묻은 아이들 무리와 색이 바랜 빨랫감들 사이를 헤치며 나아갔다. 마침내 도착한 46번지 집 문에는 '랜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황동 명판이 붙어 있었다. 확인해 보니 순경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작은 앞방으로 안내받았다.

잠시 후 그가 나타났다. 잠을 깨워 방해받은 것이 못마땅한 듯 다소 짜증 섞인 얼굴이었다. 그는 "사무실에 보고는 이미 마쳤네"라고 말했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반 소버린 동전 하나를 꺼내더니, 생각에 잠긴 듯 만지작거렸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당신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군요." 홈즈가 말했다.

“제가 아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경은 작은 금빛 원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사건이 일어난 그대로, 당신의 방식대로 전부 들려주세요.”

랜스는 말총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고는 마치 이야기에서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처음부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11시쯤 ‘화이트 하트’에서 싸움이 한바탕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면 순찰 구역은 꽤 조용했습니다. 1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홀랜드 그로브 구역을 담당하는 해리 머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헨리에타가 모퉁이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 2시쯤, 혹은 그보다 조금 뒤였을 겁니다. 브릭스톤 로드 쪽은 별일 없는지 한 번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은 무척이나 지저분하고 쓸쓸했습니다. 마차 한두 대가 지나가긴 했지만, 가는 내내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창 길을 걷던 중이었죠. 속으로 ‘따뜻한 진 한 잔 마시면 딱 좋겠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집 창문에서 번뜩이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로리스턴 가든스에 있는 그 집 두 채는 비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놈이 하수도 수리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바람에 말입니다. 게다가 그중 한 집에 살던 마지막 세입자는 장티푸스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창문에 불이 켜진 걸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죠. 제가 문 앞까지 갔을 때——”

“당신은 걸음을 멈추더니, 다시 정원 문 쪽으로 걸어갔지.” 동행인이 말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대체 왜 그랬던 건가?”

랜스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움찔하더니, 경악에 찬 눈으로 설록 흠즈를 뺨히 바라보았다.

“아이고, 정말 그렇군요, 선생님.”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는 하늘만이 아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문 앞까지 갔을 때 주변이 너무나 고요하고 쓸쓸해서,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승의 산 것이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만, 혹시 장티푸스로 죽은 그 사람이 자기를 죽게 만든 그 하수도를 점검하러 유령이 되어 나타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서, 머처의 랜턴 불빛이라도 보이나 싶어 대문까지 다시 걸어갔지만, 그 사람도 다른 누구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시다.”

“거리에 아무도 없었던 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커녕 개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시다, 선생님.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돌아가 문을 밀어 열었지요. 안은 온통 고요했습니다. 저는 불이 켜져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시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붉은색 양초 하나가 가물거리고 있었는데, 그 불빛에 비친 모습은…….”

“네, 당신이 본 건 전부 알고 있습니다. 방 안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죠. 시신 곁에 무릎을 꿇히고 앉아 보시더니, 다시 방을 가로질러 주방 쪽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셨고, 그러고 나서——”

존 랜스는 겁에 질린 얼굴로, 눈에는 의구심을 가득 담은 채 벌떡 일어났다. “그걸 다 지켜보려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요?” 그가 외쳤다. “당신, 알고 있는 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 같군.”

홈즈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테이블 너머로 순경에게 명함을 던졌다.

“나를 살인범으로 체포하려 들지 마시오.” 홈즈가 말했다. “나는 사냥개 중 하나이지, 늑대가 아니니까. 그 일은 그렉슨 씨나 레스트레이드 씨가 책임질 거요. 어쨌든 계속해 보시오. 그다음엔 무엇을 했소?”

랜스는 여전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은 채 자리에 다시 앉았다. “나는 다시 정문으로 돌아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머처와 다른 두 사람이 그곳으로 달려왔지요.”

“그때 거리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글쎄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치자면야 비어 있었습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순경의 얼굴에 너털웃음이 번졌다. “살다 살다 술 취한 놈은 많이도 봤지만,” 그가 말했다. “저 친구처럼 울면서 취해 있는 놈은 생전 처음 봅니다.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놈은 대문 난간에 몸을 기대고 서 있

었는데, 아주 목청이 터져라 ‘콜럼바인의 신식 깃발’인지 뭔지 하는 노래를 불러대더군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판에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설록 홈즈가 물었다.

존 랜스는 이야기가 옆길로 새자 다소 짜증이 난 듯 보였다. “그놈은 아주 지독한 술꾼이었어요.” 그가 말했다. “우리가 다른 일로 정신이 없지만 않았어도, 그놈은 유치장 신세를 졌을 겁니다.”

“그의 얼굴과 옷차림 말입니다. 전혀 눈여겨보지 않으셨습니까?” 홈즈가 참지 못하고 말을 가로챘다.

“분명히 봤을 겁니다. 머처와 내가 양옆에서 그를 부축해야 했으니까요. 키가 꽤 큰 사내였는데, 얼굴은 붉고 얼굴 아래쪽은 무언가로 감싸고 있었…….”

“그거면 됐어.” 홈즈가 외쳤다. “그는 어떻게 됐지?”

“그놈 뒤치다꺼리할 여유 따윈 없단 말입니다.” 경찰관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집에는 알아서 잘 찾아갔을 겁니다.”

“그는 어떤 옷차림이었습니까?”

“갈색 오버코트군요.”

“그의 손에 채찍이 들려 있었습니까?”

“채찍인가요? 아니, 아니군요.”

“분명히 두고 갔을 거야.” 동행인이 중얼거렸다. “그 뒤로 혹시 지나가는 마차를 보거나 소리를 듣지는 못했나?”

“아니오.”

“여기 수고비로 반 소버린을 주겠네.” 동료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집어 들며 말했다. “랜스, 자네는 경찰 내에서 절대 승진하지 못할 것 같군. 자네 머리는 장식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데 써야 할 거야. 어젯밤에 자네가 했더라면 경사 계급장을 달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자네가 붙잡고 있던 그 남자가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인 단서를 줬 사람이라네. 지금 와서 따져봐야 소용없어. 분명히 그렇다는 말일세. 가세나, 왓슨 박사.”

우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분명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정보원을 뒤로한 채 함께 마차를 타러 나섰다.

“멍청하기 짝이 없는 자군.”

우리가 숙소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흠즈가 쓰라린 듯 내뱉었다.

“그토록 비교할 데 없는 천운을 잡고도, 그것을 이용할 줄 모르다니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는군.”

“아직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그 남자의 인상착의가 당신이 생각하는 이 사건의 두 번째 인물과 일치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그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걸까요? 범죄자라면 보통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반지를 말아야, 그 반지를 잡으러 다시 돌아온 거라고! 만약 그를 잡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언제든지 그 반지를 미끼로 던져두면 돼. 반드시 잡고 말겠어, 왓슨 박사. 내가 그를 잡는다는 데 2대 1로 내기를 걸지. 이 모든 건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가지 못했을 테고, 내 생애 가장 멋진 연구를 놓쳤을 테니까. 주홍색 연구라, 어떤가? 전문 용어를 좀 섞어 쓰는 게 뭐 어때서. 무색무취한 삶의 실타래 사이로 살인의 주홍색 실이 흐르고 있고, 우리의 임무는 그 실을 풀어내어 하나하나 분리하고 낱알이 밝혀내는 것이니까. 자, 이제 점심이나 먹으러 가세. 그다음엔 노먼 네루다의 연주를 들어야겠어. 그녀의 타건과 활 쓰기는 정말 일품이지. 그녀가 그토록 훌륭하게 연주하는 쇼팽의 그 짧은 곡이 뭐였더라? 트랄랄라 리라 리라 레이.”

마차 좌석에 몸을 기댄 채, 이 아마추어 추적견은 마치 종다리처럼 쾌활하게 노래를 불러댔다. 나는 그 사이 인간 정신의 다면성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제1부 제5장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방문객

제5장.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방문객

오전 내내 무리하게 움직인 탓에 약해진 몸이 버티질 못했다. 오후가 되자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렸다. 홈즈가 음악회를 보러 떠난 뒤, 나는 소파에 누워 두어 시간이라도 눈을 붙여보려 애썼다. 하지만 소용없는 시도였다. 그동안 벌어진 일들로 인해 머릿속이 너무나 어지러웠고, 온갖 기묘한 상상과 추측이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살해된 남자의 뒤틀린 얼굴이 떠올랐다. 마치 유인원처럼 흉측한 그 얼굴 말이다. 그 얼굴이 남긴 인상이 너무나 불길해서, 나는 그 얼굴의 주인을 세상에서 없애버린 이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들 정도였다. 만약 인간의 이목구비가 악랄한 죄악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클리블랜드 출신의 이녀 J. 드레버가 바로 그 주인공일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었다 한들, 그것이 법의 심판을 피할 구실이 될 수는 없었기에.

생각하면 할수록 동료의 가설은 더욱 기이하게 느껴졌다. 그 남자가 독살당했다는 가설 말이다. 나는 홈즈가 입술 근처의 냄새를 맡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감지했고, 그 덕분에 그런 생각을 떠올렸을 것이라 확신했다. 설령 독이 아니라 해도, 상처도 없고 목을 졸린 흔적도 없는데 대체 무엇이 그를 죽게 만들었던 말인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바닥에 이토록 흥건하게 쏟아진 피는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고,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입혔을 법한 무기도 보이지 않았다. 이 모든 의문이 풀리지 않는 한, 홈즈와 나중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았다. 홈즈는 차분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가 이미 모든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세웠음을 내게 확신시켜 주었다. 다만 그 이론이 무엇인지 는 단 한 순간도 짐작할 수 없었을 뿐이다.

그는 돌아오는 것이 무척이나 늦었다. 공연이 그를 그토록 오래 붙잡아 두었을 리 없다는 사실을 직감할 만큼 늦은 시간이었다. 그가 나타나기 전, 이미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정말 장엄했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다윈이 음악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음악을 만들어내고 감상하는 능력은 인류에게 언어 능력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고 그는 주장했지.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음악에 이토록 미묘한 영향을 받는 것일지도 모르네. 세상이 태동하던 그 안개 낀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 우리 영혼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일 테니까.”

“그건 너무 막연한 생각 아닙니까?” 내가 말했다.

“자연을 해석하려면, 인간의 사고 또한 자연만큼이나 넓어야 하네.”
그가 대답했다. “무슨 일인가? 안색이 평소와 다르군. 브릭스톤 로드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한 모양이지?”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면, 저는 좀 더 대답해줬어야 했습니다. 마이완드 전투에서 전우들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도 저는 전혀 기가 죽지 않았으니까요.”

“이해합니다. 이 사건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스터리가 담겨 있지요. 상상력이 없다면 공포도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혹시 오늘 저녁 신문 보셨습니까?”

“아니오.”

“사건에 대해 꽤 상세히 설명하고 있군. 하지만 그 남자를 들어 올렸을 때 여자의 결혼반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어. 차라리 언급되지 않은 게 다행이야.”

“어째서입니까?”

“이 광고를 보게.” 그가 대답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오늘 아침 모든 신문사에 광고를 보내 놓았네.”

그가 신문을 내 쪽으로 휙 던졌고, 나는 그가 가리킨 곳을 훑어보았다. '습득물'란의 첫 번째 공고였다.

"오늘 아침 브릭스턴 로드에서 발견함. '화이트 하트' 선물집과 홀랜드 그로브 사이 도로 위에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금색 결혼반지를 습득함. 오늘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베이커가 221B에 있는 왓슨 박사에게 연락 바람."

"실례지만 성함을 좀 빌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 이름을 대면 저 멍청이들 중 몇몇이 알아채고는 이 일에 참견하려 들 테니까요."

"괜찮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찾아오면 어찌죠? 제게는 반지가 없는데요."

"아니요,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내게 반지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면 충분할 겁니다. 거의 똑같은 복제품이거든요."

"이 광고를 보고 누가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갈색 코트를 입은 남자 말입니다. 구두코가 네모나고 얼굴이 불그스름한 그 친구요. 본인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공범을 보낼 겁니다."

"그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 판단이 맞다면, 아니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합니다만, 이 남자는 반지를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어떤 위협이라도 감수할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드레버의 시신 위로 몸을 굽히다가 반지를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겠지요. 집을 나선 뒤에야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히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

만 촛불을 켜둔 채 집을 나선 본인의 실수 때문에, 이미 경찰이 현장을 장악한 상태였을 테지요. 그래서 대문 앞에 나타났을 때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일부러 술에 취한 척을 해야 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남자의 처지가 되어 보십시오. 상황을 되짚어 보다 보면, 집을 나선 뒤 길 위에서 반지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 기사를 통해 반지를 찾았다는 소식이 있는지 저녁 신문을 필사적으로 뒤지겠지요. 그러다 당연히 이 기사를 발견할 겁니다. 그는 무척 기뻐하겠지요. 그런데 왜 함정이라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반지를 찾은 것이 살인 사건과 연관되어 보일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는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한 시간 안에 그를 보게 될 겁니다.”

“그다음은요?” 내가 물었다.

“오, 그럼 그자는 나에게 맡겨 두게. 혹시 무기는 가지고 있나?”

“예전에 쓰던 서비스 리볼버와 탄약 몇 발이 있습니다.”

“총을 깨끗이 닦아서 장전해 두는 게 좋겠네. 그자는 필사적으로 달려들 테니까. 내가 허를 찌르긴 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준비를 갖춰 두는 편이 나을 거야.”

나는 침실로 가서 그의 조연대로 행동했다. 권총을 챙겨 돌아왔을 때 식탁 위는 이미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흠즈는 자신이 가장 즐기는 일인 바이올린 켜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내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가 말했다. “사건이 점점 흥미진진해지
는군. 방금 미국에서 보낸 전보에 대한 답신을 받았네. 내 판단이 옳았
어.”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물었다.

“바이올린 줄을 새로 갈아야겠군.” 홈즈가 말했다. “권총은 주머니
에 넣어두게. 그자가 나타나면 평범하게 말을 걸어보라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그자를 겁주지는 말고.”

“벌써 여덟 시군.” 나는 시계를 슬쩍 확인하며 말했다.

“네. 아마 몇 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열쇠는 안쪽에 두시고요. 감사합니다! 이걸 어제 노점
에서 구한 아주 묘한 고서입니다. 제목은 ‘데 유레 인테르 겐테스(De
Jure inter Gentes)’인데, 1642년 저지대 국가의 리에주에서 라틴어
로 출판된 책이죠. 이 갈색 표지의 작은 책이 인쇄될 당시에 도 찰스 국
왕의 머리는 여전히 어깨 위에 굳건히 붙어 있었습니다.”

“인쇄업자가 누구입니까?”

“필리프 드 크루이, 그가 누구였든 간에 말입니다. 책의 면지에는 아
주 흐릿한 잉크로 ‘윌리엄 화이트의 장서’라고 적혀 있군요. 윌리엄 화
이트가 누구였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마 17세기의 실무적인 변호사였
겠지요. 글씨체에서 법률가 특유의 딱딱한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아,
이제 우리 손님이 오나 보군요.”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설록 홈즈는 조용히 일어나 의자를 문 쪽으로 끌어당겼다. 복도를 지나가는 하인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문을 여는 날카로운 걸쇠 소리가 울려 퍼졌다.

“왓슨 박사가 여기 사나?”

밖으면서도 다소 거친 목소리가 물었다. 하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내 문이 닫히더니 누군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불분명하고 질질 끄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동행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발소리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다가오더니, 이윽고 문을 힘없이 똑똑 두드렸다.

“들어오게!” 내가 외쳤다.

내가 부르자, 우리가 예상했던 폭력적인 사내 대신 아주 높고 주름진 노파가 방 안으로 절뚝거리며 들어왔다. 노파는 갑자기 밝아진 불빛에 눈이 부신 듯했다. 노파는 짧게 인사를 건넌 뒤, 흐릿한 눈을 깜빡이며 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초조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머니 안을 더듬거렸다. 나는 동료를 슬쩍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 낙담한 기색이 역력해서, 나 역시 표정 관리를 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높은 노파는 저녁 신문을 꺼내더니 우리가 낸 광고를 가리켰다. "선생님들,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게 바로 이 광고예요." 노파는 다시 한번 꾸벅 절을 하며 말했다. "브릭스톤 로드에서 금 결혼반지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지요. 그 반지는 제 딸 샬리의 것이랍니다. 딱 일 년 전에

결혼했거든요. 사위는 유니언 선사의 배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데, 만약 집에 돌아왔을 때 반지가 없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지 상상조차 안가요. 평소에도 성미가 아주 급한 사람인데, 술이라도 마신 날에는 오죽하겠어요? 괜찮으시다면 말씀드리자면, 어젯밤에 딸아이가 ——와 함께 서커스장에 갔다가..."

“저게 그 여자의 반지인가요?” 내가 물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파가 외쳤다. “오늘 밤이면 썰리도 정말 기뻐하겠군요. 바로 그 반지예요.”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연필을 집어 들며 물었다.

“하운즈디치, 던컨가 13번지. 여기서 가려면 꽤 멀겠군.”

“브릭스톤 로드는 서커스 광장과 하운즈디치 사이를 지나지 않습니다.” 설록 홈즈가 날카롭게 말했다.

노파는 몸을 돌려 붉게 충혈된 작은 눈으로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 신사분이 *내* 주소를 물어보더군.” 노파가 말했다. “썰리는 페컴, 메이필드 플레이스 3번지 하숙집에 살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 이름은 소여입니다. 그 여자 이름은 데니스인데, 톰 데니스와 결혼했지요. 그 친구는 바다에 나가 있을 때만큼은 아주 영리하고 깔끔한

청년이라 선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육지에 올라 오기만 하면, 여자 문제에 술집 문제까지 겹쳐서…….”

“여기 반지가 있습니다, 소여 부인.” 동행한 이의 신호에 따라 내가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이건 분명 부인 따님의 것이군요.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노파는 중얼거리며 축복을 빌고 연신 감사를 표하더니, 물건을 주머니에 챙겨 넣고는 계단을 내려갔다. 노파가 사라지자마자 설록 홈즈는 별떡 일어나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울스터 코트와 크라바트를 갖춰 입고 돌아온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 여자를 뒤쫓겠습니다. 분명 공범일 겁니다. 그 여자를 따라가면 그놈에게 닿을 수 있어요. 기다려 주십시오.”

방문객이 떠나며 현관문이 쿵 닫히기가 무섭게 홈즈도 계단을 내려갔다. 창밖을 내다보니 노파는 건너편 길을 따라 힘없이 걷고 있었고, 추격자인 홈즈는 그 뒤를 어느 정도 거리까지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다.

‘홈즈의 가설이 완전히 틀렸거나, 아니면 이제 막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서려나 보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홈즈가 나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할 필요는 없었다. 이번 모험의 결과를 듣기 전까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집을 나선 것은 거의 9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그가 언제 돌아올지는 알 길이 없었기에, 나는 묵묵히 파이프 담배를 피워 물고 앙리 뮈르제의 『보헤미안 생활』을 대강 훑어보며 시간을 보냈다. 10시가 지나자 하녀가 잠자리에 들러 바빠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11시가 되었을 때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잠을 자러 가는 듯, 문 앞을 지나가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그가 문을 여는 날카로운 열쇠 소리가 들렸다. 그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의 표정에는 즐거움과 분함이 뒤섞여 싸우는 듯하더니, 이내 즐거움이 승기를 잡았는지 그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스코틀랜드 야드 녀석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해서는 절대 안 되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외쳤다. “그동안 내가 워낙 그들을 놀려댔으니, 알게 되는 날엔 죽을 때까지 나를 들볶을 게 뻔하거든. 하지만 난 웃어넘길 수 있네. 결국에는 내가 그들에게 되갚아 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말이야.”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아, 제 잘못을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해서 꺼려할 건 없습니다. 그 여자는 조금 걷더니 발이 아픈지 절뚝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이내 걸음을 멈추고 지나가던 사륜 마차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에 바짝 붙어서 주소를 들으려 애썼지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긴장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길 건너편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거든요. “턴컨가 13번지, 하운즈디치로 가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야 상황이 진짜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마차에 안전하게 올라타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마차 뒤쪽에 올라타 매달렸습니다. 이건 모든 형사가 반드시 익혀야 할 기술이죠. 마차는 덜컹거리며 달렸고, 목적지인 그 거리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차 문 앞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내려서, 마치 한가롭게 거리를 거니는 사람처럼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곧이어 마차가 멈춰 서는 게 보였습니다. 마부가 마차에서 뛰어내리더니, 문을 열고 무언가를 기다리듯 서 있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내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부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빈 마차 안을 미친 듯이 뒤지며 제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승객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손님을 다시 만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더군요. 13번지 집을 수소문해 보니, 그 집은 케이스워이라는 이름의 점잖은 벽지 기술자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소녀나 데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설마 그 말씀은 아니시겠지요!” 나는 경악하며 외쳤다. “그렇게 비틀거리고 기운 없는 노파가, 당신이나 마부 눈에 띄지도 않고 달리는 마차에서 내렸다는 말씀입니까?”

“늙은 여자라니, 제기랄!” 설록 홈즈가 날카롭게 내뱉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간 우리가 바로 늙은 여자나 다름없군. 범인은 분명 젊은 남자였을 거야. 게다가 아주 기민하고, 연기력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놈이었지. 변장술도 정말 독보적이었어. 분명 누군가 뒤를

쫓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나를 따돌리려고 이런 수법을 쓴 게 틀림없어. 이걸 보니 우리가 쫓는 그놈이 내 생각만큼 외톨이는 아니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도와줄 친구들이 있는 모양이야. 자, 왓슨 박사, 자네 안색이 아주 안 좋아 보이네. 내 말 듣고 어서 들어가서 쉬게나.”

나는 분명 몹시 지쳐 있었기에 그의 권유를 따랐다. 홈즈를 타오르다 남은 불꽃 앞에 앉혀둔 채 방을 나왔다. 밤이 깊어가는 내내 낮게 깔리는 그의 바이올린 소리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홈즈가 스스로 풀어내기로 결심한 그 기이한 수수께끼를 여전히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1부 제6장 토비아스 그렉슨의 활약

제6장. 그렉슨 경위의 수사 능력.

다음 날 신문들은 이 사건을 이른바 ‘브릭스턴의 미스터리’라 부르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신문마다 사건에 대한 상세한 경위가 실렸고, 어떤 신문은 그 위에 사설까지 덧붙였다. 그 기사들 중에는 내게 처음 알려진 정보도 꽤 있었다. 나는 지금도 스크랩북에 이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기사 조각과 발췌문을 간직하고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지는 범죄의 역사에서 이토록 기이한 양상을 띤 비극은 드물었다고 논평했다. 피해자의 독일식 이름, 다른 범행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벽에 남겨진 불길한 문구까지. 이 모든 정황은 정치 망명객이나 혁명주의자들이 저지른 범죄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회주의 세력은 미국 내에 수많은 분파를 두고 있었으니, 고인이 그들의 불문율을 어기는 바람에 끝내 추적당해 죽음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기사는 페임게리히트, 아쿠아 토파나, 카르

보나리, 브랭빌리에 후작 부인, 다윈의 진화론, 맬서스의 원리, 그리고 랫클리프 하이웨이 살인 사건 등을 가볍게 언급한 뒤, 정부에 경각심을 촉구하며 영국 내 외국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끝을 맺었다.

《스탠더드》지는 이번 사건과 같은 무법천지의 만행이 대개 자유당 정부 하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중의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모든 권위가 약화된 결과라는 것이다. 사망자는 런던에 몇 주간 머물고 있던 미국인 신사였다. 그는 캠버웰의 토키 테라스에 있는 샤프르티에 부인의 하숙집에 머물고 있었다. 여행길에는 개인 비서인 조지프 스탠거슨 씨가 동행했다. 두 사람은 이번 달 4일 화요일, 하숙집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리버풀행 급행열차를 타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유스턴 역으로 떠났다. 이후 두 사람이 승강장에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넉 드레버 씨의 시신이 유스턴에서 수 마일 떨어진 브릭스톤 로드의 빈집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두 사람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더 없다. 드레버 씨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스탠거슨 씨의 행방 또한 알려지지 않았다. 스코틀랜드 야드의 레스트레이드 경위와 그렉슨 경위가 모두 이 사건을 맡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명성 높은 두 경위가 조속히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데일리 뉴스》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 범죄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도했다. 유럽 대륙 정부들의 전제 정치와 자유주의에 대한 증오가 결국 이들을 우리 해안으로 몰아넣은 셈이다. 만약 이들이

겪어온 고난의 기억 때문에 마음이 뒤틀리지만 앓았더라면, 훌륭한 시민이 되었을 이들이 수없이 많았다. 이들 사이에는 엄격한 명예 규율이 존재했으며, 이를 조금이라도 어길 시에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제 서기인 스탠거슨을 찾아내고, 사망자의 생활 습관에 관한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망자가 머물렀던 숙소의 주소를 알아낸 것은 커다란 진전이었다. 이는 전적으로 스코틀랜드 야드의 그렉슨 경위가 보여준 예리한 통찰력과 열정 덕분에 얻어낸 결과였다.

셜록 홈즈와 나는 아침 식사를 하며 이 공고문들을 함께 읽었다. 홈즈는 그 내용이 꽤나 즐거운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레스트레이드와 그렉슨이 공을 세우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지.”

“오,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범인이 잡힌다면 그건 경찰이 애쓴 덕분이겠지만, 만약 도망친다 해도 그건 경찰이 애쓴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기든 지든 결과는 정해져 있는 셈이지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추종자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언제나 자신을 우러러보는 더 어리석은 자를 찾아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외쳤다. 그 순간 복도와 계단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집주인 아주머니의 불쾌한 목소리도 함께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베이커가 소속의 탐정 경찰단이라네.”

동행한 그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지저분하고 누더기를 걸친 거리의 아이들 대여섯 명이 방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집중해!”

홈즈가 날카롭게 외쳤다. 그러자 지저분한 꼬마 악동 여섯 명은 마치 불량한 조각상들처럼 나란히 줄을 섰다.

“앞으로는 위킨스 혼자만 올라와서 보고하도록 해라. 나머지는 모두 거리에서 기다리고. 위킨스, 찾아냈느냐?”

“아니요, 아저씨. 아직 못 찾았어요.” 아이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럴 거라고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네. 하지만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계속해야만 해. 여기 수고비라네.” 그는 두 사람에게 각각 1실링씩 건네주었다.

“자, 이제 그만 가보게. 다음번에는 좀 더 제대로 된 보고를 들고 오게나.”

그가 손을 휘두르자, 그들은 마치 쥐 떼처럼 아래층으로 허겁지겁 달아났다. 곧이어 거리에서 그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런 어린 녀석들 중 하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경찰 수십 명에게서 얻는 것보다 훨씬 많다네.” 홈즈가 말했다. “공무원처럼 보이는 사람만 나타나도 사람들은 입을 꼭 다물어 버리지. 하지만 이 아이들은 어디든 드나들며 모든 것을 듣는다네. 게다가 바늘처럼 날카롭기까지 하지. 그저 체계적인 조직만 갖추진다면 말이야.”

“그럼 지금 그들을 고용한 게 이 브릭스턴 사건 때문인가요?” 내가 물었다.

“네, 확인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제 시간 문제일 뿐이죠. 오, 저기 보세요! 이제 아주 대단한 소식을 듣게 되겠군요! 그렉슨 경위가 오고 있습니다. 얼굴 가득 희열이 넘쳐흐르는 걸 보니 분명 우리 쪽으로 오는 게 분명합니다. 네, 멈춰 서는군요. 저기 왔습니다!”

벨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몇 초 지나지 않아 금발의 탐정이 계단을 세 칸씩 성큼성큼 뛰어 올라왔다. 그러고는 곧장 우리 거실로 들이닥쳤다.

“이보게, 친구!” 그는 홈즈의 반응 없는 손을 짝 움켜쥐며 외쳤다. “축하해주게! 이제 모든 것이 대낮처럼 명백해졌네.”

동행한 이의 표정 풍부한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치는 것을 나는 느꼈다.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다는 뜻인가요?” 그가 물었다.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선생님, 범인은 이미 우리가 잡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왕 폐하의 해군 소위, 아서 샤르팡티에!” 그렉슨이 거드름을 피우며 외쳤다. 그는 기름진 손을 문지르며 가슴을 한껏 부풀렸다.

셜록 홈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긴장을 풀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이 시가도 하나 피워 보시고요.” 그가 말했다. “어떻게 그 일을 해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위스키에 물을 좀 타서 드릴까요?”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탐정이 대답했다. “지난 하루 이틀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더니 완전히 녹초가 되었군요. 몸을 움직여서 라기보다, 정신적인 압박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셜록 홈즈 씨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둘 다 머리를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과찬이십니다.” 홈즈가 엄숙하게 말했다. “어떻게 이런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탐정은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앉아, 만족스러운 듯 시가 연기를 내뿜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언가 아주 즐겁다는 듯 허벅지를 탁 쳤다.

“재미있는 건 말이야.” 그가 외쳤다. “스스로 아주 똑똑하다고 믿는 저 바보 레스트레이드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지. 그는 비서인 스탠거슨을 쫓고 있어. 하지만 스탠거슨은 이번 범죄와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만큼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마 레스트레이드는 지금쯤 그를 붙잡았을지도 모르겠군.”

그 생각에 그렉슨은 너무도 웃음이 터져 나와, 숨이 막힐 때까지 웃어댔다.

“그 단서는 어떻게 찾아내셨습니까?”

“아, 전부 다 말씀드리죠. 물론 왓슨 박사님,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린 난관은 이 미국인의 과거를 알아내는 일이었죠. 보통 사람 같으면 광고에 응답이 오거나, 누군가 나타나 자진해서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토비아스 그렉슨 경위는 일하는 방식부터가 다르거든요. 죽은 이 옆에 놓여 있던 모자,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캠버웰 로드 129번지에 있는 존 언더우드와 아들네 가게 제품입니다.”

그렉슨의 얼굴에는 낙담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걸 눈치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말했다. “거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하!” 그렉슨이 안도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위대한 정신에게 사소한 것이란 없네.” 홈즈가 훈계하듯 말했다.

“글쎄요, 언더우드에게 가서 그런 크기와 모양의 모자를 판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훑어보더니 곧바로 찾아내더군요. 그는 그 모자를 토키 테라스에 있는 샤르팡티에 하숙집에 사는 이넉 드레버 씨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주소를 알아낸 겁니다.”

“영리하군, 아주 영리해!” 설록 홈즈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다음에는 샤르팡티에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탐정이 말을 이었다. “부인은 안색이 몹시 창백했고 무척 괴로워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의 딸도 함께 있었는데, 참으로 보기 드문 미인이더군요. 제가 말을 걸자 그 처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설록 홈즈 씨, 당신도 이런 기분을 아실 겁니다. 결정적인 단서의 냄새를 맡았을 때, 신경이 짜릿하게 달아오르는 그 느낌 말입니다. 저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온 전(前) 하숙생, 이넉 J. 드레버 씨의 의문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이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들었다.

“드레버 씨가 기차를 타러 당신의 집에서 몇 시에 떠났습니까?” 내가 물었다.

“8시예요.” 그녀가 말했다. 동요를 억누르려는 듯 침을 꿀꺽 삼키는 기색이 역력했다. “비서인 스탠거슨 씨 말로는 기차가 두 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9시 15분이고, 다른 하나는 11시라고요. 그는 첫 번째 기차를 타야 했지요.”

“그게 그를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나요?”

내가 질문을 던지자 여자의 얼굴이 무섭게 변했다. 안색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버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여자는 겨우 "네"라는 한 마디를 내뱉을 수 있었다. 그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무척이나 부자연스러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딸이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거짓말을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그녀가 말했다. “이분께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희는 이녀 드레버 씨를 다시 만나게 맞아요.”

“신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기를!” 샤르팡티에 부인이 두 손을 번쩍 들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고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덧붙였다. “당신은 당신의 형제를 살해한 거예요.”

“아서라면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를 바랄 거예요.” 소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금 전부 다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어설피게 조금씩만 말하는 건 아예 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앨리스, 네 책임이다!” 어머니가 외쳤다. 그러고는 나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선생님, 제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 끔찍한 사건에 연루되었을까 봐 걱정되어 이렇게 동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이 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두려운 것은, 선생님과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들이 범죄에 휘말린 것처럼 보일까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아들의 고결한 성품과 직업, 그리고 그간의 행실을 보건대 결코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사실대로 전부 털어놓는 게 최선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드님이 결백하다면, 사실을 밝힌다고 해서 나빠질 건 전혀 없으니까요.”

“앨리스, 차라리 우리끼리 있게 해주는 게 좋겠구나.”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딸은 방을 나갔다.

“자, 선생님.” 그녀가 말을 이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여운 딸아이가 이미 다 털어놓았으니, 저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군요. 일단 입을 열기로 마음먹은 이상, 사소한 부분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내가 말했다.

“이넉 드레버 씨는 저희와 함께 지낸 지 거의 3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서인 조지프 스탠거슨 씨와 함께 유럽 대륙을 여행 중이었지요. 두 사람의 트렁크마다 ‘코펜하겐’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이 마지막 경유지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스탠거슨 씨는 조용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고용주인 드레버 씨는 전혀 판판이였습니다. 그는 생활 습관이 거칠고 행동도 야만적이었지요. 도착한 당일 밤부터 술에 잔뜩 취해 있었는데, 사실 낮 12시가 넘으면 거의 항상 만취 상태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하녀들을 대하는 태도도 역겨울 정도로 무례하고 지나치게 친한 척을 해댔습니다. 무엇보다 최악이었던 건, 그가 제 딸 앨리스에게도 금세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딸아이가 너무 순진해서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무례한 말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급기야 딸을 품에 안고 껴안기까지 했습니다. 그 파렴치한 행동에 비서가 그를 향해 남자답지 못한 처사라고 꾸짖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왜 이 모든 일을 참기만 하셨나요?” 내가 물었다. “원하신다면 세입자들을 내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요.”

나의 적절한 질문에 샤르팡티에 부인은 얼굴을 붉혔다.

“그가 온 바로 그날, 그에게 미리 통보를 해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정말 참기 힘든 유혹이었어요. 그들은 한 사람당 하루에 1파운드씩, 일주일에 14파운드나 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일감이 줄어드는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과부인 데다 해군에 있는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돈 쓸 일이 많았답니다. 그 돈을 놓치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저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일은 도가 지나쳤기에, 그 일 때문에 그에게 나가라고 통보했죠. 그가 떠난 건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요?”

“그가 마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아들은 지금 휴가 중입니다만,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데다 누이를 끔찍이 아끼거든요. 두 사람을 보내고 문을 닫고 나니, 마치 마음을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아, 불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리더니 드레버 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몹시 흥분한 상태였고, 분명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딸아이와 함께 앉아 있던 방 안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오더니, 기차를 놓쳤다는 둥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앨리스를 향해 돌아서더니, 제 눈앞에서 앨리스에게 함께 도망치자고 제안하더군요. ‘너도 이제 성인이지 않느냐’라며 그가 말했습니다. ‘널 막을 법 따위는 없어. 내게는 돈이 아주 넉넉하니 걱정 말거라. 여기 있는 노인네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가자. 공주처럼 살게 해주마.’ 가여운 앨리스는 너무 겁에 질려 그에게서 몸을 움츠렸지만, 그는 앨리스의 손목을 낚아채 문밖으

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던 그 순간, 아들 아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욕설과 뒤엉켜 싸우는 소란스러운 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 보니, 아서가 손에 지팡이를 든 채 문가에 서서 웃고 있더군요. 아서는 ‘저 잘난 친구가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 같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따라가 보겠습니다’라며 모자를 챙겨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드레버 씨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샤르팡티에 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멈추기를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진술이 그녀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때로는 목소리가 너무 낮아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단 한 치의 실수도 없도록 그녀가 하는 말 전부를 속기법으로 기록했다.

“정말 흥미진진하군요.” 설록 홈즈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샤르팡티에 부인이 말을 멈췄을 때,” 형사가 말을 이었다. “사건의 모든 실마리가 단 한 가지 지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소 여성들에게 효과가 좋았던 방식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아들이 몇 시에 돌아왔는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모른다고?”

“아니요, 그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잠자리에 드신 후에 말입니까?”

“네.”

“언제 잠자리에 들었습니까?”

“열한 시쯤이었지.”

“그럼 아드님이 최소 두 시간은 자리를 비웠다는 말씀입니까?”

“네.”

“어쩌면 네댓 시간쯤 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입술까지 하얗게 질린 채였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샤르팡티에 중위가 있는 곳을 알아낸 뒤, 장교 두 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제가 그의 어깨를 짚으며 순순히 따라오라고 경고하자, 그는 아주 뻔뻔스러운 태도로 대답하더군요. ‘그 비열한 드레버의 죽음에 연루되었다

는 이유로 나를 체포하려는 모양이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그가 먼저 그 사건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는 여전히 그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드레버를 뒤쫓을 때 어머니가 목격했다던 바로 그 목격한 몽둥이었다. 그것은 단단한 참나무로 만든 몽둥이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제 이론은 이렇습니다. 범인은 브릭스톤 로드까지 드레버를 뒤쫓아 갔을 겁니다. 거기서 두 사람 사이에 격한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드레버가 지팡이에 명치 부근을 맞았을 가능성이 큼니다. 외상 없이 즉사할 수도 있는 부위죠. 그날 밤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샤프팡티에는 피해자의 시신을 빈집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고요. 벽에 적힌 글자나 촛불, 혈흔, 그리고 반지 같은 것들은 경찰의 수사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수많은 속임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잘했네!” 홈즈가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이지, 그렉슨, 실력이 부쩍 늘었어. 자네라면 언젠가 대성할 수 있을 거야.”

“꽤 깔끔하게 처리한 것 같아 아주 만족스럽네.” 탐정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 청년이 자진해서 진술을 했거든. 드레버를 한참 뒤쫓았는데, 드레버가 자신을 알아채고는 도망치려고 마차를 잡아탔다고 하

더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옛 선원을 만났고, 그와 함께 한참을 걸었다는군. 하지만 그 선원이 어디 사느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어. 내 생각엔 이 모든 정황이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무엇보다 웃긴 건, 엉뚱한 단서를 쫓기 시작했던 레스트레이드 경위 생각이야. 아마 그는 이 사건으로 별 성과를 내지 못할 걸세. 아니, 세상에! 저기 본인이 직접 오고 있군!”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계단을 올라온 사람은 정말로 레스트레이드였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섰지만, 평소의 당당하고 경쾌한 태도나 옷차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옷차림 또한 흐트러져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분명 설록 홈즈와 상의할 생각으로 달려온 듯했다. 동료인 홈즈를 발견하자 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안절부절못했다. 레스트레이드는 방 한가운데 서서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초조하게 서성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했다.

"정말이지 기이한 사건입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 레스트레이드 경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렉슨이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당신도 결국 그 결론에 도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지프 스탠거슨 비서는 찾아냈습니까?”

“비서인 조지프 스탠거슨 씨가 오늘 새벽 6시경, 헬리데이 개인 호텔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1부 제7장 어둠 속의 빛

제7장. 어둠 속의 빛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전한 소식은 너무나 중대하고 뜻밖이라, 우리 세 사람 모두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다. 그렉슨 경위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다 그만 남은 위스키와 물을 쏟아버렸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설록 홈즈를 말없이 응시했다.

“스탠거슨도 말인가!” 그가 중얼거렸다. “사건이 점점 더 복잡해지
는군.”

“전에도 이미 충분히 복잡했는걸요.” 레스트레이드가 의자를 끌어
당겨 앉으며 투덜거렸다. “마치 제가 전쟁 회의 현장에 불쑥 끼어든 기
분이군요.”

“정말—정말 확실한 정보입니까?” 그렉슨이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방금 그 사람의 방에서 오는 길입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한 것도 저였습니다.”

“그렉슨 경위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보았고, 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반대할 건 없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도 스탠거슨이 드레버의 죽음에 연루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나는 스탠거슨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내는 데만 온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반쯤 유스턴 역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새벽 2시경, 드레버가 브릭스톤 로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내 앞의 과제는 스탠거슨이 8시 반부터 범행 시각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리버풀에 전보를 보내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알리고, 미국행 선박들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스턴 역 근처의 모든 호텔과 여관을 일일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드레버와 동행인이 서로 떨어졌다면, 동행인은 당연히 그 근처 어딘가에 숙소를 잡고 머물다가 다음 날 아침 다시 역 주변을 서성였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미리 만날 장소를 정해두었을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 내내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여덟 시쯤 리틀 조지 스트리트에 있는 헬리데이 개인 호텔

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스탠거슨 씨가 묵고 있는지 물었더니, 직원이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하더군요."

"분명 당신이 그분이 기다리던 신사분이시군요." 그들이 말했다.
"그분은 이틀 동안이나 신사 한 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분은 위층 침실에 계십니다. 아홉 시에 깨워 달라고 하셨어요."

"지금 바로 올라가서 그를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가 당황하여 무심코 실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인 한 명이 방을 안내하겠다고 자원했다. 방은 2층에 있었고, 그곳으로 이어지는 작은 복도가 있었다. 하인은 나에게 문을 가리켜 보여준 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했다. 그때 나는 20년의 경력을 가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문틈 사이로 가느다란 핏줄기가 말려 나오고 있었다. 그 피는 복도를 따라 구불구불 흘러가더니, 반대편 벽면을 따라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내가 비명을 지르자 하인이 다시 달려왔다. 하인은 그 광경을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지만, 우리는 어깨로 문을 밀어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의 창문은 열려 있었다. 창가에는 잠옷 차림의 남성 시신이 잔뜩 웅크린 채 놓여 있었다.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사지가 굳고 차가운 것으로 보아 죽은 지 꽤 시간이 흐른 듯했다.

우리가 시신을 뒤집어 보자, 하인은 그가 조지프 스탠거슨이라는 가명으로 방을 빌렸던 그 신사임을 즉각 알아차렸다. 사인은 왼쪽 옆구리에 깊게 박힌 자창이었는데, 심장까지 찔린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기이한 대목이 나온다. 살해된 남자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셜록 홈즈가 대답하기도 전이었지만, 나는 이미 살갗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피로 쓴 글자로 RACHE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바로 그거였어.” 레스트레이드가 경외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한동안 모두 침묵을 지켰다.

이 정체 모를 암살자가 저지른 행위에는 너무나도 체계적이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었다. 그 점이 오히려 범죄의 참혹함을 한층 더 끔찍하게 만들었다.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곳곳이 버터냈던 내 신경이, 그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파르르 떨려왔다.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을 이었다. “우유 배달 소년이었는데, 유제품 가게로 가던 길에 호텔 뒤편 마구간에서 이어지는 골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평소 그곳에 놓여 있던 사다리가 2층 창문 하나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죠. 소년은 그냥 지나치려다 뒤를 돌아보았고, 그때 한 남자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남자가 워낙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게 내려오던 터라, 소년은 그저 호텔에서 일하는 목수나 가구 제작자쯤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생각 외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죠. 소년의 기억에 따르면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얼굴색이 붉었으며, 긴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살인 직후 그 방에 잠시 머물렀던 게 분명합니다. 세면대 대야에는 손을 씻은 흔적인 피 묻은 물이 남아 있었고, 시트 위에는 범인이 칼을 의도적으로 닦아낸 자국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범인의 인상착의를 듣는 순간, 나는 흠즈를 슬쩍 쳐다보았다. 그 묘사는 흠즈가 직접 예측했던 범인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흠즈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만족스러운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방 안에서 범인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까?” 그가 물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탠거슨의 주머니에 드레버의 지갑이 들어 있었지만, 평소 스탠거슨이 모든 비용을 결제해 왔던 모양입니다. 지갑 안에는 80파운드 남짓한 돈이 들어 있었으나, 흠쳐 간 것은 없었습니다. 이 기괴한 범죄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강도질은 확실히 아닙니다. 살해된 남자의 주머니에는 서류나 메모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약 한 달 전 클리블랜드에서 발송된 전보 한 통이 있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J. H.가 유럽에 있다’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고,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흠즈가 물었다.

“별로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읽다가 잠이 들었는지 소설책 한 권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옆에 있는 의자에는 파이프가 놓여 있었죠. 탁자 위에는 물 한 잔이 있었고, 창틀에는 알약 두 알이 든 작은 연고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설록 홈즈가 환희에 찬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지막 연결 고리군!” 그가 환희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내 사건은 완벽하게 해결됐어.”

두 경위는 경악한 눈으로 그를 뵈히 바라보았다.

"이제 내 손에는 엉망으로 뒤엎겨 있던 사건의 실태라가 모두 쥐어져 있네." 동행인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물론 채워 넣어야 할 세부 사항들은 남아 있겠지. 하지만 드레버가 역에서 스탠거슨과 헤어진 순간부터 스탠거슨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주요 사실들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신하네. 내 지식이 맞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네. 저 알약들을 좀 가져와 줄 수 있겠나?"

“여기 있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작은 흰색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이 약들과 지갑, 그리고 전보를 챙겨 두었습니다. 경찰서의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려던 참이었지요. 사실 이 알약들을 챙긴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물건들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이쪽으로 주게.” 홈즈가 말했다. 그리고는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자, 박사. 그건 평범한 알약인가?”

그것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진주빛이 도는 회색이었고, 작고 둥글었으며, 빛에 비추어 보면 거의 투명해 보였다.

“가볍고 투명한 걸 보니,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진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 가엾고 오랫동안 앓아온 테리어 한 마리만 데려와 주시겠습니까? 어제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고통을 덜어주라며 안락사시키라고 하셨을 정도로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녀석 말입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개를 품에 안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왔다. 개의 거친 숨소리와 흐릿해진 눈동자를 보니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눈처럼 하얗게 센 주둥이는 이 개가 이미 개의 수명을 훌쩍 넘겼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개를 카펫 위에 놓인 쿠션 위로 조심스레 눕혔다.

“이제 이 알약 중 하나를 반으로 자르겠습니다.” 홈즈가 말하며 펜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그는 말한 대로 행동에 옮겼다. “절반은 나중에 쓸 수 있도록 다시 상자에 넣어둡시다. 나머지 절반은 물 한 티스푼이 담긴 이 와인 잔에 넣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친구인 의사 선생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약이 아주 쉽게 녹는군요.”

“이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일지도 모르겠군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마치 자신이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의심하는 듯,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말투였다. “하지만 이게 조지프 스탠거슨 씨의 죽음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친구여, 인내심을 갖게나. 조금만 기다려 보게!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게 그 일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걸 세. 이제 맛을 좋게 하려고 우유를 조금 섞겠네. 이렇게 만든 혼합물을 개에게 가져다주면, 아주 맛있게 훅아 먹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는 말을 하며 와인잔의 내용물을 받침 접시에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테리어 앞에 받침 접시를 놓아주자, 개는 재빨리 훅아 마셔 바닥까지 깨끗이 비웠다. 설록 홈즈가 워낙 진지한 태도로 임했기에, 우리 모두는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숨을 죽인 채 개를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기대했던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개는 여전히 쿠션 위에 몸을 길게 늘어뜨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방금 마신 액체가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홈즈는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짜증과 실망감이 역력히 드러났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야말로 초조함의 극치를 달리는 모습이었다. 홈즈가 이토록 격앙되어 있으니 나는 진심으로 그가 안타까웠다. 반면, 두 경위는 홈즈가 맞닥뜨린 이 난관이 전혀 불쾌하지 않은 듯, 비웃음을 띠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우연일 리 없어!”

그는 마침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이며 외쳤다.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어. 절대로 그럴 리 없단 말이다. 드레버 사건 때 의심했던 바로 그 알약이 스탠거슨이 죽은 뒤에도 똑같이 발견되었어. 그런데 정작 그 알약들은 아무런 독성도 없었지.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설마 내 추론 전체가 틀렸을 리는 없어. 그럴 순 없단 말이다! 그런데도 이 비천한 개놈은 멀쩡히 살아있단 말이지. 아, 알았다! 드디어 알아냈어!”

그는 환희에 찬 비명을 지르며 상자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남은 알약 하나를 반으로 쪼개 녹인 뒤, 우유를 섞어 테리어에게 내밀었다. 불행한 짐승은 우유에 혀를 대자마자 온몸을 경련하듯 떨더니,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뻗뻗하게 굳어 생기를 잃고 쓰러졌다.

설록 흠즈는 숨을 길게 몰아쉬더니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다.

“좀 더 믿음을 가졌어야 했어.” 흠즈가 말했다. “어떤 사실이 그동안 쌓아온 일련의 추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그 사실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걸 이제는 깨달아야 해. 그 상자 안에 든 두 알의 알약 중 하나는 치명적인 독약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혀 해롭지 않은 것이었지. 상자를 확인하기도 전에 진작 알아차렸어야 하는 사실이었어.”

그의 마지막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가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 인지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죽어 있는 개가 그의 추측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내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기분이 들었다. 비로소 진실의 실체가 희미하게나마 눈에 들어 오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지시겠지만,” 홈즈가 말을 이었다. “그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시된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단서의 중요성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 단서를 낚아챘고,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은 제 최초의 가설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일은 제 추론의 논리적 연장선이었죠. 그래서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건을 더 모호하게 만들었던 요소들이, 저에게는 오히려 사건을 밝히고 결론을 굳히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이한 현상을 곧 미스터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흔한 범 죄가 때로는 가장 미스터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건 연역적 추론을 끌어낼 만한 새롭거나 특별한 특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시신이 이 사건을 주목하게 만든 그 기괴하고 자극적인 정황들 없이, 그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면 이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이 기이한 세부 사항들은 사건을 어렵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해결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연설을 꽤나 참을성 없이 듣고 있던 그렉슨 경위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못했다.

“이보시오, 설록 홈즈 씨.” 그가 말했다. “당신이 명석한 사람이라는 점과 당신만의 수사 방식이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 기꺼이 인정하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이론이나 훈계가 아니란 말이오. 이건 범인을 직접 잡아내야 하는 문제요. 나는 내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 수사해 왔지만, 내가 틀렸던 모양이오. 젊은 샤르팡티에는 이번 두 번째 사건에 연루될 리가 없었지. 레스트레이드 경위도 자신의 용의자인 스탠거슨을 쫓았지만, 그 역시 잘못 짚은 것 같군. 당신은 여기저기 힌트를 던지며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당신에게 직접 물어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오. 이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 거요? 범인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소?”

“경위님, 저도 그렉슨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우리 둘 다 애를 써봤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방에 들어온 이후로 경위님께서서는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증거를 숨기지 않으시겠지요?”

“범인을 체포하는 데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내가 말했다. “그가 또 다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될 겁니다.”

우리의 거듭된 재촉에 홈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생각에 잠겼을 때 보이는 평소의 습관대로, 고개를 가슴 쪽으로 떨구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방 안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

“더 이상의 살인은 없을 겁니다.”

그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우리를 마주 보며 마침내 말했다.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범인의 이름을 아느냐고 물으셨지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름을 아는 것 따위는 그를 직접 붙잡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지않아 그를 직접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자는 매우 영악하고 필사적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증명했듯이, 그 뒤에는 그 만큼이나 영리한 조력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범인이 누군가 단서를 잡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동안에는 그를 붙잡을 기회가 있겠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기색이 보인다면 그는 즉시 이름을 바꾸고 이 거대한 도시의 400만 인파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두 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려 이들은 공권력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그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약속드리지요. 내 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으면서 여러분과 연락할 수 있는 즉시, 바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는 그 확답을 듣고도, 혹은 탐정 경찰을 깎아 내리는 듯한 암시를 듣고도 전혀 만족하지 못한 기색이었다. 그렉슨은 금발 머리칼이 뿌리까지 붉어질 정도로 얼굴을 붉혔고, 레스트레이드는 구슬 같은 눈을 번뜩이며 호기심과 분노를 동시에 드러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입을 열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리의 부

랑아들을 대표하는 어린 위긴스가 나타나, 보잘것없고 불결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인사를 건넸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그가 이마를 짚으며 정중히 말했다. “아래층에 마차가 대기하고 있어서요.”

“착한 친구군.” 홈즈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서랍에서 강철 수갑 한 쌍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이런 방식의 수갑을 스코틀랜드 야드에 제안해 보는 건 어떤가? 스프링이 얼마나 매끄럽게 작동하는지 보게 나. 순식간에 채워질 걸세.”

“구식 수갑도 충분히 쓸 만하죠.”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그걸 채워 넣을 놈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차꾼에게 내 상자들을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지. 위긴스, 그를 이쪽으로 오라고 하게.”

동행인인 그가 마치 여행이라도 떠날 기세로 말하기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나에게 여행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 방 안에는 작은 여행용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꺼내더니 끈을 조이기 시작했다. 그가 가방을 챙기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때, 마차꾼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마부 양반, 이 버클 좀 채우게 도와주게.”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눈앞의 일에 몰두하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말했다.

그 남자는 다소 불만스럽고 반항적인 태도로 다가오더니, 뚝뚝하며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클릭 소리와 함께 금속이 부딪히는 쳇그랑 소리가 들려왔다. 설록 홈즈는 다시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신사 여러분!” 그가 눈을 번뜩이며 외쳤다.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녀 드레버와 조지프 스탠거슨을 살해한 범인, 제퍼슨 호프 씨입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너무나 빨라 상황을 파악할 겨를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한다. 승리감에 도취한 홈즈의 표정과 울려 퍼지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마치 마법처럼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번쩍이는 수갑을 노려보던 마부의 멍하고도 사나운 얼굴이 떠오른다. 1, 2초 동안 우리는 마치 조각상처럼 멈춰 서 있었다.

그러다 범인이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홈즈의 손아귀에서 몸을 비틀어 빠져나오더니,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나무틀과 유리가 힘없이 부서져 나갔다. 하지만 그가 완전히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 그리고 홈즈가 사냥개처럼 달려들어 그를 덮쳤다. 범인은 방 안으로 끌려 들어왔고, 곧이어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범인의 힘이 어찌나 강하고 사나운지, 우리 네 명은 몇 번이고 그에게 튕겨 나갔다. 마치 간질 발작을 일으킨 사람처럼 경련적인 힘을 내뿜는 듯했

다. 유리를 뚫고 나오느라 얼굴과 손은 처참하게 짓이겨졌지만, 피를 흘리면서도 저항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레스트레이드가 범인의 넥클로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목을 조르듯 압박하고 나서야, 범인은 자신의 발버둥이 아무 소용 없음을 깨달은 듯했다. 그제야 우리는 안심할 수 있었고, 손뿐만 아니라 발까지 묶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느꼈다. 모든 일을 마친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마차를 확보했습니다.” 설록 홈즈가 말했다. “이 마차로 그를 스코틀랜드 야드까지 데려가면 되겠군요. 자, 신사 여러분.” 홈즈가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제 우리의 작은 수수께끼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어떤 질문이라도 기꺼이 답해 드리겠습니다.”

제2부 제1장 거대한 알칼리 평원에서

제2부. 성자들의 나라

제1장. 거대한 알칼리 평원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의 중심부에는 황량하고 불쾌한 사막이 펼쳐져 있다. 이 사막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문명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벽 역할을 했다.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네브래스카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엘로스턴강에서 남쪽으로는 콜로라도강에 이르는 이 지역은 황폐함과 정적만이 감도는 곳이다. 이 삭막한 구역의 자연이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인 것만은 아니다. 이곳에는 만년설을 머금은 높은 산맥과 어둡고 음침한 계곡이 공존한다. 험준한 협곡 사이를 거칠게 굽이쳐 흐르는 강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면 눈으로 하얗게 뒤덮이고 여름이면 염분이 섞인 회색 먼지로 뒤덮이는 광활한 평원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풍경은 황량함과 불친절함, 그리고 비참함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 절망의 땅에는 거주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 가끔 포니족이나 블랙피트족 무리가 다른 사냥터를 찾아 이곳을 가로질러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강인한 전사라 해도 이 공포스러운 평원을 뒤로하고 다시 자신들의 초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관목 사이로는 코요테가 몰래 숨어 다니고, 독수리는 무거운 날갯짓을 하며 허공을 가르다. 둔중한 그리즐리 곰은 어두운 협곡 사이를 느릿느릿 걸어다니며 바위틈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맬 뿐이다. 이 황무지에 사는 생명체라고는 오직 이것들이 전부다.

시에라 블랑코의 북쪽 경사면에서 바라보는 풍경보다 더 황량한 광경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눈이 닿는 곳마다 거대한 평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 땅은 알칼리 성분이 섞인 흙먼지로 얼룩져 있고, 키 작은 관목들이 군데군데 엉켜 있을 뿐이다. 지평선 끝자락에는 험준한 봉우리들이 눈을 머금은 채 길게 산맥을 이루고 있다. 이 광활한 대지에는 생명의 흔적은커녕, 생명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다. 강철빛 푸른 하늘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잿빛의 무미건조한 땅 위에는 그 어떤 움직임도 없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완전한 정적이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 보아도 이 거대한 황야에서는 소리의 그림자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침묵만이 존재할 뿐이다. 마음을 짓누를 듯한, 완벽하고도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다.

광활한 평원에는 생명체라곤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시에라 블랑코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막을 가로지르는 길이 하나 보인다. 그 길은 굽이굽이 이어지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다. 길 위에는 수레바퀴 자국이 깊게 패어 있고,

수많은 모험가가 지나간 발길에 짓눌려 있다. 여기저기에는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하얀 물체들이 흩어져 있는데, 칙칙한 알칼리 퇴적물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띈다. 가까이 다가가 그것들을 살펴보라. 그것들은 뼈다. 어떤 것은 크고 거칠며, 어떤 것은 작고 섬세하다. 전자는 소의 뼈이고, 후자는 사람의 뼈다. 길가에서 쓰러져간 이들이 남긴 이 끔찍한 유해들을 따라가다 보면, 천오백 마일에 달하는 이 죽음의 행렬을 추적할 수 있다.

1847년 5월 4일, 이 광경을 내려다보는 곳에 한 명의 고독한 여행자가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그 지역을 지배하는 악령이나 악마 같았다. 관찰자가 보기에 그는 마흔에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에 가까운 사람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웠다. 얼굴은 수척하고 초췌했으며, 돌출된 뼈 위로 갈색의 양피지 같은 피부가 팽팽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길게 늘어진 갈색 머리카락과 수염에는 흰머리가 군데군데 뒤섞여 있었다. 눈은 움푹 들어갔으나 기이한 광채를 내뿜으며 번뜩였고, 소총을 쥔 손은 해골의 손이라 해도 믿을 만큼 살점이 거의 없었다. 그는 서 있는 동안 무기를 지팡이 삼아 몸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큰 키와 골격의 견고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가 여전히 강인하고 활기찬 체질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깡마른 얼굴과 쪼그라든 사지 위로 혈겁게 흘러내리는 옷차림은 그가 왜 노쇠하고 쇠약해 보이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남자는 죽어가고 있었다.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물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 험준한 협곡을 따라 고통스럽게 내려와 이 작은 언덕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소금 평원뿐이었다. 멀리 보이는 험악한 산맥의 띠를 보아도 식물이나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다. 수분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광활한 풍경 어디에서도 희망의 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북쪽과 동쪽, 그리고 서쪽을 향해 절박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방랑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이 황량한 바위 언덕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20년 뒤에 폭신한 침대 위에서 죽는 것이나,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나."

그는 바위 뒤편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는 자리에 앉기 전, 쓸모없어진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회색 솔로 꿈꿈 묶은 커다란 보따리도 함께 내려놓았다. 보따리는 그의 힘에 비해 다소 무거운 듯했다. 바닥에 내려놓을 때 꽤 둔탁한 소리가 날 정도였다. 그 순간, 회색 보따리 안에서 작은 신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따리 사이로는 겁에 질린 작은 얼굴이 쑥 비어져 나왔다. 아이는 아주 빛나는 갈색 눈동자에, 주근깨가 점점이 박히고 보조개처럼 움푹 팬 작은 주먹 두 개를 내밀고 있었다.

"아파요, 나를 아프게 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가 원망 섞인 투로 말했다.

"제 잘못입니다." 남자가 참회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말을 하며 회색 솔을 풀어 헤쳤다. 그 안

에서 다섯 살 남짓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가 신은 아기자기한 신발과 분홍색 원피스, 그리고 그 위에 두른 작은 리넨 앞치마를 보니 어머니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라는 사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으나, 팔다리에는 생기가 남아 있었다. 동행한 남자에 비하면 아이는 그나마 덜 고생한 듯 보였다.

“지금은 좀 어때요?” 그가 초조하게 물었다. 아이는 여전히 뒷머리를 덮은 부스스한 금빛 곱슬머리를 문지르고 있었다.

“여기에 입을 맞춰서 낮게 해 주세요.” 그녀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다친 곳을 그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 엄마는 항상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아마 머지않아 너도 어머니를 뵈게 될 거야.”

“가버렸나 보네, 그치?” 어린 소녀가 말했다. “이상해. 작별 인사도 안 하고 갔어. 그냥 아주머니 댁에 차 마시러 가는 거라면 꼭 인사를 했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저기, 여기는 너무 메마른 것 같아. 안 그래?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 아무것도 없단다, 애야.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곧 괜찮아질 거다. 자, 내 어깨에 머리를 좀 더 기대 보렴. 그러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거야. 입술이 가죽처럼 바짝 말라 있어서 말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

래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미리 알려주는 게 좋겠구나. 대체 뭘 들고 있는 거니?”

“예쁜 거다! 정말 멋져!” 어린 소녀가 반짝이는 운모 조각 두 개를 들어 올리며 신이 나서 외쳤다. “집에 돌아가면 밥 오빠한테 선물로 줄 거야.”

“곧 저것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될 걸세.” 남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보게나. 그나저나 아까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강을 떠날 때 기억나나?”

“아, 그렇고말고요.”

“글쎄요, 곧 다른 강이 나타날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던 겁니다. 나침반이든 지도든, 뭐 하나가 말썽이었는데 끝내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께 드릴 아주 적은 양이랑, 그리고…… 그리고……”

“게다가 몸도 제대로 못 씻으시는군요.”

동행인이 그의 때 묻은 얼굴을 뺨히 바라보며 엄숙하게 말을 가로챘다.

“아니, 마시지도 못했단다. 벤더 씨가 가장 먼저 떠났고, 그다음은 인디언 피트였지. 맥그리거 부인과 조니 혼즈도 차례로 떠났단다. 그리고 그다음은, 애야, 바로 네 어머니였어.”

“그럼 엄마도 죽은 거네요!” 어린 소녀가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그래, 자네와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떠났어.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물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자네를 내 어깨에 들쳐 메고 함께 걸어온 거야. 하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여!”

“우리도 죽게 되는 건가요?” 아이가 울음을 참으며 물었다. 아이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올렸다.

“대충 상황이 그렇다는 뜻이겠지.”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즐겁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하지만 그래요, 죽기만 하면 우리도 다시 어머니 곁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 그럴 거야, 애야.”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해주었는지 그녀에게 꼭 말해줄게요. 분명 그녀가 천국 문 앞까지 마중 나와 있을 거예요. 커다란 물병을 들고, 그리고 나와 밥이 좋아하던 것처럼 양면을 노릇하게 구운 뜨거운 메밀 케이크를 잔뜩 들고 말이죠. 우선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모르겠구나.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남자는 북쪽 지평선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푸른 하늘 위로 작은 점 세 개가 나타나더

니,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며 매 순간 크기를 키워갔다. 이내 점들은 커다란 갈색 새 세 마리로 변했다. 새들은 길을 잃고 헤매는 두 사람의 머리 위를 선회하다가, 그들을 내려다보는 바위 위에 내려앉았다. 그것들은 서부의 독수리인 버즈어드였다. 그들의 등장은 곧 죽음의 전조였다.

“수탉이랑 암탉이다!”

어린 소녀가 불길한 형체를 가리키며 즐겁게 외쳤다. 아이는 닭들이 날아오르도록 손뼉을 짹짹 쳤다.

“저기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신 건가요?”

“당연히 그랬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동행인이 다소 놀란 기색으로 대답했다.

“그분께서 일리노이의 땅을 만드셨고, 미주리도 만드셨어요.” 어린 소녀가 말을 이었다. “제 생각에 이 근처 땅은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 같아요. 그분만큼 잘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물과 나무를 깎아 만든 모양이에요.”

“기도를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밤은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상관없어. 좀 서툴러도 괜찮을 거야. 그분도 분명 이해해 주실 테니까. 우리가 평원을 지날 때 마차 안에서 매일 밤 읊어주던 그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줘.”

“왜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신기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가 대답했다. “저 총 높이의 절반밖에 안 되던 어린 시절 이후로는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거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겠지. 네가 소리 내어 읊으면, 나는 옆에 서 있다가 후렴 부분에서 같이 맞춰 부르마.”

“그럼 당신도 나도 무릎을 꿇어야겠네요.” 그녀는 그럴 용도로 술을 펼쳐 놓으며 말했다. “손은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세요. 그러면 기분이 꽤 좋아질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할 존재가 독수리들뿐이 아니었다면, 참으로 기이한 모습이었으리라. 좁은 술 위로 두 방랑자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한 명은 재잘거리는 어린아이였고, 다른 한 명은 무모하고 거친 모험가였다. 통통한 아이의 얼굴과 수척하고 각진 남자의 얼굴은 모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들은 눈앞에 마주한 두려운 존재에게 간절히 빌고 있었다. 가늘고 맑은 아이의 목소리와 깊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기도를 마친 두 사람은 바위 그림자 아래 다시 자리를 잡았다. 아이는 보호자의 넓은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남자는 한동안 아이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으나, 결국 자연의 섭리를 이기지 못했다. 그는 사흘 밤낮을 쉬지도, 편히 쉬지도 못한 상태였다. 지친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앉았고, 고개는 점점 더 가슴 쪽으로 떨어어졌다. 남자의 희끗희끗한 수염이 아이의 금빛 머리카락과 뒤섞였고, 두 사람은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방랑자가 만약 반 시간만 더 깨어 있었다라면,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다. 멀리 알칼리 평원의 끝자락에서 작은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서 멀리 깔린 안개와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높고 넓게 퍼지더니 이내 형체가 뚜렷한 거대한 구름을 이루었다. 이 구름은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더니, 결국 수많은 생명체가 움직이며 만들어낸 것이 분명해 보였다. 만약 이곳이 더 비옥한 땅이었다면, 관찰자는 초원을 누비는 거대한 들소 떼가 다가오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황량한 황무지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먼지 소용돌이가 두 조난자가 쉬고 있는 외딴 절벽 근처로 다가오자, 뿌연 안개 사이로 덮개가 씌워진 마차들과 무장한 기병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정체는 서부로 향하는 거대한 카라반이었다. 그것도 실로 엄청난 규모의 카라반이었다. 선두가 산기슭에 다다랐을 때도 그 후미는 아직 지평선 너머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마차와 수레, 말을 탄 이들과 도보로 이동하는 이들이 거대한 평원을 가로질러 길게 늘어서 있었다. 짐을 짊어진 채 비틀거리며 걷는 수많은 여인과,

마차 옆에서 아장아장 걸거나 흰 덮개 아래에서 고개를 내민 아이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것은 평범한 이주민 집단이 아니었다. 가혹한 환경에 내몰려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난 유목 민족임이 분명했다.

맑은 공기 속으로 거대한 인파가 만들어내는 소란스러운 달그락 소리와 웅성거림이 울려 퍼졌고, 바퀴의 삐걱거림과 말의 울음소리도 뒤섞였다. 소리가 꽤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쳐 쓰러진 두 나그네를 깨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행렬의 맨 앞에는 어두운 색의 거친 홈스펀 옷을 입고 소총으로 무장한, 표정이 엄숙하고 굳은 사내 스무 명 남짓이 말을 타고 나아갔다. 그들이 절벽 아래에 다다르자 행렬은 멈춰 섰고, 사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짧게 회의를 나누었다.

“형제들이여, 우물은 오른쪽에 있네.” 입술이 굳게 다물어진, 갈끔하게 면도한 얼굴에 거친 백발이 섞인 한 남자가 말했다.

“시에라 블랑코의 오른쪽으로 가자. 그래야 리오그란데강에 닿을 수 있다.” 다른 이가 말했다.

“물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외쳤다. “바위에서 물을 끌어내신 분께서, 이제 와서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을 저버리실 리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일행 모두가 한목소리로 화답했다.

다시 길을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때 가장 젊고 눈매가 날카로운 이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머리 위 험준한 바위 절벽을 가리켰다. 절벽 꼭대기에서 분홍색 천 조각 하나가 나풀거리고 있었다. 회색빛 바위벽을 배경으로 그 색깔이 유독 선명하고 강렬하게 눈에 띄었다. 그 광경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일제히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춰 섰고, 총을 어깨에서 내려 메기 시작했다. 그사이 새로 합류한 기병들이 선봉대를 지원하기 위해 말들을 몰아 달려왔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연신 "레드스킨"이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이 근처에 인디언이 떼로 몰려 있을 리 없네.” 지휘관처럼 보이는 노인이 말했다. “방금 파니 부족을 지나쳐 왔네. 저 거대한 산맥을 넘기 전까지는 다른 부족도 나타나지 않을 거야.”

“스탠거슨 형제여, 내가 앞으로 나가서 확인해 봐도 되겠소?” 무리 중 한 명이 물었다.

“저도요!” “저도요!” 열두 명 남짓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말은 아래에 묶어 두게나.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리니.” 장로가 대답했다.

잠시 후, 젊은이들은 말에서 내려 말들을 매어 두었다. 그리고는 호기심을 자극했던 그 대상을 향해 깎아지른 듯한 경사로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숙련된 정찰병처럼 거침없고 능숙한 몸놀림으로, 소리 없이 빠르게 전진했다. 평원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이들은 젊은이들이

바위 사이를 옮겨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들의 실루엣이 하늘과 맞닿은 능선 위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처음 경보를 올렸던 청년이 앞장서서 길을 이끌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따르던 이들은 그 청년이 마치 경악에 휩싸인 듯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뒤이어 그에게 다가간 동료들 역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마주하고는 똑같이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황량한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작은 고원 위에는 거대한 바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바위에 한 남자가 기대어 누워 있었다. 키가 큰 그는 수염이 길게 자랐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으나, 몸은 지나칠 정도로 말라 있었다. 평온한 얼굴과 규칙적인 숨소리를 보니 그는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그의 곁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누워 있었다. 아이는 하얗고 통통한 두 팔로 남자의 검고 근육질인 목을 감싸 안았고, 금발 머리는 남자가 입은 벨벳 튜닉의 가슴팍에 기대어 있었다. 아이의 분홍빛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로 눈처럼 하얀 치아가 가지런히 보였다. 천진난만한 미소가 아이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하얀 양말을 신고 반짝이는 버클이 달린 깔끔한 신발을 신은 아이의 통통하고 하얀 다리는, 곁에 누운 남자의 길고 쪼글쪼글한 팔다리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 기이한 두 사람 위쪽 바위 선반에는 검독수리 세 마리가 엄숙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새로 나타난 이들을 발견하자, 독수리들은 실망했다는 듯 거친 비명을 내지르며 심술궂게 날갯짓을 하며 날아갔다.

흥측한 새들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잠이 들기 전까지만 해도 황량하기 그지없던 평원에는 이제 엄청난 수의 사람과 짐승들이 가득했다. 남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 광경을 응시하더니, 뺨만 남은 손으로 눈을 쓸어내렸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섬망인가 보군." 그가 중얼거렸다. 아이는 남자의 코트 자락을 붙잡은 채 그의 곁에서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린아이 특유의 경이로움과 의문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구조대가 도착하자, 조난자 두 사람은 자신들이 본 모습이 환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어린 소녀를 붙잡아 어깨 위로 번쩍 들어 올렸고, 다른 두 명은 수척해진 소녀의 동행자를 부축하며 마차 쪽으로 이끌었다.

“내 이름은 존 페리어라네.” 방랑자가 설명했다. “나와 저 어린것뿐이야. 스물한 명이나 되던 사람들 중 이제 우리 둘만 남았지. 나머지는 모두 저 남쪽 땅에서 갈증과 허기에 지쳐 죽고 말았네.”

“저 아이가 당신 자식입니까?” 누군가 물었다.

“이제는 그럴지도 모르지!” 상대방이 반항적으로 외쳤다. “내가 구했으니 이 아이는 내 아이야. 그 누구도 이 아이를 내게서 뺏어갈 순 없어. 오늘부터 이 아이의 이름은 루시 페리어다. 그런데 당신들은 대체 누구지?” 그는 건장하고 햇볕에 그을린 구조자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아주 떼거지로 몰려온 것 같군.”

“거의 만 명에 달합니다.” 젊은이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는 박해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사 메로나가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소.” 방랑자가 말했다. “보아하니 그 분이 당신들을 꽤나 많이도 골라내셨군.”

“신성한 것을 두고 농담하지 마시오.” 상대방이 엄중하게 말했다. “우리는 성스러운 기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팔미라에서 성스러운 조지프 스미스에게 전해진, 황금판 위에 이집트 문자로 새겨진 그 기록 말입니다. 우리는 일리노이주 노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우리 만의 성전을 세웠었지요. 우리는 폭력적인 자들과 신을 모르는 자들을 피해 피난처를 찾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설령 그곳이 사막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노부라는 이름은 분명 존 페리어의 기억을 불러일으킨 모양이었다. “알겠소.” 그가 말했다. “당신들이 모르몬이군.”

“우리는 모르몬교도입니다.” 일행이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네. 신의 섭리가 우리를 예언자 앞에 인도하고 있을 뿐이지. 자네는 반드시 그분을 뵈러 가야 하네. 자네를 어떻게 처분 할지는 그분이 직접 결정하실 걸세.”

그 무렵 그들은 언덕 기슭에 다다랐다. 그들 주변은 이미 수많은 순례자로 가득했다. 창백한 얼굴의 온순해 보이는 여인들, 씩씩하게 옷

는 아이들, 그리고 근심 어린 눈빛을 한 진지한 표정의 남성들이 뒤섞여 있었다. 낮선 이들 중 한 명은 너무나 젊었고, 다른 한 명은 처참할 정도로 궁핍한 상태였다. 그 모습을 본 군중 사이에서는 경악과 동정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호송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수많은 모르몬교도가 그 뒤를 따랐고, 마침내 커다란 마차 한 대 앞에 멈춰 섰다. 그 마차는 유독 거대한 크기에 화려하고 깔끔한 외관을 뽐내며 눈에 띄었다. 다른 마차들이 말 두 마리, 많아야 네 마리를 끌고 가는 것과 달리, 이 마차에는 말 여섯 마리가 연결되어 있었다. 마부 옆에는 서른 살을 넘지 않아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커다란 머리에 결연한 표정을 지니고 있어, 누가 보아도 지도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갈색 표지의 책을 읽고 있었으나, 군중이 다가오자 책을 내려놓고 방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러고는 조난당한 두 사람을 향해 몸을 돌렸다.

“우리가 당신을 데려간다면,” 그가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을 믿는 사람으로서만 가능할 것이요. 우리 무리에 늑대를 들일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결국 열매 전체를 썩게 만드는 작은 부패의 씨앗이 될 바에는, 차라리 이 황무지에서 당신의 뼈가 하얗게 바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요. 이 조건으로 우리와 함께 가겠소?”

“어떤 조건이든 따르겠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가죠.” 페리어가 말했다. 그가 워낙 힘주어 말하는 바람에, 엄숙한 표정을 짓던 원로들조차 웃음을 참지 못할 정도였다. 오직 지도자만이 여전히 엄격하고 위엄 있는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스탠거슨 형제, 이 사람을 맡아주게." 그가 말했다. "이 사람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주게나. 아이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우리 성스러운 교리를 가르치는 일 또한 자네의 임무가 될 것이네.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네. 앞으로 나아가세! 자, 시온을 향해 전진하게!"

"시온을 향해, 계속 나아가자!" 모르몬교도들이 외쳤다. 그 외침은 긴 행렬을 따라 물결치듯 번져 나갔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목소리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되어 서서히 잦아들었다. 채찍 소리와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거대한 마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곧이어 행렬 전체가 다시금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했다. 두 아이를 맡게 된 장로가 아이들을 자신의 마차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아이들을 위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여기 머물게나." 그가 말했다. "머칠 지나면 피로도 풀릴 걸세. 그동안 명심하게. 자네는 이제 영원히 우리 종교의 일원이라네. 브리검 영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네. 그는 조지프 스미스의 목소리로 말했으니, 곧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한 것이나 다름없네."

제2부 제2장 유타의 꽃

제2장. 유타의 꽃

이곳은 이주해 온 모르몬교도들이 마침내 안식처에 도달하기 전까지 겪어야 했던 시련과 고난을 기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다. 미시시피강 연안에서부터 로키산맥의 서쪽 경사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끈질기게 투쟁하며 나아갔다. 야만적인 인간과 짐승, 굶주림과 갈증, 피로와 질병까지. 자연이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그들은 앵글로색슨 특유의 끈기로 극복해 냈다. 하지만 그 길고 긴 여정과 쌓여가는 공포는 가장 강인한 이들의 마음조차 뒤흔들어 놓았다. 발아래로 햇살에 젖어 빛나는 유타의 넓은 계곡이 펼쳐지던 순간, 그들 중 누구라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지도자의 입을 통해 이곳이 약속된 땅이며, 이 순결한 대지가 영원히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말이다.

영은 결단력 있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유능한 행정가라는 사실을 빠르게 증명해 보였다. 지도가 그려지고 도표가 준비되었으며, 그 위

에는 미래의 도시 모습이 밑그림으로 그려졌다. 주변의 농지들은 각자의 지위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고 할당되었다. 상인은 상업에 종사했고, 장인은 자신의 기술을 펼쳤다. 마을의 거리와 광장들은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 순식간에 생겨났다. 시골 지역에서는 배수 작업을 하고 울타리를 세웠으며, 나무를 심고 땅을 일구었다. 이듬해 여름이 되자 온 들판은 황금빛 밀 이삭으로 가득 찼다. 이 기묘한 정착지의 모든 것이 번창했다. 무엇보다도 도시 중심부에 세운 거대한 신전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높고 웅장해졌다. 새벽녘부터 황혼이 질 때까지, 수많은 위험 속에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인도한 '그분'을 위해 이주민들이 세우는 기념비에서는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조난당했던 두 사람, 즉 존 페리어와 그의 운명을 함께하며 양녀로 입양된 어린 소녀는 모르몬교도들의 거대한 순례 행렬을 따라 끝까지 동행했다. 어린 루시 페리어는 스탠거슨 장로의 마차를 타고 즐겁게 이동했다. 그 마차에는 스탠거슨 장로의 세 아내와, 열두 살 된 고집 센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루시는 어머니의 죽음이 준 충격에서 어린아이 특유의 회복력으로 금세 기운을 차렸다. 아이는 곧 여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움직이는 천막 집에서 이어지는 이 새로운 생활에도 차츰 적응해 나갔다. 그사이 페리어 역시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 유능한 길잡이자 지칠 줄 모르는 사냥꾼으로서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새로운 동료들에게 빠르게 신망을 얻었다. 덕분에 순례 행렬이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그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 브리검 영 본인과 네 명의 주요 장로인 스탠거슨, 캠벨, 존스

턴, 그리고 드레버를 제외하고, 다른 정착민들이 받는 것만큼이나 넓고 비옥한 토지를 그에게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마련한 농장에 존 페리어는 튼튼한 통나무집을 지었다. 이후 수년에 걸쳐 집을 계속 증축한 덕분에, 그 집은 널찍한 빌라로 변모했다. 그는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었다. 일 처리는 빈틈이 없었고 손재주도 뛰어났다. 강인한 체력 덕분에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을 일구고 개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의 농장과 소유한 모든 재산은 눈부시게 번창했다. 3년 만에 그는 이웃들보다 형편이 나아졌고, 6년이 지나자 유복한 생활을 누렸으며, 9년째에는 부자가 되었다. 12년이 흐른 뒤에는 솔트레이크시티 전체를 통틀어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여섯 명도 채 되지 않을 정도였다. 거대한 내해에서 멀리 떨어진 와사치 산맥에 이르기까지, 존 페리어라는 이름보다 더 유명한 이름은 없었다.

그가 같은 신앙을 가진 동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동료들이 그러하듯 여성을 위한 가정을 꾸리는 일만큼은, 그 어떤 논리나 설득으로도 그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왜 이토록 완강하게 거절하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결심을 단호하고도 굽힘 없이 고수할 뿐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믿는 종교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것이라 비난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재물을 탐하며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기 때문이라고 치부했다. 한편에서는 그가 과거에 사랑했던 금발의 여인이

대서양 연안에서 애타게 그를 기다리다 병사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을 내기도 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 페리어는 철저히 독신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면에서 그는 젊은 정착지의 종교적 규율을 충실히 따랐으며, 정통 신앙을 가진 올곧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루시 페리어는 통나무집에서 자라며 양아버지의 모든 일을 도왔다. 산맥의 상쾌한 공기와 소나무의 향긋한 내음은 어린 소녀에게 유모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주었다. 해가 갈수록 소녀는 키가 커지고 몸도 단단해졌다. 뺨은 더욱 붉게 상기되었고 발걸음에는 활기가 넘쳤다. 페리어의 농장 옆을 지나는 대로의 나그네들은 밀밭 사이를 경쾌하게 뛰어가는 소녀의 유연한 몸짓을 보며 잊고 지냈던 옛 생각에 잠기곤 했다. 혹은 아버지의 머스탱을 타고 서부의 아이다운 여유와 우아함으로 말을 다루는 그녀를 마주하며 감상에 젖기도 했다. 꽃봉오리는 그렇게 만개한 꽃이 되었다. 아버지가 농가 중 가장 큰 부를 쌓았던 그해, 루시는 태평양 연안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미국 소녀로 성장해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이런 경우 대개 그렇듯, 아버지가 먼저 알아차리는 법은 드물다. 그 신비로운 변화는 너무나 미묘하고 점진적이어서 날짜를 따져가며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소녀 자신조차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다 어느 날, 목소리의 어조나 손길의 감촉에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다. 그리고 자부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자신의 내면에서 새롭고 더 거대한 본성이 깨어났음을 알게 된다. 새로운 삶의 서막을 알렸던 그날의 작은 사건 하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루시 페리어의 경우에는 그 사건 자체가 이미 충분히 중대했다. 그것이 장차 그녀의 운명과 다른 수많은 이들의 운명에 미칠 영향은 말할 것도 없었다.

따스한 6월의 아침이었다. 후기 성도들은 자신들의 상징인 별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들판과 거리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일하는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먼지 날리는 대로를 따라 짐을 가득 실은 노새 무리가 줄을 지어 서쪽으로 향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골드러시가 시작된 탓에, 대륙 횡단로가 바로 이 '선택받은 자들의 도시'를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곽 목초지에서 몰려오는 양과 황소 떼도 보였고, 끝없는 여정에 지친 사람과 말들이 뒤섞인 이주민 행렬도 보였다.

이 어지러운 인파 사이를 숙련된 기수처럼 능숙하게 헤치며 루시 페리어가 말을 달렸다. 운동으로 인해 하얀 얼굴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긴 밤색 머리카락은 뒤로 휘날렸다. 그녀는 도시에 있는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젊은 날의 용기로 무장한 그녀는 오직 맡은 임무를 어떻게 완수할지만을 생각하며, 이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 거침없이 달려 들어오고 있었다.

먼지투성이가 된 모험가들은 경탄하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모피를 신고 이동하던 무뚝뚝한 인디언들조차, 창백한 얼굴의 아름다운 처녀를 보며 평소의 초연함을 잃은 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가 도시 외곽에 다다랐을 때, 길은 거대한 소 떼에 가로막혀 있었다. 평원에서 온 듯한 험상궂은 모습의 목동 여섯 명 정도가 소들을 몰고 있었다. 마음이 급해진 그녀는 틈새처럼 보이는 곳으로 말을 몰아 이 장애물을 통과하려 애썼다. 하지만 겨우 그 사이로 들어섰을 때, 짐승들이 그녀의 뒤를 막아서며 좁혀 들어왔다. 그녀는 눈매가 사나운 긴 뿔의 황소들이 이루는 거대한 흐름 속에 완전히 갇히고 말았다. 평소 가축을 다루는 데 익숙했던 그녀는 이 상황에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소 떼를 헤치고 나갈 기회를 엿보며 필사적으로 말을 몰았다.

불행히도, 어떤 우연인지 혹은 의도적인 것인지 소 한 마리의 뿔이 야생마의 옆구리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그 충격에 말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말은 순식간에 뒷다리로 일어서며 분노 섞인 콧김을 내뿜었고, 숙련된 기수가 아니라면 떨어졌을 만큼 격렬하게 몸을 흔들며 날뛰었다. 상황은 매우 위험했다. 흥분한 말이 요동칠 때마다 뿔에 다시 부딪혔고, 그때마다 말은 더욱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녀는 안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야 했다.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짐승들의 발굽 아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판이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하자 그녀는 머리가 어지러워졌고, 고삐를 쥔 손에도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피어오르는 먼지 구름과 짐승들이 내뿜는 열기에 숨이 막혀, 그녀는 절망 속에 모든 노력을 포기할 뻔했다. 그때 곁에서 도와주겠다는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구릿빛의 근육질인 손 하나가 겁에 질린 말의 재갈을 낚아챘다. 그 손은 소 떼를 헤치며 길을 내어주었고, 곧 그녀를 도시 외곽으로 무사히 인도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가씨.” 그녀를 구해준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그녀는 그의 어둡고 강렬한 얼굴을 올려다보며 건방지게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녀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고작 소 떼를 보고 폰초가 저렇게 겁을 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상대방이 간곡하게 말했다. 그는 키가 크고 거친 인상을 풍기는 청년이었다. 힘이 넘치는 갈색 말에 올라탄 그는 어깨에 긴 소총을 멘 채 사냥꾼의 투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보아하니 존 페리어의 따님인 모양이군요.” 그가 말을 이었다. “그의 집에서 말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님을 만나면, 세인트루이스의 제퍼슨 호프를 기억하시는지 꼭 여쭙봐 주십시오. 만약 그분이 제가 아는 그 페리어라면, 저희 아버지와 아주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녀가 조신하게 물었다.

그 젊은이는 제안이 마음에 든 듯, 검은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다. “그렇게 하죠.” 그가 말했다. “산속에서 두 달이나 지내느라 몸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거든요. 그분도 우리 물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 사람도 당신에게 고마워할 게 아주 많아요. 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 사람은 저를 아주 지극히 아끼거든요. 만약

그 소들이 저를 들이받기라도 했다면, 그는 아마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나 역시 마찬가지라네.” 동행인이 말했다.

“당신 말이야! 뭐, 어차피 당신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당신은 우리 친구도 아니잖아.”

젊은 사냥꾼의 어두운 얼굴이 그 말에 너무나 침울해지자, 루시 페리어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니예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연히 이제 우린 친구죠. 꼭 저희 집에 놀러 오셔야 해요.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안 그러면 아버지가 더는 저에게 사업 일을 맡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는 넓은 솜브레로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그녀의 작은 손 위로 몸을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여자는 머스탱을 돌려 세우고 채찍으로 한 번 내리쳤다. 이윽고 그녀는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넓은 길을 따라 순식간에 멀어져 갔다.

젊은 제퍼슨 호프는 동료들과 함께 말을 타고 나아갔으나, 표정은 침울했고 말수도 적었다. 그와 일행은 네바다 산맥에서 은광을 찾던 중이었고, 발견한 광맥을 채굴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그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둘러놓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누구보다도 사업에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시에라 산맥의 산들바람처럼 맑고 건강한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소녀를 본 순간, 그의 화산처럼 뜨겁고 길들여지지 않은 심장은 깊은 곳에서부터 요동치기 시작했다. 소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왔음을, 그리고 이제 은광 투기나 그 어떤 문제도 이 새롭고 강렬한 감정만큼 중요할 수 없음을 말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사랑은 소년의 변덕스럽고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한 의지와 불같은 성미를 지닌 한 남자의 거칠고 격정적인 열정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손대는 일마다 성공해 온 사람이었다. 그는 인간의 노력과 인내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이번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겠노라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그날 밤부터 제퍼슨 호프는 존 페리어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농가에 얼굴이 익숙해질 때까지 수없이 그곳을 드나들었다. 골짜기에 고립된 채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존은 지난 12년 동안 바깥세상의 소식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제퍼슨 호프는 그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루시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개척자였다. 거칠면서도 평화로웠던 그 시절, 막대한 부를 쌓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잃었던 수많은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다. 그는 정찰병이자 사냥꾼이었고, 은광 탐사원이자 목장주이기도 했다. 흥미진진한 모험이 있는 곳이라면 제퍼슨 호프는 언제나 그 모험을 찾아 그곳에 있었다.

그는 곧 노농부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존 페리어는 호프의 미덕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런 순간마다 루시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붉게 달아오른 뺨과 밝고 행복하게 빛나는 눈동자는, 그녀의 어린 마음이 이미 그에게 기울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정직한 아버지는 이런 기색을 알아차리지 못했을지 모르나, 그녀의 마음을 얻은 남자에게 그 신호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말을 타고 길을 달려와 대문 앞에 멈춰 선 것은 어느 여름 저녁이었다. 문가에 서 있던 그녀가 그를 맞이하러 내려왔다. 그는 말의 고삐를 울타리 너머로 던져버리고는 오솔길을 따라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이제 떠나야 해, 루시.”

그는 루시의 두 손을 맞잡고 그녀의 얼굴을 애뜻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가자고 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는 나와 함께 떠날 준비가 되어 있겠니?”

“그게 언제쯤일까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으며 물었다.

“걸어야 두어 달이면 된다. 그때 내가 너를 데리러 가마, 내 사랑.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아버지는요?” 그녀가 물었다.

“이 광산들이 제대로 가동되기만 한다면, 그는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아버지와 당신이 이미 다 정하신 일이라면 더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녀는 그의 넓은 가슴에 뺨을 기댄 채 속삭였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는 쉼 목소리로 외치며 몸을 굽혀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제 결정됐소. 여기 더 머물수록 떠나기는 더 힘들어질 테니까. 협곡에서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소. 잘 가시오, 나의 사랑—부디 잘 가시오. 두 달 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요.”

그는 말을 내뱉으며 그녀에게서 몸을 떼어냈다. 그리고는 말 위로 거칠게 올라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질주하며 멀어져 갔다. 마치 뒤에 남겨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돌아본다면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다. 그녀는 대문 앞에 서서 그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유타주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된 기분으로 집 안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제2부 제3장 존 페리어와 예언자의 대화

제3장. 존 페리어와 예언자의 대화

제퍼슨 호프와 그의 동료들이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난 지 어느덧 3주가 흘렀다. 존 페리어는 청년이 돌아올 날과, 그로 인해 양딸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의 밝고 행복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도 이 결정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그는 결연한 마음속 깊이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그 무엇도 딸이 모르몬교도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는 그런 결혼을 결코 결혼이라 여기지 않았으며, 그저 수치이자 치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모르몬의 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적어도 이 한 가지 문제에서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어야만 했다. 당시 '성자들의 땅'에서 정통 교리에 어긋나는 의견을 내비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은 위험한 문제였다. 너무나 위험한 나머지,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입 밖으로 내뱉는 종교적 견해를 숨죽여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혹여나 말실수라도 하여 자신에게 가차 없는 응징이 내려올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때 박해를 받던 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박해자가 되어, 그 어떤 것보다 끔찍한 방식으로 타인을 짓밟고 있었다. 세비야의 종교재판소도, 독일의 펴메리히트(Vehmgericht)도, 이탈리아의 비밀 결사들도 유태주를 뒤덮은 이 거대한 공포의 기계만큼 위협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했다.

그 조직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고 그 자체로 신비에 싸여 있었기에, 사람들에게는 두 배로 공포스러운 존재였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보였으나, 정작 그 실체는 어디에서도 볼 수도,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다. 교단에 맞서던 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혹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집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남편을 기다렸지만, 비밀 재판관들에게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해주며 돌아온 아버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솔한 말 한마디나 성급한 행동 하나는 곧장 파멸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을 짓누르는 이 무시무시한 권력이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알 길이 없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설령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품은 의구심을 감히 속삭이지 못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이 모호하고도 무시무시한 권력이 오직 반항적인 자들에게만 행사되었다. 모르몬교를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이를 변절하거나 떠나려 하는 자들이 그 대상이었다. 하지만 곧 그 영향력은 더 넓은 범

위로 뺏어 나갔다. 성인 여성의 수가 부족해지자, 그들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일부다처제는 실로 메마른 교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기이한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이민자들이 살해당했다거나, 인디언이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는 지역의 캠프들이 약탈당했다는 소문들이었다. 장로들의 하렘에는 새로운 여인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애타게 그리워하며 울부짖었고, 얼굴에는 꺼지지 않는 공포의 흔적이 역력했다. 산맥을 뒤늦게 넘던 방랑자들은 가면을 쓰고 은밀하며 소리 없이 움직이는 무장 괴한 집단이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스쳐 지나갔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이야기와 소문들은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증언이 더해지고 또 더해지면서, 마침내 소문은 하나의 명확한 이름으로 귀결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서부의 외딴 목장들 사이에서 '대나이트 밴드' 혹은 '복수의 천사들'이라는 이름은 불길하고도 흉측한 이름으로 통한다.

이토록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조직의 실체를 더 자세히 알게 될수록, 사람들은 공포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전율을 느껴야 했다. 이 무자비한 결사대에 누가 속해 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종교의 이름 아래 자행된 피비린내 나는 폭력과 살육에 가담한 자들의 명단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당신이 예언자와 그의 사명에 대해 품은 불안감을 털어놓았던 바로 그 친구조차, 밤중에 불과 칼을 들고 나타나 무시무시한 보복을 가할 일원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웃을 두려워하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한 이야기조차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다. 존 페리어가 밀밭으로 일하러 나서려던 참에 문빋장이 달각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내다보니, 모래빛 머리칼을 가진 체격 좋은 중년 남성이 오솔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페리어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위대한 브리검 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방문이 자신에게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님을 직감한 페리어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모르몬 교단의 지도자를 맞이하려 문으로 달려 나갔다. 하지만 브리검 영은 페리어의 인사를 차갑게 무시하더니, 엄격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다.

“페리어 형제여.”

그는 자리에 앉으며 연한 색 눈썹 아래로 농부를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진정한 신자들은 당신에게 아주 좋은 친구들이었지. 사막에서 굶어 죽어갈 때 우리가 당신을 거두어 주었네. 음식을 나누어 주고, 선택받은 계곡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지. 게다가 땅도 넉넉히 나누어 주어, 우리의 보호 아래 당신이 부를 쌓을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존 페리어가 대답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참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의 모든 관습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소홀히 했다는 말입니까?” 페리어가 항변하며 양손을 내저었다. “공동 기금에 내 몫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내가 설마——?”

“부인들은 어디 계십니까?” 브리검 영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그분들을 안으로 불러주십시오. 인사를 나누고 싶군요.”

“결혼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페리어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자가 귀했고, 나보다 더 나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외로운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곁에서 제 필요를 돌봐주었으니까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건 바로 그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르몬교의 지도자가 말했다. “그녀는 유타의 꽃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게 자랐지요. 게다가 이 땅의 권력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들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존 페리어는 속으로 신음했다.

“그녀에 대해 믿고 싶지 않은 소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 방인과 약속한 사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분명 한가한 사람들의 입에

서 나온 헛소문이겠지요. 성스러운 조셉 스미스의 교리에 담긴 제13법칙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모든 처녀는 선택받은 자와 결혼해야 한다. 만약 이방인과 혼인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스러운 신조를 고수하는 당신이, 당신의 딸이 그 법을 어기도록 내버려 둘 리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존 페리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초조한 기색으로 승마용 채찍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오직 이 한 가지 점으로 그대의 신앙을 시험하리라. 이것은 신성한 4인 평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그 소녀는 아직 젊다. 우리는 소녀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과 혼인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렇다고 소녀에게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 장로들에게는 거느린 암소[1]가 많으나, 우리 자식들 또한 짝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법이다. 스탠거슨에게도 아들이 있고 드레버에게도 아들이 있으니, 두 사람 모두 그대의 딸을 기쁘게 맞이할 것이다. 소녀가 둘 중 한 명을 직접 선택하게 하라. 그들은 젊고 부유하며,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이에 대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히버 C. 케멀은 설교 중에 자신의 아내 백 명을 가리켜 이토록 다정한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페리어는 미간을 찌푸린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시간을 좀 주시게.” 마침내 그가 말했다. “내 딸은 아직 너무 어리네. 혼인을 논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한참 모자라거든.”

“그녀에게 선택할 시간을 한 달 주겠소.” 브리검 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 한 달이 지나면, 그녀는 결정을 내릴 것이요.”

그가 문을 지나쳐 나가려던 찰나, 돌연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번뜩였다.

"존 페리어, 차라리 너와 그 여자가 시에라 블랑코의 산맥 위에서 창백한 해골로 뒹굴고 있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그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포효했다. "네놈들의 그 나약한 의지로 성스러운 네 분의 명령에 맞서려 하다니!"

그는 위협하듯 손짓을 한 번 하고는 문밖으로 나갔다. 페리어는 자갈길을 짓누르는 그의 묵직한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여전히 무릎에 팔꿈치를 켜 채 앉아 있었다. 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고개를 들어 보니 그녀가 곁에 서 있었다. 창백하게 질린 채 겁에 질린 그녀의 얼굴을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존 페리어는 딸이 방금 일어난 일을 모두 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는 대답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려 퍼졌거든요. 오, 아버지, 아버지, 이제 우린 어찌면 좋죠?”

“너무 겁먹지 마.” 그가 그녀를 자기 품으로 끌어당기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넓고 거친 손으로 그녀의 밤색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식은 건 아니지?”

그녀는 흐느끼며 그의 손을 꼭 쥐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아니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고 싶지 않군요. 그 친구는 참 괜찮은 청년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요. 여기 사람들처럼 기도와 설교를 아무리 떠들어대도 신앙심이 라곤 없는 이들보다는 훨씬 낫지요. 내일 네바다로 떠나는 일행이 있는데, 그 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전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청년이라면, 전신보다 더 빠르게 이곳으로 달려올 겁니다.”

아버지의 묘사를 들은 루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오면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아버지예요. 예언자에게 맞서는 사람들에게 대해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하지만 아직 그에게 맞서지는 않았네.” 그녀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맞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폭풍우에 대비해야 할 게야. 우리 앞에는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네. 그 시기가 지나면, 내 생각엔 유태를 떠나는 게 최선일 것 같구나.”

“유타를 떠나라!”

“대략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농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돈은 우리가 최대한 마련해 보겠네. 나머지는 그냥 포기하자고. 사실 루시, 이런 생각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저 사람들이 저 망할 예언자에게 굽실거리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건 질색이라네. 나는 자유로운 미국인으로 태어났는데, 이런 상황은 내게 너무나 낯설군. 아마 새로운 걸 배우기엔 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나 보네. 만약 그자가 이 농장 주변을 기웃거리며 돌아다닌다면, 반대 방향에서 날아오는 산탄을 맞게 될지도 모를 일이지.”

“하지만 그들이 우릴 못 가게 할 거예요.” 딸이 반박했다.

“제퍼슨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요. 그럼 금방 해결될 테니까. 그러는 동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 사랑. 눈이 툭툭 부을 정도로 울지도 말고요. 당신이 그런 모습을 보면 제퍼슨이 나한테 달려들지도 모르니까. 무서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무런 위험도 없으니까요.”

존 페리어는 아주 자신만만한 어조로 그녀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 그가 유독 문을 잠그는 데 신경을 쓴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침실 벽에 걸린 녹슨 낡은 산탄총을 정성스럽게 닦고 장전하기까지 했다.

제2부 제4장 목숨을 건 도주

제4장. 생존을 위한 도주

모르몬교 예언자를 만난 다음 날 아침, 존 페리어는 솔트레이크시티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네바다 산맥으로 떠날 예정인 지인을 만났고, 그에게 제퍼슨 호프에게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맡겼다. 편지에는 그들에게 닥친 급박한 위험과, 호프가 반드시 돌아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적었다.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존 페리어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농장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대문 기둥마다 말이 한 마리씩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선 뒤 마주한 광경은 더욱 당혹스러웠다. 젊은 사내 둘이 그의 거실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백하고 긴 얼굴을 한 사내는 흔들의자에 몸을 뒤로 기대 채, 난로 위에 발을 올리고 있었다. 또 다른 사내는 목이 굽고 얼굴이 거칠며 부어오른 듯한 인상이었는데, 그는 창가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대중적인 찬송가를 휘파람으로 불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페리어가 들어서자 고개를 까닥이며 인사를 건넸고, 흔들의자에 앉아 있던 사내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아마 저희를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쪽은 드레버 장로님의 아들이고, 저는 조지프 스탠거슨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펼쳐 여러분을 진정한 양떼로 인도하셨을 때, 사막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정을 떠났던 사람이지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때에 모든 민족을 그분의 품으로 거두어들이실 것이요.” 상대방이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의 멧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곱게 갈아버리시지.”

존 페리어는 차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찾아온 이들이 누구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저희는 조상님들의 권유를 받들어 이곳에 왔습니다.” 스탠거슨이 말을 이었다. “당신의 따님을 저희 중 한 사람과 혼인시켜 달라고 청하러 온 것이지요. 당신과 따님이 보기에 적절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제게는 아내가 네 명뿐이지만, 여기 드레버 형제는 일곱 명이나 되니, 제 청권이 더 강력해 보이는군요.”

“아니, 아니네, 스탠거슨 형제,” 다른 이가 외쳤다. “문제는 아내가 몇 명인가가 아니라, 몇 명이나 데리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네. 이 제 아버님께서 방앗간을 내게 물려주셨으니, 난 훨씬 부유해졌지.”

“하지만 내 앞날이 더 밝네.” 다른 이가 열띤 목소리로 말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시면, 아버지의 무두질 작업장과 가죽 공장은 모두 내 차지이 될 걸세. 게다가 난 자네보다 형이지 않은가. 교회 내에서도 내 지위가 더 높을 테고 말이야.”

“결정은 그 처녀에게 맡겨야지.” 젊은 드레버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모든 건 그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네.”

두 방문객의 등 뒤로 당장이라도 승마용 채찍을 휘두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존 페리어는 문가에 서서 분노를 삭이고 있었다.

“이보게들,” 마침내 그가 그들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며 말했다. “내 딸이 자네들을 부르면 그때는 와도 좋네. 하지만 그전까지는 자네들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물러가게.”

두 젊은 모르몬교도는 경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있어 처녀의 손을 차지하려는 이 경쟁은,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

“방에서 나가는 길은 두 군데뿐이오!” 페리어가 외쳤다. “문이 하나 있고, 창문이 하나 있지. 어느 쪽을 택하겠나?”

그의 검게 그을린 얼굴은 험악해 보였고, 깡마른 손은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위협적이었다. 그 기세에 눌린 방문객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노인은 그들이 나가는 것을 문 앞까지 따라가 지켜보았다.

“어느 쪽으로 마음을 정했는지 결정되면 알려주게.”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스탠거슨이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외쳤다. “네놈은 예언자와 4인 위원회에 도전했다. 죽는 날까지 이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손이 너를 짓누를 것이다!” 젊은 드레버가 외쳤다. “그분께서 일어나 너를 치실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심판을 내리겠다!” 페리어가 격분하며 외쳤다. 그는 당장이라도 총을 가지러 위층으로 달려 올라가려 했으나, 루시가 그의 팔을 붙잡아 만류하는 바람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루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이미 그들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나버렸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 젊고 비열한 악당 놈들 같으니!” 그는 이마의 땀을 닦아내며 외쳤다. “얘야, 나는 네가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무덤에 들어가는 걸 보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그녀가 기운차게 대답했다. “하지만 곧 제퍼슨 호프가 이곳에 도착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가 도착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빨리 오는 편이 낫겠지요. 저들이 다음엔 어떤 수를 써올지 알 수 없으니까요.”

강인한 노령의 농부와 그의 양딸을 도울 수 있는, 조언과 도움을 줄 만한 유능한 누군가가 나타나야 할 시점이었다. 정착촌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장로들의 권위에 이토록 노골적으로 불복종한 사례는 전례가 없었다. 사소한 실수조차 이토록 엄격하게 처벌받는 판국에, 이 대역죄인의 운명은 대체 어떠하겠는가. 페리어는 자신의 재산과 지위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만큼이나 이름 높고 부유한 이들도 이미 끌려간 적이 있었고, 그들의 재산은 교회로 귀속되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으나, 자신을 짓누르는 막연하고도 불길한 공포 앞에서는 몸을 떨었다. 눈에 보이는 위협이라면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맞설 수 있었겠지만, 이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는 딸에게 두려움을 숨기며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굴었다. 하지만 사랑으로 다져진 딸의 예리한 눈은, 아버지가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브리검 영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나 항의를 받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그 방식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형태였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그는 가슴 바로 위, 침대 덮개에 작은 정사각형 종이 한 장이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종이에선 굵고 휘갈겨 쓴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수정할 시간은 스물아홉 일뿐이다. 그 뒤에는——”

그 대시(一) 표시는 그 어떤 협박보다도 더 공포스러웠다. 존 페리어는 이 경고가 어떻게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몹시 당혹스러웠다. 하인들은 모두 별채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집 안의 문과 창문은 모두 굳게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종이를 구겨버린 채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은 그의 마음속에 서늘한 공포를 드리웠다. 남은 29일이라는 숫자는 분명 브리검 영이 약속했던 한 달의 잔여 기간을 의미했다. 이토록 신비로운 힘을 휘두르는 적을 상대로 대체 어떤 힘이나 용기가 소용이 있겠는가? 그 핀을 쫓은 손이 만약 그의 심장을 찔렀다면, 그는 누가 자신을 죽였는지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전날보다 더욱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루시가 비명을 지르며 천장을 가리켰다. 천장 한가운데에는 타다 남은 막대기로 쓴 듯한 숫자 '28'이 휘갈겨져 있었다. 딸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숫자였으나, 그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총을 든 채 잠들지 못하고 경계를 서며 밤을 지새웠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의 방문 바깥쪽에는 커다란 숫자 '27'이 그려져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존 페리어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기록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적들은 자비의 달이 끝나기까지 그에게 남은 날이 며칠인지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 두었다. 때로는 벽 위에, 때로는 바닥에 그 불길한 숫자들이 나타났다. 가끔은 정원 문이나 울타리에 붙은 작은 표지판에서 그 숫자를 마주하기도 했다. 존 페리어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 경계했으나, 매일 같이 날아드는 이 경고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끝내 알아낼 수 없

었다. 숫자를 볼 때마다 그는 미신에 가까운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수척해지고 안절부절못했으며, 눈빛은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제 그의 삶에 남은 희망은 단 하나뿐이었다. 네바다에서 젊은 사냥꾼이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스무 명이었던 인원은 열다섯 명으로, 다시 열다섯 명은 열 명으로 줄어들었지만, 행방불명된 이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다. 숫자는 하나둘씩 줄어들었으나 그가 나타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딸 탄 사람이 길을 따라 달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마부가 말들에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노인은 마침내 도움이 도착했다는 생각에 서둘러 대문으로 달려 나갔다. 하지만 다섯 명이 네 명으로, 다시 네 명이 세 명으로 줄어드는 것을 본 순간, 노인은 낙담하며 탈출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렸다. 마을을 둘러싼 산세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노인이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은 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지나갈 수 없도록 엄격히 감시되고 경비되었다. 어느 방향으로 몸을 돌리든, 노인에게 닥칠 재앙을 피할 길은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노인은 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는 결심을 결코 굽히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어떻게든 이 난관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날 아침, 집 벽에는 숫자 '2'가 나타났다. 내일이면 정해진 기한이 끝난다. 그 뒤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온갖 막연하고 끔찍한 상상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게다가 딸은 어찌 될 것인가? 자신이 사라진 뒤에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들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그물망에서 벗어날 길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무력감에 휩싸여 테이블 위로 머리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방금 무슨 소리였을까? 정적 속에서 낮게 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였다. 소리는 집 문 쪽에서 나고 있었다. 페리어는 홀 안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 귀를 기울였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 음산하고 낮은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누군가 문에 달린 판자 중 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비밀 재판소의 살인 명령을 수행하러 온 자정의 암살자일까? 아니면 자비의 마지막 날이 왔음을 알리러 온 요원일까? 존 페리어는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이 불안함보다는, 차라리 즉사하는 편이 낫겠다고 느꼈다. 그는 몸을 날려 문빗장을 뽑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바깥은 고요하고 평온했다. 밤공기는 맑았고, 머리 위로는 별들이 밝게 반짝였다. 울타리와 대문으로 둘러싸인 작은 앞마당이 페리어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마당 안에도 길 위에도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페리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좌우를 살폈다. 그러다 문득 발치를 내려다본 그는 경악하고 말았다. 한 남자가 팔다리를 사방으로 뻗친 채, 땅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광경을 목격한 그는 너무나 경악한 나머지,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려 손으로 목을 감싸 쥔 채 벽에 몸을 기댔다. 처음에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형체가 부상을 입었거나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 형체는 뱀처럼 빠르고 소리 없이

바닥을 기어 복도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남자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문을 닫고는, 경악한 농부에게 제퍼슨 호프의 사납고 단호한 얼굴을 드러내 보였다.

“세상에!” 존 페리어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깜짝 놀랐잖소! 대체 왜 그렇게 갑자기 들어온 거요?”

“음식을 좀 주게.” 상대방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마흔여덟 시간 동안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네.” 그는 주인장이 저녁 식사로 차려놓은 고기와 빵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것을 향해 몸을 던지듯 달려들어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허기를 채운 그가 물었다. “루시는 잘 견디고 있는가?”

“맞아요. 그 아이는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잘됐군. 집 사방을 감시하고 있다니. 그래서 내가 기어서 올라온 거 아닌가. 그놈들이 제법 영리할지는 몰라도, 워쇼 지역의 사냥꾼을 잡아낼 만큼 영리하지는 못하거든.”

존 페리어는 자신에게 헌신적인 아군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청년의 가죽처럼 거친 손을 움켜쥐고 진심을 담아 힘차게 흔들었다.

“자네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군.” 존 페리어가 말했다. “우리와 함께 위험과 고난을 나누려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친구.” 젊은 사냥꾼이 대답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만, 만약 이 일에 당신이 없다면 저도 이런 벌집을 건드리기 전에 두 번은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온 건 루시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해가 닳치기 전에, 유타주에서 호프 가문의 일원이 한 명 줄어들게 될 것 같군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오늘 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끝장이에요. 이글 계곡에는 노새 한 마리와 말 두 마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금화 2,000달러와 지폐 5,000달러입니다.”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저도 그만큼을 더 보탬 수 있으니깐요. 우리는 산맥을 넘어 카슨시티까지 서둘러 가야 합니다. 루시를 깨우는 게 좋겠습니다. 하인들이 집에서 자지 않으니 차라리 다행이군요.”

페리어가 딸의 여비 준비를 돕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제퍼슨 호프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 작은 꾸러미를 만들었다.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운 도자기 항아리도 하나 챙겼다. 산속에는 우물이 드물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프가 채비를 거의 마칠 무렵, 페리어가 돌아왔다. 그의 딸은 이미 떠날 채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연인들은 뜨겁게 인사를 나누었으나 그 시간은 짧았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이었고,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았기 때문이다.

“당장 출발해야 합니다.” 제퍼슨 호프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눈앞에 닥친 위험이 얼마나 거대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맞서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처럼 들리는 목소리였다. “앞문과 뒷문은 모두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움직인다면 옆쪽 창문으로 빠져나가 들판을 가로지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길로만 나설 수 있다면, 말이 기다리고 있는 협곡까지는 고작 2마일 거리입니다. 동이 틀 때쯤이면 산맥의 절반쯤은 통과해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가로막힌다면 어쩌나?” 페리어가 물었다.

호프는 튜닉 앞쪽으로 툭 튀어나온 권총 손잡이를 탁 쳤다. “놈들이 우리보다 수가 많다면, 우리도 두세 명쯤은 데리고 가야지.” 그가 불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집 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어둑해진 창문 너머로 페리어는 들판을 내다보았다. 한때 자신의 소유였으나, 이제는 영원히 떠나야 할 땅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희생을 각오해 왔다. 딸이 누릴 명예와 행복을 생각하면,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한 후회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바스락거리는 나무들과 광활하고 고요하게 펼쳐진 곡식밭은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여서, 이 모든 곳에 살인의 기운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젊은 사냥꾼의 창백한 얼굴과 굳게 다문 표정은, 집으로 다가오는 길에 그가 이미 충분히 불길한 것을 목격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페리어는 금화와 지폐가 든 가방을 챙겼고, 제퍼슨 호프는 얼마 안 되는 식량과 물을 들었다. 루시는 소중한 물건 몇 가지를 모아 작은 꾸

러미를 만들었다. 그들은 창문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는 짙은 구름이 밤의 어둠을 어느 정도 가려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명씩 작은 정원으로 빠져나갔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몸을 낮추고 정원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이윽고 울타리에 다다르자, 울타리를 따라 이동하며 옥수수밭으로 이어지는 틈새를 찾아냈다. 그들이 막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젊은이가 두 동행을 붙잡아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그들은 그곳에 엎드린 채 떨며 숨을 죽였다.

제퍼슨 호프가 평원에서 쌓은 경험 덕분에 스라소니처럼 예민한 청력을 갖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그와 일행이 몸을 웅크리자마자 불과 몇 야드 거리에서 산부엉이의 우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부엉이가 화답하듯 울었다. 바로 그 순간, 일행이 향하던 틈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그 형체가 다시 한번 애처로운 신호음을 내뿔자, 어둠 속에서 두 번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내일 자정이다.” 권위를 가진 듯 보이는 첫 번째 인물이 말했다.
“휘프푸어월이 세 번 울 때다.”

“그거 다행이군요.” 상대방이 대답했다. “드레버 형제에게 전할까요?”

“그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해. 9 대 7이다!”

“7대 5!” 상대방이 되풀이했다. 그러자 두 형체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썩싸게 사라졌다. 마지막에 나눈 말은 분명 암호와 그에 응답하는 확인 신호였던 모양이다. 멀리서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제퍼슨 호프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동료들이 틈새를 빠져나오도록 도와준 뒤, 전력 질주하며 들판을 가로질러 앞장섰다. 그러다 소녀의 기력이 다한 듯 보이면 그녀를 부축하거나 거의 안다시피 하며 이끌었다.

“서둘러! 더 빨리!” 그는 때때로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이제 초병들을 지나고 있어. 모든 건 속도에 달렸단 말이야. 서둘러!”

큰길에 들어서자 그들의 속도는 빨라졌다. 길에서 사람을 마주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으나, 그들은 재빨리 들판으로 몸을 숨겨 정체를 들키지 않았다. 마을에 도착하기 전, 사냥꾼은 산으로 이어지는 험하고 좁은 오솔길로 방향을 틀었다. 어둠 속에서 검고 들쭉날쭉한 두 봉우리가 그들 위로 솟아 있었다. 두 봉우리 사이로 난 협곡은 이글 캐년이었으며, 그곳에 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퍼슨 호프는 본능적인 감각을 발휘해 거대한 바위들 사이와 말라붙은 물길을 따라 길을 찾아 나갔다. 마침내 그는 바위들에 가려져 외진 구석에 자리 잡은, 충직한 말들이 매여 있는 곳에 도착했다. 소녀를 노새에 태우고, 돈주머니를 챙긴 늙은 페리어는 말 한 마리에 태웠다. 제퍼슨 호프는 나머지 말 한 마리를 끌고 가파르고 위험한 길을 따라 나아갔다.

대자연의 거친 변덕을 마주해 본 적 없는 이들에게 그 길은 그야말로 아찔한 여정이었다. 한쪽에는 검고 엄숙하며 위협적인 거대한 암벽이 천 피트 넘게 솟아 있었다. 울퉁불퉁한 암벽 표면에는 긴 현무암 기

등들이 마치 화석이 된 괴물의 갈비뼈처럼 돌아나 있었다. 반대편에는 거대한 바위와 파편들이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어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 사이로 불규칙한 길이 이어졌는데, 어떤 구간은 너무 좁아 일렬로 줄을 지어 가야만 했고, 노련한 기수들이 아니면 통과하기 힘들 정도로 노면 또한 험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도망자들의 마음은 가벼웠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들을 쫓는 무시무시한 독재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여전히 성도(Saints)들의 관할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이 협곡에서 가장 거칠고 황량한 구간에 다다랐을 때, 소녀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위쪽을 가리켰다. 길을 내려다보는 바위 위로, 하늘을 배경 삼아 검고 선명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곳에 외로운 파수꾼 한 명이 서 있었다. 일행이 그를 발견하자마자 그도 그들을 알아차렸고, "거기 누구냐?"라는 그의 군대식 경계 구호가 정적에 잠긴 협곡 사이로 울려 퍼졌다.

“네바다로 가는 여행객입니다.” 제퍼슨 호프가 안장에 매달린 소총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들은 홀로 서 있는 감시자가 총을 만지작거리며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다. 마치 그들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누구의 허락을 받았단 말인가?” 그가 물었다.

“성스러운 4인방이오.” 페리어가 대답했다. 모르몬교를 겪으며 그는 그들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권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7에서 9를 빼라!” 파수꾼이 외쳤다.

“5에서 7을 빼라.” 제퍼슨 호프가 즉시 대답했다. 정원에서 들었던 암호를 기억해 낸 것이다.

“지나가시오, 주께서 그대와 함께하시길.”

위쪽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말했다. 초소를 지나자 길이 넓어졌고, 말들도 속도를 내어 트로트를 시작할 수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홀로 서서 총에 몸을 기댄 채 지키고 있는 감시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이제 선택받은 민족의 외곽 초소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눈앞에 자유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2부 제5장 복수의 천사들

제5장. 복수의 천사들

밤새도록 그들의 행로는 복잡하게 뒤엉킨 협곡과 울퉁불퉁한 바위길로 이어졌다. 길을 잃는 일도 여러 번 있었으나, 산세에 정통한 호프 덕분에 다시 경로를 찾을 수 있었다. 아침이 밝자 경이로우면서도 야생적인 풍광이 눈 앞에 펼쳐졌다. 사방에는 만년설을 머금은 거대한 봉우리들이 서로의 어깨 너머로 먼 지평선을 훑쳐보듯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양옆의 바위 절벽은 어찌나 가파른지, 머리 위로 늘어진 낙엽송과 소나무들은 금방이라도 바람 한 점에 휩쓸려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사실 그 공포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황량한 계곡 곳곳에는 나무와 바위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굴러떨어진 흔적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나가는 순간에도 거대한 바위 하나가 거친 소리를 내며 굉음과 함께 굴러떨어졌다. 그 소리는 고요한 협곡에 메아리쳤고, 지친 말들을 놀라게 하여 질주하게 만들었다.

동쪽 지평선 위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자, 거대한 산봉우리들이 마치 축제의 등불처럼 차례로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윽고 산들은 온통 붉은 빛을 머금은 채 찬란하게 빛났다. 이 장엄한 광경은 도망 중인 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세 사람은 협곡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친 급류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다. 그들은 그곳에서 말을 물 먹이며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쳤다. 루시와 그녀의 아버지는 좀 더 쉬고 싶어 했으나, 제퍼슨 호프는 단호했다.

“지금쯤이면 그들이 우리 흔적을 찾아냈을 거요.” 그가 말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속도에 달려 있소. 카슨에 무사히 도착하기만 하면, 남은 생은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이오.”

그날 하루 내내 그들은 험준한 협곡을 헤치며 사투를 벌였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적들로부터 30마일 이상 멀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밤이 되자 그들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자리를 잡았다. 바위 벽이 찬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 몸을 맞댄 채 웅기종기 모여 앉아 몇 시간 동안 짧은 잠을 청했다. 하지만 동이 트기도 전에 그들은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났다. 추격자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제퍼슨 호프는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그 무시무시한 조직의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 강철 같은 손길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자신들을 덮쳐 짓눌러버릴지 전혀 알지 못했다.

도주 이틀째 중반쯤 되자,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냥꾼은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다. 산속에는 사냥할 짐승들이 널려 있었고, 이전에도 생존을 위해 소총에 의지해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구석진 곳을 골라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 불을 피웠다. 해발 5,000피트에 달하는 고지대라 공기가 매섭고 차가웠기에, 동료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말들을 매어둔 그는 루시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는, 총을 어깨에 멘 채 길 위에서 마주칠지 모를 먹잇감을 찾아 길을 나섰다. 뒤를 돌아보니 노인과 어린 소녀가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세 마리의 짐승은 그 뒤편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이내 깎아지른 바위들이 그들의 모습을 가로막았다.

그는 계곡을 하나하나 지나며 몇 마일이나 걸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다만 나무껍질에 남은 흔적과 여러 정황을 보아하니, 이 근처에 곰이 떼로 살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두세 시간 동안 헛된 수색을 이어가던 그는 결국 절망하며 발길을 돌리려던 참이었다. 그때 문득 위를 올려다본 그의 심장이 기쁨으로 요동쳤다.

그의 머리 위로 300~400피트쯤 떨어진, 툭 튀어나온 암벽 끝에 짐승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겉모습은 양과 비슷했지만, 거대한 뿔이 한 쌍 달려 있었다. 사람들은 이 동물을 '빅혼(Big-horn)'이라 불렀다. 아마도 이 녀석은 사냥꾼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양 떼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다행히 녀석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기에 그를 알아채지는 못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바위 위에 소총을 거치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 길고 신중하게 조준을 마쳤다. 짐승은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랐다. 녀석은 절벽 끝에서 잠시 비틀거리더니, 이내 아래쪽 계곡을 향해 굉음을 내며 굴러떨어졌다.

짐승이 너무 무거워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사냥꾼은 그저 뒷다리 한쪽과 옆구리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는 전리품을 어깨에 짊어진 채 서둘러 왔던 길을 되짚어 가기 시작했다. 이미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길을 나서자마자 그는 곧 난관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냥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잘 아는 협곡을 훨씬 지나쳐 멀리까지 들어와 버린 것이다. 지나온 길을 다시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가 처한 계곡은 수많은 골짜기로 갈라지고 또 나뉘어 있었는데, 그 모습들이 서로 너무나 비슷해서 어느 것이 어느 곳인지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는 길을 따라 1마일 넘게 내려갔으나, 결국 한 번도 본 적 없는 산악 급류를 마주하고 말았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확신한 그는 다른 길로 가보려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밤은 빠르게 다가왔고, 마침내 익숙한 좁은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사방이 거의 어두워진 뒤였다. 그마저도 올바른 경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다. 달이 아직 뜨지 않은 데다, 양옆으로 솟은 높은 절벽이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냥한 짐승의 무게에 짓눌리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그는 비틀거리며 계속 나아갔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루시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남은 여정 동안 두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양을 챙겼다는 생각이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는 마침내 일행을 남겨두고 떠났던 바로 그 협곡 입구에 도착했다.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협곡을 둘러싼 절벽의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거의 다섯 시간이나 자리를 비웠으니, 일행이 분명 초조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반가운 마음에 그는 두 손을 입가에 모으고는, 자신이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협곡이 울릴 정도로 크게 "홀라!" 하고 외쳤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외침만이 쓸쓸하고 적막한 골짜기를 타고 울려 퍼지며, 수없이 되풀이되어 귓가로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전보다 더 크게 다시 한번 소리쳤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들에게서는 여전히 작은 속삭임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정체 모를 막연한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소중한 음식물마저 떨어뜨린 채, 미친 듯이 앞을 향해 달려 나갔다.

모퉁이를 돌아마자 불이 피워졌던 자리가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곳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은 나무 재 더미가 쌓여 있었지만, 그가 떠난 뒤로는 아무도 불을 돌보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주변은 여전히 죽은 듯 고요했다. 막연한 두려움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불씨가 남은 곳 근처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짐승도, 사람도, 처녀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작스럽고 끔찍한 재앙이 닥쳤음이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 재앙은 모두를 휩쓸고 지나갔으면서도, 정작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제퍼슨 호프는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소총에 몸을 기댄 채 간신히 버텼다. 하지만 그는 본래 행동파였기에, 잠시 찾아온 무력감에서 금세 회복했다. 그는 꺼져가는 불 속에서 반쯤 타다 남은 나무토막 하나를 집어 들었다. 입으로 불어 불꽃을 일으킨 그는 그 나무토막을 횃불 삼아 작은 캠프 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땅은 말발굽에 짓밟혀 엉망이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기마대가 도망자들을 뒤쫓았음을 알 수 있었다. 말발굽이 향한 방향을 보니, 그들은 나중에 다시 솔트레이크시티 쪽으로 되돌아간 모양이었다. '그들이 내 동료들을 둘 다 데려간 것인가?' 제퍼슨 호프는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온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물체가 들어왔다.

캠프 한쪽 조금 떨어진 곳에 붉은 흙이 낮게 쌓여 있었다. 분명 이전에는 없던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 판 무덤임이 틀림없었다. 젊은 사냥꾼이 그곳으로 다가갔을 때, 무덤 위에 막대기 하나가 꽂혀 있는 것이 보였다. 막대기의 갈라진 틈 사이에는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종이에 적힌 문구는 짧았지만,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전 솔트레이크시티 거주자, 존 페리어. 1860년 8월 4일 사망.

그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튼튼한 체격의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남겨진 것은 이 비석뿐이었다. 제퍼슨 호프는 혹시라도 다른 무덤이 있는지 확인하려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루시는 결국 잔인한 추격자들에게 끌려가, 장로

아들의 하렘에 속하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다. 젊은이는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막을 힘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차라리 자신도 저 노인과 함께 마지막 안식처에 나란히 누워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의 활동적인 정신은 절망에서 비롯된 무기력함을 떨쳐냈다.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적어도 복수에는 평생을 바칠 수 있었다. 제퍼슨 호프는 불굴의 인내심과 끈기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집요하게 복수를 이어가는 힘 또한 갖추고 있었다. 아마도 그와 함께 생활했던 인디언들에게서 배운 능력일 것이다.

꺼져가는 불가에 서서 그는 생각했다. 자신의 손으로 원수들에게 철저하고 완벽한 응징을 가하는 것만이 슬픔을 달랠 유일한 길이라고 말이다. 그는 자신의 강한 의지와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에만 쏟기로 결심했다.

창백하고 험악한 표정의 그는 음식을 떨어뜨렸던 곳까지 발길을 돌렸다. 그는 남은 불씨를 다시 살려 며칠 동안 버틸 만큼의 음식을 구웠다. 음식을 뭉쳐 꾸러미를 만든 그는, 몸은 천근만근이었으나 복수의 천사들을 쫓아 산맥을 넘어 다시 길을 떠났다.

그는 이미 말을 타고 지나갔던 협곡들을 닷새 동안이나 지친 발로 헤치며 고단하게 나아갔다. 밤이 되면 바위틈에 몸을 던져 몇 시간씩 졸잠을 잤지만, 동이 트기도 전에 그는 언제나 길을 재촉했다.

여섯째 날, 그는 불행한 도주가 시작되었던 이글 캐니언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성도들의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기진맥진한 그는 소총에 몸을 기댄 채, 발아래 펼쳐진 고요하고 광활한 도시를 향해 수척한 손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도시를 살피던 그는 주요 거리마다 깃발이 걸려 있고 축제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던 찰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기마 한 명이 그를 향해 달려왔다. 가까이 다가온 남자를 보니, 예전에 몇 차례 도움을 준 적이 있는 카우퍼라는 이름의 모르몬교도였다. 그는 루시 페리어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남자가 다가오자마자 말을 걸었다.

“나는 제퍼슨 호프요.” 그가 말했다. “나를 기억하고 있겠지.”

모르몬교도는 숨기지 못한 경악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창백하다 못해 유령처럼 질린 얼굴에 사나운 눈빛을 한 채,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칼을 헝클어뜨린 이 떠돌이를 보고 예전의 그 말끔했던 젊은 사냥꾼을 떠올리기는 무척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마침내 그가 누구인지 확신하자, 남자의 경악은 이내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오다니 제정신이 아니군!” 그가 외쳤다. “자네와 대화하는 모습이 남에게 보이길라도 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판이야. 페리어 일가를 도운 죄로 ‘성스러운 네 명(the Holy Four)’이 자네를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했던 말일세.”

“그들이나 그들이 가져온 영장은 두렵지 않네.” 호프가 간곡하게 말했다. “카우퍼, 자네는 이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겠지. 자네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걸고 간청하겠네. 몇 가지만이라도 답해 주게. 우리는 언제나 친구였지 않은가. 제발 부탁하네, 내 질문에 답하는 걸 거절하지 말게.”

“무슨 일입니까?” 모르몬교도가 불안한 듯 물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바위조차 귀가 있고 나무에는 눈이 달려 있는 법입니다.”

“루시 페리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어제 젊은 드레버와 결혼했네. 이보게, 정신 차리게! 제발, 정신 좀 차려보게! 자네,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제 걱정은 마십시오.” 호프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입술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몸은 기대고 있던 돌벽을 따라 바닥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방금 결혼했다고 하겠습니까?”

“어제 결혼했습니다. 엔도먼트 하우스에 걸린 저 깃발들이 바로 그 뜻이지요. 젊은 드레버와 젊은 스탠거슨 사이에는 그녀를 누가 차지할지를 두고 말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녀를 뒤따르던 일행에 속해 있었거든요. 스탠거슨이 그녀의 아버지를 총으로 쏘았으니, 그쪽이 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논쟁을 벌인 결과, 드레버 측의 세력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그녀를 드레버에게 넘겨준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를 오래 데리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제 그녀의 얼굴에서 죽음을 보았거

든요. 여인이라기보다는 유령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떠나시는 겁니까?”

“그래, 떠나겠네.”

자리에서 일어난 제퍼슨 호프가 말했다. 그의 표정은 마치 대리석을 깎아 만든 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에서는 불길한 빛이 번뜩였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상관없네.”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는 무기를 어깨에 둘러메고는 협곡 아래로 성큼성큼 걸어 내려갔다. 그는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산맥 깊숙한 곳을 향해 멀어져 갔다. 그곳의 그 어떤 맹수도 그만큼 사납거나 위험하지는 않았다.

모르몬교도의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실현되었다.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강제로 맺어진 혐오스러운 결혼 생활의 여파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가련한 루시는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야위어 가다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주로 존 페리어의 재산을 노리고 그녀와 결혼한 술주정뱅이 남편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별다른 슬픔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다른 아내들은 루시를 위해 슬퍼했다. 모르몬교의 관습에 따라 그들은 장례 전날 밤 그녀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다.

이른 새벽, 여인들이 시신이 놓인 관 주위에 모여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경악이 그들을 덮쳤다. 누더기를 걸친, 사납고 거친 인상에 풍파에 시달린 듯한 사내가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온 것이다. 겁에 질려 움츠러든 여인들을 돌아보거나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은 채, 그는 한때 루시 페리어의 순수한 영혼이 깃들어 있던 그 창백하고 고요한 형체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시신 위로 몸을 굽혀 차가운 이마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낚아채듯 잡아 손가락에서 결혼반지를 빼냈다. "이런 걸 끼고 묻힐 수는 없다!" 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외쳤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는 계단을 뛰어 내려가 자취를 감추었다. 너무나 기이하고 짧게 지나간 일이라, 만약 신부였음을 증명하던 금반지가 사라졌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없었더라면, 지켜보던 이들조차 자신들이 본 것을 믿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제퍼슨 호프는 몇 달 동안 산속을 떠돌며 기이하고 거친 삶을 이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라는 격렬한 갈망이 들끓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외곽 지역을 배회하며 외딴 산골짜기를 떠도는 기괴한 형체에 관한 이야기가 떠돌았다. 한 번은 총알이 스탠거슨의 창문을 뚫고 날아들어, 그의 몸에서 불과 1피트 떨어진 벽에 박히는 일이 있었다. 또 다른 날에는 드레버가 절벽 아래를 지나갈 때 거대한 바위가 그를 덮쳤다. 그는 바닥에 얼굴을 처박으며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겼다.

두 젊은 모르몬교도는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공격의 이유를 곧 알아차렸다. 그들은 적을 붙잡거나 죽이겠다는 희망을 품고 산속으로 수차례 원정을 떠났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그들은 결코 혼자 외출하지 않고 해가 진 뒤에는 움직이지 않기로 했으며, 집에는 경비원을

두는 예방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런 조치들도 점차 느슨해졌다. 적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기에,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적의 복수심도 식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간은 그의 복수심을 식히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욱 부채질했을 뿐이었다. 사냥꾼의 정신은 완고하고 굽힐 줄 모르는 성질이 있었다. 복수라는 지배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힌 나머지, 그의 마음에는 다른 어떤 감정이 들어설 틈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강철 같은 체력조차 스스로 가하는 끊임없는 압박을 견뎌낼 수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야외에서의 노출과 영양가 있는 음식의 부족이 그를 쇠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만약 산속에서 개처럼 죽게 된다면, 그의 복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그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는 그렇게 죽는 것이 적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 꼴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 옛 네바다 광산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결핍 없이 복수를 완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으기로 했다.

그의 계획은 길어야 1년 정도 자리를 비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겹치면서, 그는 거의 5년 동안이나 광산을 떠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기억과 복수심은 존 페리어의 무덤 곁에 서 있던 그 잊지 못할 밤만큼이나 여전히 생생했다. 그는 변장을 하고 가명까지 사용하며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왔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그곳에서 그는 불길한 소식을 접했다. 몇 달 전, 선택받은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었다. 교회의 젊은 신도 중 일부가 장로들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고, 그 결과 불만을 품은 이들이 무리를 지어 유타를 떠나 이교도가 되었다. 드레버와 스탠거슨도 이 무리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소문에 따르면 드레버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바꾸어 부유한 상태로 떠났고, 그의 동료였던 스탠거슨은 그에 비해 가난한 처지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단서가 없었다.

아무리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이런 난관에 부딪히면 복수라는 생각 자체를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퍼슨 호프는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가진 돈이 넉넉지 않았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원수들을 찾아 미국 전역의 마을을 떠돌았다. 해가 바뀌고 검던 머리칼이 희끗희끗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방랑을 멈추지 않았다. 오직 평생을 바쳐온 단 하나의 목표만을 쫓는 인간 사냥개와 같았다.

마침내 그의 인내심은 결실을 보았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간 얼굴을 본 것뿐이었지만, 그 짧은 찰나의 눈길만으로도 그는 확신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자신이 쫓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복수 계획을 완벽히 세운 뒤, 비참한 처처로 돌아갔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창밖을 내다보던 드레버가 거리의 부랑자를 알아보고 말았다. 그의 눈에서 살기를 읽어낸 것이다. 드레버는 자신의 개인 비서가 된 스탠거슨과 함께 서둘러 치안판사를 찾아갔

다. 그리고 과거의 라이벌이 품은 질투와 증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날 저녁 제퍼슨 호프는 구금되었다.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그는 몇 주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어야 했다. 마침내 석방되었을 때, 드레버의 저택은 이미 비어 있었다. 드레버와 그의 비서는 이미 유럽으로 떠난 뒤였다.

복수자는 또다시 실패했다. 하지만 응축된 증오심은 그를 다시금 추적의 길로 몰아넣었다. 문제는 자금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는 한동안 다시 일을 시작해야만 했다. 다가올 여정을 위해 단 한 달러라도 아껴가며 돈을 모았다. 마침내 생계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돈을 모은 그는 유럽으로 떠났다. 그는 적들을 쫓아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했다. 어떤 천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으며 길을 열었지만, 도망자들을 잡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다.

그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을 때, 적들은 이미 파리로 떠난 뒤였다. 그를 따라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그들이 막 코펜하겐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덴마크의 수도에서도 그는 며칠 차이로 그들을 놓치고 말았다. 적들은 다시 런던으로 향했고, 마침내 그는 런던에서 그들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런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왓슨 박사의 일지에 기록된 노련한 사냥꾼의 회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제2부 제6장 존 왓슨 박사의 회상 (계속)

제6장. 존 왓슨 박사의 회상, 그 뒷이야기

우리에게 붙잡힌 죄수가 격렬하게 저항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악의를 품은 듯한 인상은 아니었다. 그는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다치지 않는지 걱정스럽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무래도 경찰서로 끌려가게 될 모양이군." 죄수가 설록 홈즈에게 말했다. "마침 문 앞에 마차가 대기 중이라네. 다리만 묶인 것만 풀어 준다면 직접 걸어가겠네. 예전만큼 몸이 가볍지 않아서 들고 가기엔 좀 버거울 테니 말이야."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는 이 제안이 다소 대담하다고 생각하는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홈즈는 즉시 죄수의 말을 믿고, 우리가 그의 발목에 묶어 두었던 수건을 풀어 주었다. 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발이 다시 자유로워졌는지 확인하려는 듯 다리를 쭉 뻗었다.

나는 그를 유심히 지켜보며, 이토록 건장한 체격의 남자는 좀처럼 보기 드물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그의 얼굴에는 육체적인 힘만큼이나 위압적인 결연함과 활력이 서려 있었다.

“경찰청장 자리가 비어 있다면, 자네가 적임자라고 확신하네.” 그는 내 룸메이트를 숨김없는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가 내 뒤를 쫓던 숨씨는 정말이지 대단했어.”

“두 경위님은 저와 함께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홈즈가 두 형사에게 말했다.

“제가 태워다 드리지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렉슨 경위도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오시죠. 왓슨 박사님도요. 박사님께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셨으니, 차라리 우리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모두 함께 내려갔다. 죄수는 도망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태우려 온 마차에 차분히 올라탔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다. 레스트레이드는 마부석에 올라타 채찍질을 했고,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우리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경찰 경위 한 명이 죄수의 이름과 그가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관리는 안색이 창백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루할 정도로 기계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했다.

“죄수는 이번 주 중에 치안판사 앞에 서게 될 것ियो.” 그가 말했다.
“그동안, 제퍼슨 호프 씨, 하고 싶은 말이 있소? 당신이 하는 말은 모두 기록될 것이며, 나중에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하겠소.”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죄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신사 여러분께 전부 다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 이야기는 재판 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위가 물었다.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가 대답했다.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을 것 없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네, 의사인가?”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그는 강렬하고 어두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럼 여기 손을 얹어 보게.”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수갑을 찬 손목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가져가며 손짓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자마자 그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고동과 소란이 즉각 느껴졌다. 마치 강력한 엔진이 돌아갈 때 연약한 건물이 흔들리듯, 그의 가슴벽도 파르르 떨리며 진동하는 것 같았다. 적막한 방 안에서, 나는 그곳에서 시작된 둔탁한 웅웅거림과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세상에,” 내가 외쳤다. “대동맥류가 있으시군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군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지난주에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반드시 터지고 말 거라고 하더군요. 수년 동안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솔트레이크 산맥에서 햇볕에 너무 오래 노출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 생긴 병입니다. 이제 할 일은 다 마쳤으니 언제 죽든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했던 일에 대한 기록만은 남겨두고 싶군요. 그저 흔한 살인마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아서 말입니다."

경위와 두 형사는 그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기 위해 서둘러 논의를 나누었다.

"박사님,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앞서 말한 이가 물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정의를 위해서라도 그의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의무입니다." 경위가 말했다. "선생님께서도 자유롭게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경고하건대,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두 기록될 것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앉겠습니다." 죄수는 말과 동시에 실제로 자리에 앉았다. "이놈의 동맥류 때문에 금방 기력이 빠지는군요. 삼십 분 전의 그 몸싸움 때문에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나는 지금 죽기 직전의 몸이니, 당신에게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모

두 사실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어떻게 이용하든 나로서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퍼슨 호프는 이 말을 끝으로 의자에 몸을 기대더니, 뒤이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겪은 일들이 아주 흔한 일이라도 되는 양, 차분하고도 논리적인 태도로 말을 이어 나갔다. 다음에 이어지는 진술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내가 보증할 수 있다. 나는 레스트레이드 경위의 수첩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 수첩에는 피의자가 내뱉은 말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왜 그들을 증오했는지는 당신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겠지요.” 그가 말했다. “그들이 아버지와 딸,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죄를 지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범행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라, 어떤 법정에서도 그들을 유죄로 판결받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죄를 알고 있었고, 내가 직접 판사이자 배심원이, 그리고 처형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도 만약 사내다운 기개가 있다면, 내 처지였을 때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내가 말했던 그 여인은 20년 전 나와 결혼할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드레버와 강제로 결혼해야만 했고, 그 일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죽은 손가락에서 결혼반지를 빼내며 맹세했습니다. 드레버가 죽어가는 순간, 그 눈이 바로 이 반지를 바라보게 하겠노라고.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를 떠올리며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나는 이 반지를 품에 지니고, 그와 그의 공범을

잡기 위해 두 대륙을 가로지르며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지치게 만들려 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일 내가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만족감을 느끼며 죽을 것입니다. 아주 잘 해냈으니깐요. 그들은 내 손에 의해 파멸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희망도, 갈망도 없습니다.”

그들은 부유했고 나는 가난했기에, 그들을 뒤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 내 주머니는 거의 비어 있었고,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시작해야만 했다. 걷는 것처럼 마차를 몰거나 말을 타는 일은 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차 대여소에 일 자리를 구했고,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주인에게 매주 일정 금액을 가져다주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은 모두 내 몫으로 챙기기로 했다. 남는 돈이 넉넉한 적은 드물었지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텨 나갔다. 가장 힘든 일은 길을 익히는 것이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미로보다도 이 도시는 길 찾기가 복잡하고 어지러웠기 때문이다. 그래도 곁에 지도를 두고 다녔고, 주요 호텔과 역들의 위치를 한 번 파악하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꽤 수월하게 다닐 수 있었다.

두 신사가 어디에 머무는지 알아내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그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강 건너편 캠버웰에 있는 어느 하숙집에 머물고 있었다. 일단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나니, 이제 그들을 내 손아귀에 넣는 일은 시간문제처럼 느껴졌다. 그사이 나는 수염을 길러 놓은 터라 그들이 나를 알아볼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나는 기회를 엿보며 그들의 뒤를 끈

질기게 밟기로 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들은 거의 다 성공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런던 어디를 돌아다니든, 저는 늘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때로는 마차를 타고, 때로는 직접 걸어서 뒤를 밟았지요. 마차를 타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저를 따돌리지 못했으니까요.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주에게 줄 돈이 밀리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들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교활했습니다. 누군가 뒤를 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았고 해가 진 뒤에도 결코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저는 2주 동안 매일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떨어지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드레버 본인은 절반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스탠거슨은 한시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들을 감시했지만, 틈을 잡을 기회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낙담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저에게 곧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유일하게 두려웠던 것은, 가슴 속의 이 병이 너무 일찍 터져버려 일을 다 마치지 못하게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머물던 거리의 이름인 토키 테라스 주변을 마차로 돌아다니던 중이었다. 그때 마차 한 대가 그들의 집 문 앞에 멈춰 섰다. 곧이어 짐들이 밖으로 실려 나왔고, 잠시 뒤 드레버와 스탠거슨

이 그 뒤를 따라 나오더니 마차에 올라타 떠나갔다. 나는 그들이 거처를 옮기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 말의 박차를 가해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았다.

그들은 유스턴 역에 도착했다. 나는 소년 한 명에게 말을 맡겨두고 승강장까지 그들을 뒤쫓았다. 그들이 리버풀행 열차를 찾는 소리가 들렸고, 역무원은 방금 열차가 떠났으니 다음 열차는 몇 시간 뒤에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스탠거슨은 그 말에 불쾌한 기색을 보였으나, 드레버는 오히려 별로 개의치 않는 듯했다.

역 안의 소란을 틈타 나는 그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갔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었다. 드레버는 개인적으로 처리할 급한 용무가 생겼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면 곧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동행인은 함께 움직이기로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며 반대했다. 드레버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 혼자 다녀와야 한다고 대답했다.

스탠거슨이 그 말에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했다. 하지만 드레버는 갑자기 욕설을 내뱉으며, 스탠거슨은 그저 돈을 받고 일하는 하인일 뿐이니 감히 명령하려 들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그 말에 비서인 스탠거슨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하고는 포기하는 듯했다. 그는 만약 마지막 열차를 놓치게 되면 헬리데이 개인 호텔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드레버는 11시 전에는 반드시 승강장으로 돌아오겠다고 답한 뒤 역 밖으로 나갔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 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 적들을 내 손아귀에 넣을 기회가 온 것이다. 그들이 함께라면 서로를 지킬 수 있겠지만, 하나씩 따로 마주한다면 내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될 터였다. 하지만 나는 결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 가해자가 자신을 내리치는 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응징을 당해야 하는지 깨달을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면 복수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에게 해를 끼친 그자가 자신의 옛 죄가 결국 자신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할 계획을 세웠다.

마침 며칠 전, 브릭스톤 로드 근처의 집들을 둘러보던 한 신사가 내 마차에 열쇠 하나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다. 그 열쇠는 당일 저녁에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나는 그사이 열쇠의 형틀을 떠서 똑같은 복제품을 하나 만들어 두었다. 이 복제품 덕분에 나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최소한 한 곳은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난제는 어떻게 이 녀 드레버를 그 집으로 유인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는 길을 따라 내려가더니 술집 한두 곳에 들렀다. 마지막 술집에 서는 거의 30분 동안이나 머물렀다. 술집에서 나왔을 때는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것이, 보아하니 술이 꽤나 취한 상태였다. 마침 내 바로 앞에 이룬마차(한섬) 한 대가 있었고, 그는 그 마차를 불러 세웠다. 나는 그 마차를 바짝 뒤쫓았다. 가는 내내 내 말의 코끝이 그 마차 마부에게서 1야드도 채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우리는 워털루 다리를 거쳐 수 마일의 거리를 달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가 묵었던 테라스 근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가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지 도무

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계속 뒤를 쫓아 그 집에서 1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마차를 멈춰 세웠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를 태운 마차는 그대로 떠나갔다.

실례지만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입안이 바짝 마르는군요.

나는 그에게 잔을 건넸고, 그는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제 좀 낫군요.” 그가 말했다. “자, 저는 15분 정도, 혹은 그보다 더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집 안에서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듯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문이 벌컥 열리더니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드레버였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젊은 사내였습니다. 그 사내는 드레버의 털미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 꼭대기에 다다르자, 사내는 드레버를 거세게 밀치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충격에 드레버는 도로 한복판까지 나동그라졌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놈!’ 사내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정직한 처녀를 모욕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사내는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지팡이로 드레버를 때려눕힐 기세였습니다. 다행히 드레버가 다리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도로를 따라 비틀거리며 도망쳤기에 망정이지 말입니다. 그는 모퉁이까지 달려가더니, 제 마차를 보고는 저를 불러 세워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헬리데이 개인 호텔로 가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마차에 제대로 태우고 나니, 기쁨에 가슴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이 마지막 순간에 동맥류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다.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하며 천천히 마차를 몰았습니다. 그를 바로 시골로 데려가서, 인적 드문 어느 길가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결정을 내린 참이었는데, 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주더군요. 술에 대한 갈망이 다시 그를 사로잡은 모양인지, 그는 내게 어느 진(gin)집 앞에 차를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을 남긴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영업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제 모든 상황은 내 손안에 들어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냉혹하게 살해하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그저 엄격한 정의의 실현이었겠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삶을 이어갈 기회를 잡기로 선택한다면, 그에게도 살 기회를 주겠노라고 오래전부터 결심해 왔으니까요.

방랑하며 보낸 미국 생활 동안 여러 직업을 거쳤지만, 요크 대학 실험실의 관리인이자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가 독극물에 대해 강의하며 학생들에게 알칼로이드라는 것을 보여 주더군요. 남미의 화살독에서 추출한 것이라는데, 아주 미세한 양만으로도 즉사할 만큼 강력한 물질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물이 담긴 병을 눈여겨보았고,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뜬 뒤 조금 챙겨두었습니다. 약을 다루는 솜씨가 제법 좋았던 저는 그 알칼로이드를 녹기 쉬운 작은 알약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약 하나하나를 독이 없는 똑같은 알약과 함께 상자에 담아두었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기회가 오면 그 신사 양반들에게는 각자 이 상자들 중 하나에서 알약을 하나씩 뽑게 하고, 남은 알약은 내가 먹겠노라고 말입니다. 손수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결투하듯 총을 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면서도, 치사율은 그에 못지않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이 알약 상자들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이제 드디어 그것을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자정보다는 1시에 가까운 시각이었다. 바람은 거세게 몰아치고 비는 폭포처럼 쏟아지는, 사납고 황량한 밤이었다. 밖은 그토록 음울했지만, 내 마음속은 기뻐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순수한 환희에 차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였다. 만약 신사 여러분 중 누군가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며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갈망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손이 닿는 곳에 있음을 발견한다면, 나의 이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시가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고 흥분으로 관자놀이가 옥신거렸다. 마차를 모는 동안, 어둠 속에서 노인 존 페리어와 사랑스러운 루시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지금 이 방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또렷하게 말이다. 브릭스턴 로드의 집 앞에 마차를 세울 때까지, 두 사람은 줄곧 내 앞에서 말의 양옆에 하나씩 서서 걸어갔다.

빗소리 외에는 사람의 흔적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드레버가 술에 취해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팔을 흔들며 말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알았소, 마부 양반.” 그가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이 말했던 그 호텔에 도착했다고 생각했나 봅시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더니 정원을 따라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휘청거렸기에, 제가 옆에서 부축하며 걸어야 했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제가 문을 열고 그를 앞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맹세컨대, 오는 내내 아버지와 딸은 우리보다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지옥처럼 어둡군!” 그가 발을 구르며 말했다.

“곧 불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성냥을 그어 가져온 양초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자, 이녁 드레버 씨.” 나는 촛불을 내 얼굴 쪽으로 비추며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제 대답해 보시죠. 내가 누구입니까?”

그는 술에 취해 흐릿해진 눈으로 잠시 나를 응시했다. 그러다 돌연 그의 눈에 공포가 서리더니, 그 경악이 얼굴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나는 그가 나를 알아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입술은 달달 떨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길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복수는 달콤할 것이라고 늘 생각은 해왔지만, 지금 내 영혼을 가득 채운 이 충만한 만족감까지 맛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악마 같은 놈!” 내가 외쳤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놈을 쫓아다녔지만, 번번이 놓치고 말았지. 하지만 이제 네 방랑도 끝이다. 너와 나 중 하나는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테니까!”

내가 말을 내뱉자 그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그의 얼굴을 보니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사실 당시의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관자놀이의 맥박은 마치 거대한 망치질처럼 요동쳤다. 만약 코에서 피가 쏟아져 나와 압박이 풀리지 않았다면, 아마 발작이라도 일으켰을 것이다.

“이제 루시 페리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문을 잠근 뒤, 그의 눈앞에서 열쇠를 흔들며 외쳤다.

“심판이 늦어지긴 했지만, 결국 당신을 따라잡았군.”

내 말이 떨어지자 그의 겹에 질린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목숨을 구걸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를 죽일 셈인가요?” 그가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살인은 없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미친개를 죽인 걸 두고 누가 살인이라 말하겠습니까? 내 가여운 아이를, 살해당한 아버지로부터 강제로 끌어내어 당신들의 저주받고 파렴치한 하렘으로 데려갔을 때,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베푼 자비가 대체 무엇이었던 말입니까?”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건 내가 아니야!” 그가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순결한 마음을 짓밟은 건 바로 당신이야!” 나는 상자를 그의 눈앞에 거칠게 밀어붙이며 비명을 질렀다. “지고하신 신께서 우리 사이의 판결을 내리시길. 자, 골라. 그리고 먹어라. 하나에는 죽음, 다른 하나에는 생명이 들어 있다. 당신이 남긴 것 중 무엇이든 나는 먹으리라.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저 운명에 휘둘리는 존재인지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는 자비를 구하며 미친 듯이 울부짖고 기도했지만, 나는 칼을 뽑아 그의 목에 들어댔습니다. 그가 내 명령에 따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나머지 독약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잠시,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침묵 속에 서로를 마주 보고 서 있었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독이 몸속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통증이 그를 덮었을 때, 그의 얼굴에 스치던 그 표정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표정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루시의 결혼반지를 그의 눈앞에 흔들며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알칼로이드 성분의 독은 작용이 매우 빠르니까요. 고통으로 인한 경련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내뻗으며 비틀거리더니, 쉼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무겁게 쓰러졌습니다. 나는 발로 그를 뒤집어 놓고 손을 그의 심장에 대 보았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코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피를 벽에 묻혀 글을 쓰려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 아마도 경찰을 엉뚱한 길로 유인해 보려는 짓궂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제 기분은 무척 가볍고 유쾌했으니까요. 예전에 뉴욕에서 어떤 독일인이 머리 위에 RACHE라고 적힌 채 발견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신문에서는 비밀 결사 조직의 소행일 것이라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뉴욕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그 수범이라면 런던 사람들도 똑같이 당황할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가락을 제 피에 적서 벽의 적당한 곳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러고는 마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 내려갔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밤바람은 여전히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던 중, 평소 루시의 반지를 넣어두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반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반지는 그녀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레버의 시신 위로 몸을 숙일 때 떨어뜨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곧장 마차를 돌렸습니다. 반지를 잃느니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에, 골목길에 마차를 세워두고 곧장 집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마침 밖으로 나오던 경찰관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말았는데, 저는 속수무책으로 취한 척 연기해서 겨우 그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녀 드레버의 최후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다음 제가 할 일은 스탠거슨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것, 그리하여 존 페리어의 빛을 갉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스탠거슨이 할리데이 개인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하루 종일 그 주변을 배회했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레버가 나타나지 않자 스탠거슨도 무언

가 눈치를 채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교활했고, 늘 경계심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만 머물면 저를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었습니다.

저는 곧 그의 침실 창문이 어디인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새벽, 호텔 뒤편 골목에 놓여 있던 사다리들을 이용해 그의 방으로 잠입했습니다. 저는 그를 깨운 뒤, 오래전 빼앗은 생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드레버의 죽음을 설명해 준 뒤, 그에게도 독약이 든 알약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전을 보장받을 그 기회를 붙잡는 대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제 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로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결과는 어차피 같았을 것입니다. 신의 섭리가 그 죄 많은 손으로 독약이 아닌 다른 것을 집어 들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더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제 기운도 거의 다 빠졌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갈 비용을 모을 때까지 마차를 몰 생각으로 며칠 동안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당에 서 있는데, 누더기를 걸친 어린 소년 하나가 다가오더군요. 제퍼슨 호프라는 마부 있느냐고 묻더니, 베이커가 221B에 계신 신사분께서 마차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별 의심 없이 따라갔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이 청년이 제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있더군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깔끔하고 단단하게 말입니다. 신사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살인자로 보셔

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만큼이나 정의를 집행하는 법의 수호자라고 믿습니다.”

그 남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스릴 넘쳤고, 말하는 태도 또한 매우 인상적이어서 우리는 완전히 몰입한 채 침묵을 지켰다. 범죄의 온갖 세세한 내막에 대해 이미 통달하여 매사에 무덤덤한 전문 형사들조차, 이 남자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몇 분 동안 정적 속에 머물렀다.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속기록을 마무리하느라 연필을 사각거리는 레스트레이드 경위의 소리뿐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점이 있네.” 마침내 셜록 홈즈가 입을 열었다. “내가 광고를 내서 반지를 찾으러 왔던 그 공범은 누구였나?”

죄수는 내 친구를 향해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다. “내 비밀은 내가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죄수가 말했다. “하지만 남을 곤경에 빠뜨리지는 않죠. 당신이 낸 광고를 봤습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제가 찾던 바로 그 반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 친구가 대신 가보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기민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당신도 인정할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지.” 홈즈가 활기차게 대답했다.

“자, 신사 여러분.” 경위가 엄숙하게 말했다. “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목요일에 피의자를 치안판사 앞에 세울 예정이니, 여러분도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피의자를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니다.” 그는 말을 마치며 벨을 눌렀다. 교도관 두 명이 제퍼슨 호프를 끌고 나갔다. 그사이 나와 내 친구는 경찰서를 나와 마차를 잡아타고 베이커가로 향했다.

제2부 제7장 결말

제7장. 결말

우리는 모두 목요일에 치안판사 앞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목요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증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심판자가 그 일을 직접 맡으셨고, 제퍼슨 호프는 엄정한 정의가 내려질 법정으로 소환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붙잡힌 바로 그날 밤, 동맥류가 터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감옥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마치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유익했던 삶과 완수해낸 과업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의 죽음 소식을 들으면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가 아주 난리가 나겠군.”

다음 날 저녁,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홈즈가 말했다.

“그들이 호기롭게 내걸었던 광고는 이제 어디에 실리게 될까?”

“그들이 그의 체포에 큰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이 세상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네.” 내 동료
가 쓰라린 듯 대답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했다고
믿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지. 하지만 됐네.” 잠시 침묵하던 그가 다시
밝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 사건 조사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
야. 내 기억이 닿는 한 이보다 더 나은 사건은 없었네. 단순한 사건이었
지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지점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

“간단하군요!” 내가 외쳤다.

“글쎄요, 정말이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군요.”

나의 놀란 기색을 본 설록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단순한지는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
다. 아주 평범한 몇 가지 추론 외에는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도, 단
사흘 만에 범인의 정체를 밝혀냈으니까요.”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말했다.

“평범하지 않은 현상은 대개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길잡이가 된다
고 이미 말씀드렸지요.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 때는 역추론을 할 수 있
느냐가 관건입니다. 역추론은 매우 유용하면서도 배우기 쉬운 기술이

지만, 사람들이 좀처럼 연습하지 않는 법이죠. 일상생활에서는 순방향으로 추론하는 것이 더 유용하기 때문에, 역추론은 소홀히 다뤄지곤 합니다. 종합적으로 추론할 줄 아는 사람이 쉰 명이라면, 분석적으로 추론할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보죠. 보통 사람들에게 일련의 사건들을 들려주면, 그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사건들을 연결해 보며, 그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추론해 내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부터 먼저 말해줬을 때,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을 스스로의 의식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말하는 ‘역추론’ 혹은 ‘분석적 추론’이란 바로 이런 능력을 뜻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번 사건은 결과가 먼저 주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모든 단서를 직접 찾아내야만 하는 경우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떤 단계를 거쳐 추리를 이어갔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지요.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걸어서 그 저택에 접근했습니다. 우선 도로 상황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했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곳에서 마차의 흔적을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마차는 밤사이에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 분명하더군요. 바퀴의 폭이 좁은 것을 보고 그것이 개인용 마차가 아니라 일반 영업용 마차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보통 런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차는 신사들이 타는 브룸(brougham)보다 폭이 훨씬 좁거든요.”

이것이 내가 얻은 첫 번째 단서였다. 그다음 나는 정원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그 길은 마침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점토질 토양이었다. 당신의 눈에는 그저 진흙탕이 되어 짓밟힌 길로만 보였겠지만, 훈련된 내 눈에는 지표면의 모든 흔적이 저마다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탐정학의 여러 분야 중 발자국을 추적하는 기술만큼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다뤄지는 분야는 없다. 다행히 나는 항상 이 기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왔고, 수많은 실전 경험 덕분에 이제는 제2의 천성처럼 몸에 배어 있다.

나는 순경들이 남긴 무거운 발자국을 보았지만, 동시에 정원을 먼저 지나간 두 남자의 흔적도 찾아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지나갔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었다. 뒤이어 온 사람들이 그들의 발자국 위를 밟아버린 탓에, 곳곳에서 앞선 흔적들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두 번째 연결 고리가 만들어졌다. 그 흔적을 통해 밤에 찾아온 방문객이 두 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 명은 보폭의 길이를 통해 계산해 보니 키가 매우 컸고, 다른 한 명은 구두가 남긴 작고 우아한 흔적으로 보아 세련된 옷차림을 한 인물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나의 마지막 추측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튼튼한 장화를 신은 남자가 내 앞에 쓰러져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살인 사건이라면, 범인은 분명 키가 큰 자일 것이다. 시신의 몸 어디에도 상처는 없

었다. 하지만 얼굴에 서린 격렬한 공포는,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심장병이나 갑작스러운 자연사로 죽는 사람의 얼굴에는 결코 그런 격앙된 표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시신의 입술 냄새를 맡아보았고, 거기서 약간 시큼한 냄새를 감지했다. 이를 통해 누군가 강제로 독을 먹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시신의 얼굴에 드러난 증오와 공포를 보아도, 독이 강제로 주입되었다는 사실은 자명했다. 다른 어떤 가설도 눈앞의 사실들을 설명할 수 없었기에, 나는 소거법을 통해 이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생소한 수법이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범죄 기록을 살펴보면 독을 강제로 먹이는 방식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독성학자라면 오데사의 돌스키 사건이나 몽펠리에의 르튀리에 사건을 즉시 떠올릴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의문이 남았다. 대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강도가 목적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정치적 원한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여자 때문이었을까? 내 앞에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놓여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후자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정치적 암살자들은 일을 저지른 뒤 곧장 도망치기 바쁜 법이다. 하지만 이번 살인은 정반대였다. 범인은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방 안 곳곳에 흔적을 남겨두어 자신이 그곳에 머물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토록 체계적인 복수를 불러일으킨 것은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임이 분명했다. 벽에 적힌 글자가 발견되었을 때, 나는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 그 글자는 누가 봐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눈속임이었다. 그러나 반지가

발견되면서 의문은 완전히 풀렸다. 범인은 분명 죽었거나 떠나버린 어떤 여인을 피해자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그 반지를 이용한 것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그렉슨에게 물었다. 클리블랜드로 보낸 전보에 이넉 드레버의 과거 행적 중 특이 사항이 있는지 확인했느냐고 말이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아니라고 답했다.

나는 곧바로 방 안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범인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확신할 수 있었고, 트리치노폴리산 시가와 범인의 손톱 길이 같은 추가적인 단서들도 얻어냈다. 현장에 몸싸움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에, 나는 바닥을 뒤덮은 혈흔이 범인이 흥분한 나머지 코에서 터져 나온 것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혈흔이 남은 경로가 범인의 발자국 경로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알아챘다. 보통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진다고 해서 이처럼 코피를 쏟는 일이 드물다. 혈기가 아주 왕성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나는 범인이 아마도 건장하고 혈색이 좋은 남자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후 벌어진 사건들은 내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집을 나선 나는 그렉슨이 놓쳤던 일을 곧장 실행에 옮겼다. 클리블랜드 경찰 책임자에게 전보를 보내 이넉 드레버의 결혼과 관련된 정황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답신은 명확했다. 드레버가 과거 연적이었던 제퍼슨 호프라는 인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이미 법적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그 호프라는 자는 현재 유럽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사건을 풀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쥐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남은 일은 범인을 붙잡는 것뿐이었다.

드레버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남자가 바로 마차를 몰던 그 사람이었다고,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길 위에 남은 흔적을 보니 말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만약 누군가 말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마차를 몰던 사람이 집 안에 있지 않은 이상,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또한, 제삼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제삼자가 반드시 자신을 밀고할 것이 뻔한데,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런던 시내에서 다른 사람을 미행하려 한다면, 마차꾼으로 변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제퍼슨 호프가 런던의 마차꾼들 사이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가 사라졌다고 믿을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히려 자신을 눈에 띄게 만들 가능성이 컸겠지요. 그는 아마도 적어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을 겁니다. 가명을 쓰고 있다고 추측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라에서, 그가 왜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거리의 부랑아들로 구성된 탐정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는 그 남자를 찾아낼 때까지 런던의 모든 마차 주인에게 그들을 체계적으로 보냈지요. 그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재빨리 그 결과를 이용했는지는 당신의 기억에도 여전히 생생할 겁니다. 스탠거슨의 살해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

한 일이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막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이미 존재를 짐작하고 있었던 그 알약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보시다시피, 이 모든 일은 단 하나의 끊임이나 결함도 없이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내가 외쳤다. “당신의 공로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 출판해야 해요. 만약 당신이 하지 않겠다면,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박사님은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러더니 그는 내게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말을 이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여기를 좀 보세요!”

그날자 《에코》 지였다. 그가 가리킨 기사란은 바로 문제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대중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놓치게 되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낙 드레버 씨와 조지프 스탠거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던 호프라는 남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상세한 내막은 이제 영영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만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범죄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낭만적이고도 뿌리 깊은 원한 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과정에는 사랑과 물몬교가 얽혀 있다고 한다. 피해자 두 사람 모두 젊은 시절 후기 성도 교회 신자였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한 죄수인 호프 역시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이다. 이번 사건이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경찰 수사대의 유능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임은 분명하다. 또한

외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원한을 영국 땅까지 끌고 오지 말고 고국에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번 신속한 검거의 공로는 전적으로 스코틀랜드 야드의 저명한 관리들인 레스트레이드 경위와 그렉슨 경위에게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설록 홈즈라는 인물의 방에서 체포되었다. 홈즈 씨는 아마추어로서 수사 분야에 어느 정도 재능을 보여왔으며, 이처럼 뛰어난 스승들의 지도를 받는다면 머지않아 그들만큼의 숙련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경위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조만간 적절한 형태의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우리가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설록 홈즈가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주홍색 연구’가 가져온 결과물이라네. 저들에게 표창이나 안겨주다니!”

“상관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모든 사실을 제 일기에 기록해 두었으니, 언젠가 대중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로마의 수전노처럼 성공했다는 자부심만으로 만족하며 지내셔야 합니다. 그 수전노는—”

“민중은 나를 향해 휘파람을 불지만, 나는 집에서 금고 속의 돈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낸다.”